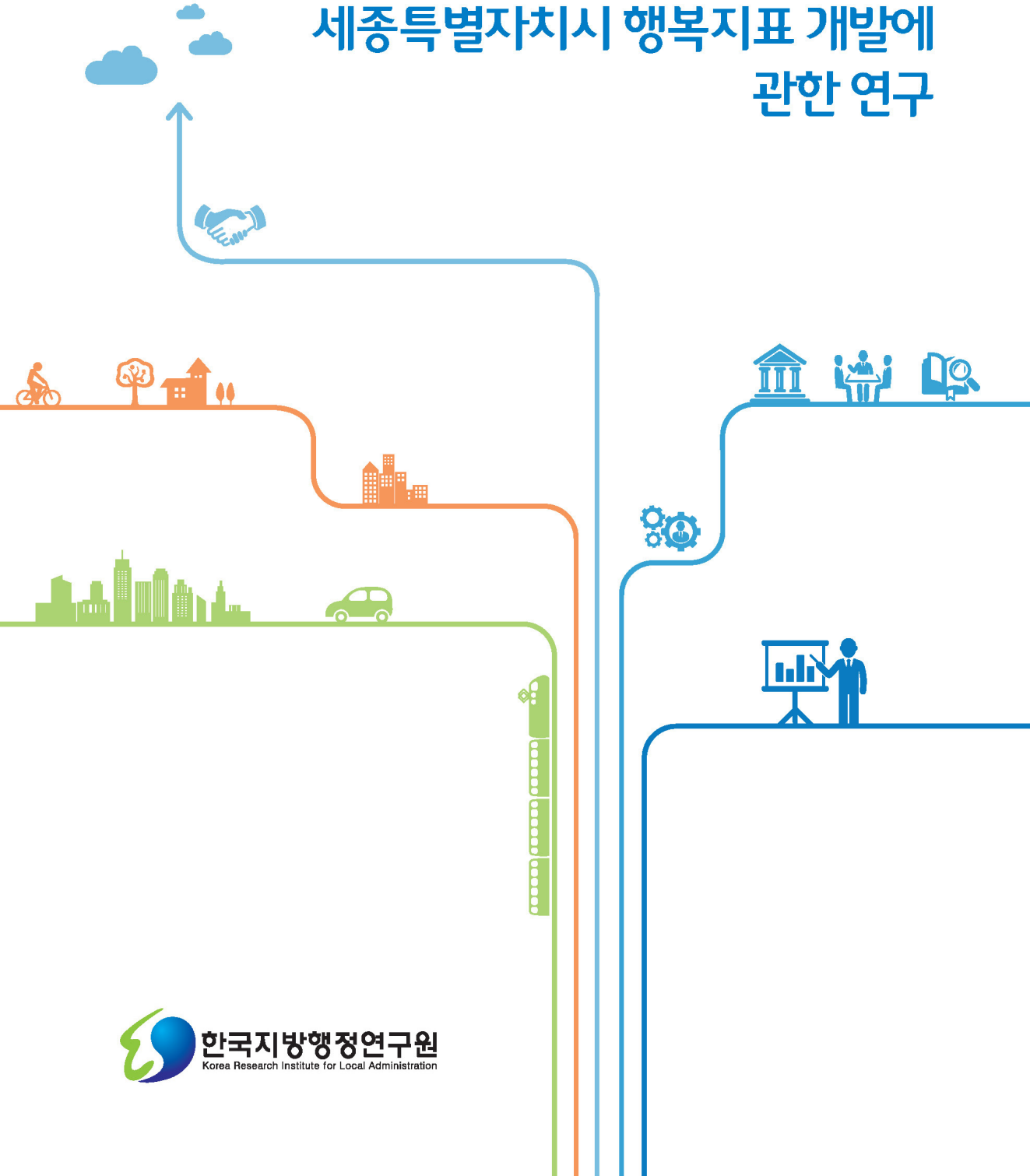


# 세종특별자치시 행복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 연 구 진

박승규(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김선기(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창덕(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객원연구원)

---

## 연구 요약

### 1. 연구배경 및 목적

- ‘13년~‘15년 지표개발과 실질적인 조사에 대한 연구가 시행되어 이를 토대로 한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역발전방안을 추출
  - 2015년 지역별로 지역행복도의 수준이 측정됨으로써 지역주민 체감형 생활 서비스 확립을 위한 근거들이 마련
    - 2013년 도시경쟁력 및 행복지수, 2014년 행복지수에 대한 기초 연구가 실시됨으로써 지역간 비교를 통한 상생 발전의 토대 구축
  - 특광역시를 대상으로 주민 행복을 위한 생활서비스의 제공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를 도출함으로써 지역의 행복정도를 객관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틀 마련 필요
  
- 기존 개발된 지역 행복도 지수를 참고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실정에 맞는 지수의 보완 및 이를 활용해 세종특별자치시 특성에 맞는 분야별 행복도 정도를 제시
  - 세종특별자치시의 변화되는 현실과 부합된 주민 체감형 행복 측정의 원년 도래
    - 지속적인 도시의 발전을 유도할 수 경쟁력 원천의 확보 및 비교열위에 있는 부문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방안 설정 필요
  - 지역행복도지수의 지속적인 측정으로 지역간 발전 및 지역내 발전의 격차 해소를 위한 유인 제공 필요

- 세종특별자치시 시정 발전과 복지 정책에 활용될 수 있는 「세종의 행복도 정도」의 도출
  - 행복도 관련 국내·외 연구 조사 실시
    - 국내·외 사례조사를 통한 행복도에 대한 지표 설정 및 요인 추출
  - 지표구성, 통계자료인 물리적·경제적·문화사회적 지표에 따라 도시간 경쟁력 요인 분석

## 2.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제언

- 세종특별자치시의 도시경쟁력은 고용노동임금, 환경, 교통정보통신, 도소매서비스, 재정, 교육문화과학에서 타 특광역시의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광역시 중 평균보다 각 부문이 우수한 부문의 수는 최대 8개(울산), 최소 2개(대구)인 것으로 나타남
  -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는 평균보다 우수한 경쟁력을 가진 부문은 5개(인구, 물가가게, 광공업에너지, 건설주택토지)로 나타남
  
- 동일 개수의 타 부문보다 우수한 경쟁력을 가진 특광역시는 서울시, 광주광역시인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세종특별자치시는 기본적으로 지역통계에 대한 구축이 매우 미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특광역시간 분석을 위해서는 근원적인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서울시 및 광주광역시와는 동일한 수 만큼의 분야에서 행복정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반적으로는 행복정도가 양극화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즉, 유사한 행복정도 수를 가진 타 특광역시와 비교할 경우, 세종특별자

- 치시는 평균에 못미치는 행복정도를 가진 분야에서의 미흡한 정도가 절대적으로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우수한 부문에서의 행복정도 역시 절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세종특별자치시의 행복지수는 우수한 부문과 부진한 부문간 상쇄효과가 존재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세종특별시의 행복정도가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남
- 특히, 환경, 교통정보통신, 도소매서비스에서의 행복정도의 절대적인 크기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행복정도가 평균보다 높은 부문에서는 인구(0.6), 물가가계(0.04), 보건사회복지(0.61), 공공업에너지(0.77), 건설주택토지(1.51)로 물가가계를 제외하고 행복정도가 우수한 절대적인 크기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분석됨
  - 따라서, 우수한 행복정도를 갖춘 부문에 있어서는 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행복을 진작시킬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함
  - 또한, 행복정도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부문에서는 최소 평균에 접근할 정도의 관리 및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세종특별자치시의 부문간 순위를 검토한 결과, 세종특별자치시는 전체 11개 부문에서 인구(1위), 광공업에너지(1위), 건설주택토지(1위) 부문이 타 특광역시보다 행복정도가 확보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환경부문과 교통정보통신은 전체 8개 특광역시 중 8위, 도소매서비스는 7위를 나타냄으로써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질 기반을 조성 측면에서 매우 낮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즉, 세종특별자치시는 높은 삶의질을 요구하는 이구, 보건복지사회, 건설주택토지가 조성이 되어 있으나, 전반적으로 이에 대한 백업 부문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 이외에 교육문화과학와 도소매서비스 부문에서의 행복정도가 낮게 나타남

로써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도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남

- 실제 개발한 지역행복도 지표를 각 특광역시에 적용하여 측정함으로써 지역의 행복의 정도를 실질적으로 파악
  - 전체 특광역시를 대상으로 하여, 최종 확정된 지표체계 및 설계에 따라 측정을 실시하였으며, 객관적 지표는 실질적 서비스 공급정도에 관한 통계수치로 측정, 주관적 지표는 사회조사에서 활용된 자료를 추출하여 삶의 질 만족도에 대한 무분별 포괄적 질문을 통해 측정을 실시하였음
  - 또한, 측정에 있어 각 부문별 가중치를 산정하기 위하여 부문별 동등 가중치를 고려하여 지역행복도를 산출하였음
- 지역행복도 분석을 전체 특광역시를 대상으로 지역 행복도를 조사한 최초의 시도였다는 측면과 측정 결과를 지역 행복 관련 정책의 계획, 추진에 반영 가능하다는 데에 큰 의의
  - 이 연구는 최초로 특광역시를 대상으로 한 지역행복도 조사라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으며, 지표체계를 지역통계 전범위를 고려하여 분석하여 각 부문별, 지역별 비교분석이 가능하다는데 큰 특징을 가지고 있음
  - 지역행복도 측정 결과를 공개하여 지역민들의 알권리를 증진하고, 지역생활권 관련 계획수립, 사업선정, 성과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로 제공함
  - 이 조사는 기초 연구로서 일회성에 그칠 가능성이 있으나,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이 조사 결과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할 필요가 있음
  - 향후 매년 지속적인 조사 및 조사 결과의 공개를 통한 정례화로 객관성 및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지속적으로 지표체계와 방법을 보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차 례

<b>제1장 서론</b> .....	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3
1. 연구배경 .....	3
2. 연구목적 .....	4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	5
1. 연구범위 .....	5
2. 연구방법 .....	5
<b>제2장 이론적 검토</b> .....	9
제1절 행복지수의 개념 및 의의 .....	11
1. 행복의 개념 .....	11
2. 행복지수에 대한 이론적 논의 .....	14
제2절 행복지수 분석의 주요 방법론 .....	27
1. 행복지수의 주요 방법론 .....	27
2. 세종특별자치시 행복지수의 지표체계 구성 .....	30
<b>제3장 행복지수 사례연구</b> .....	35
제1절 국제 및 국외 행복지수 사례 .....	37
1. 국제 기구 행복지수 사례 .....	37
2. 국외 행복지수 사례 .....	41
제2절 국내 행복지수 사례 .....	56
제3절 시사점 .....	63



<b>제4장 세종특별자치시 행복지수개발</b> .....	<b>69</b>
제1절 접근방법 .....	71
제2절 세종특별자치시 지표 분석 .....	73
1. 인구부문 .....	73
2. 고용노동임금부문 .....	77
3. 물가 및 가계 부문 .....	80
4. 보건사회복지 부문 .....	82
5. 환경 부문 .....	88
6. 광공업에너지 부문 .....	89
7. 건설주택토지 부문 .....	91
8. 교통정보통신 부문 .....	92
9. 도소매서비스 부문 .....	92
10. 재정 부문 .....	93
11. 교육문화과학 부문 .....	94
제3절 행복지수 가중치 선정의 준거 방안 .....	97
1. 설문을 활용한 가중치 조사 .....	97
2. 가중치 적용 방법 .....	98
<b>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b> .....	<b>105</b>
제1절 세종특별자치시 부문별 지역간 도시경쟁력 비교 .....	107
1. 특광역시 도시경쟁력 비교 .....	107
2. 특광역시 행복지수 순위 .....	109







3. 세종특별자치시 행복지수 종합 .....	111
제2절 활용 및 정책제언 .....	112
제3절 행복도 측정 및 활용의 한계 .....	117
<b>참고문헌 .....</b>	<b>121</b>

# 표 차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표 2-1> 주관적/객관적 사회지표(예시) .....	23
<표 2-2> Veenhoven의 4가지 삶의 질 유형 .....	24
<표 2-3> Zapf의 삶의 질 정의 .....	24
<표 2-4> 종합지수 산출에 의한 측정사례 .....	28
<표 2-5> UN 지표프로그램에서 제시하는 지표개발 시 고려요건 .....	31
<표 3-1> 세부항목 및 측정방법 .....	37
<표 3-2> OECD의 Better Life Initiative .....	38
<표 3-3> UNDP 지표 체계 .....	39
<표 3-4> 분야 및 평가지표 .....	40
<표 3-5> WHO의 삶의 질 척도(WHOQOL) .....	41
<표 3-6> 부탄 국민총행복지수의 세부지표 구성 .....	42
<표 3-7> 세부항목 및 지표 .....	43
<표 3-8> 세부지표 및 측정방법 .....	46
<표 3-9> 국민행복지수 측정 지표 구성안 .....	52
<표 3-10> CIW 지수의 구성 .....	54
<표 3-11> 삶의 질 지수 .....	55
<표 3-12> LSI의 영역과 지표항목 .....	56
<표 3-13> 삶의 질 측정 지표 구성안 .....	57
<표 3-14> National Index of Wellbeing .....	59
<표 3-15> 서울시민 행복도 지표 조사항목 .....	60
<표 3-16> 기존 사례의 종합 .....	65
<표 4-1> 세종특별자치시 행복지수 지표 구성 .....	71
<표 4-2> 요인간 중요도 평가 예시 .....	102
<표 5-1> 특광역시 행복지수 종합 .....	108
<표 5-2> 특광역시 행복지수 부문간 순위 .....	110
<표 5-3> 세종특별자치시 행복지수 종합 .....	112



## 그림 차례

<그림 1-1> 연구의 주요 흐름 .....	6
<그림 1-2> 과제의 체계 .....	7
<그림 2-1> 세종특별자치시 행복지표 산출과정 .....	33
<그림 3-1> 충청남도 사회지표의 행복지수 .....	61
<그림 3-2> 전라북도 사회지표의 행복지수 .....	62
<그림 3-3> 광명시 행복지수 산출 .....	62
<그림 4-1> 기대수명 특광역시 비교 .....	73
<그림 4-2> 생산가능인구 특광역시 비교 .....	74
<그림 4-3> 노령화지수 특광역시 비교 .....	74
<그림 4-4> 인구유입 특광역시 비교 .....	74
<그림 4-5> 인구유출 특광역시 비교 .....	75
<그림 4-6> 순이동 특광역시 비교 .....	75
<그림 4-7> 출생률 특광역시 비교 .....	75
<그림 4-8> 주민등록인구(남) 특광역시 비교 .....	76
<그림 4-9> 주민등록인구(여) 특광역시 비교 .....	76
<그림 4-10> 주민등록인구(총계) 특광역시 비교 .....	76
<그림 4-11> 경제활동인구 특광역시 비교 .....	77
<그림 4-12> 교육정도별 경제활동인구(고졸이하) 특광역시 비교 .....	77
<그림 4-13> 교육정도별 경제활동인구(대졸이상) 특광역시 비교 .....	77
<그림 4-14> 취업자(남) 특광역시 비교 .....	78
<그림 4-15> 취업자(여) 특광역시 비교 .....	78
<그림 4-16> 취업자(총계) 특광역시 비교 .....	78
<그림 4-17> 교육정도별 취업자(고졸이하) 특광역시 비교 .....	79

<그림 4-18> 교육정도별 취업자(대졸이상) 특광역시 비교 .....	79
<그림 4-19> 산업별 취업자 특광역시 비교 .....	79
<그림 4-20> 사업체수 특광역시 비교 .....	80
<그림 4-21> 종사자수 특광역시 비교 .....	80
<그림 4-22> 가계자산 특광역시 비교 .....	80
<그림 4-23> 가계부채 특광역시 비교 .....	81
<그림 4-24> 민간아파트 분양가격(3.3m <sup>2</sup> 평균분양가격) 특광역시 비교 .....	81
<그림 4-25> 생활물가지수 특광역시 비교 .....	81
<그림 4-26> 소비자물가지수(지출목적별) 특광역시 비교 .....	82
<그림 4-27> 자가변동률 특광역시 비교 .....	82
<그림 4-28> 수술종류별 수술현황(계) 특광역시 비교	82
<그림 4-29> 교통사고발생현황 특광역시 비교 .....	83
<그림 4-30> 국민기초생활수급자총괄 특광역시 비교 ·	83
<그림 4-31> 주관적 소득수준(사회조사 항목내) 특광역시 비교 .....	83
<그림 4-32> 소득만족도(사회조사 내) 특광역시 비교	84
<그림 4-33> 고용 만족도(사회조사내, 노동파트) 특광역시 비교 .....	84
<그림 4-34> 근로여건 만족도(전반적인 만족도, 사회조사내) 특광역시 비교 .....	84
<그림 4-35> 학교생활 만족도(13세 이상 재학생, 사회조사내) 특광역시 비교 .....	85
<그림 4-36> 의료서비스 이용률(사회조사 내) 특광역시 비교 .....	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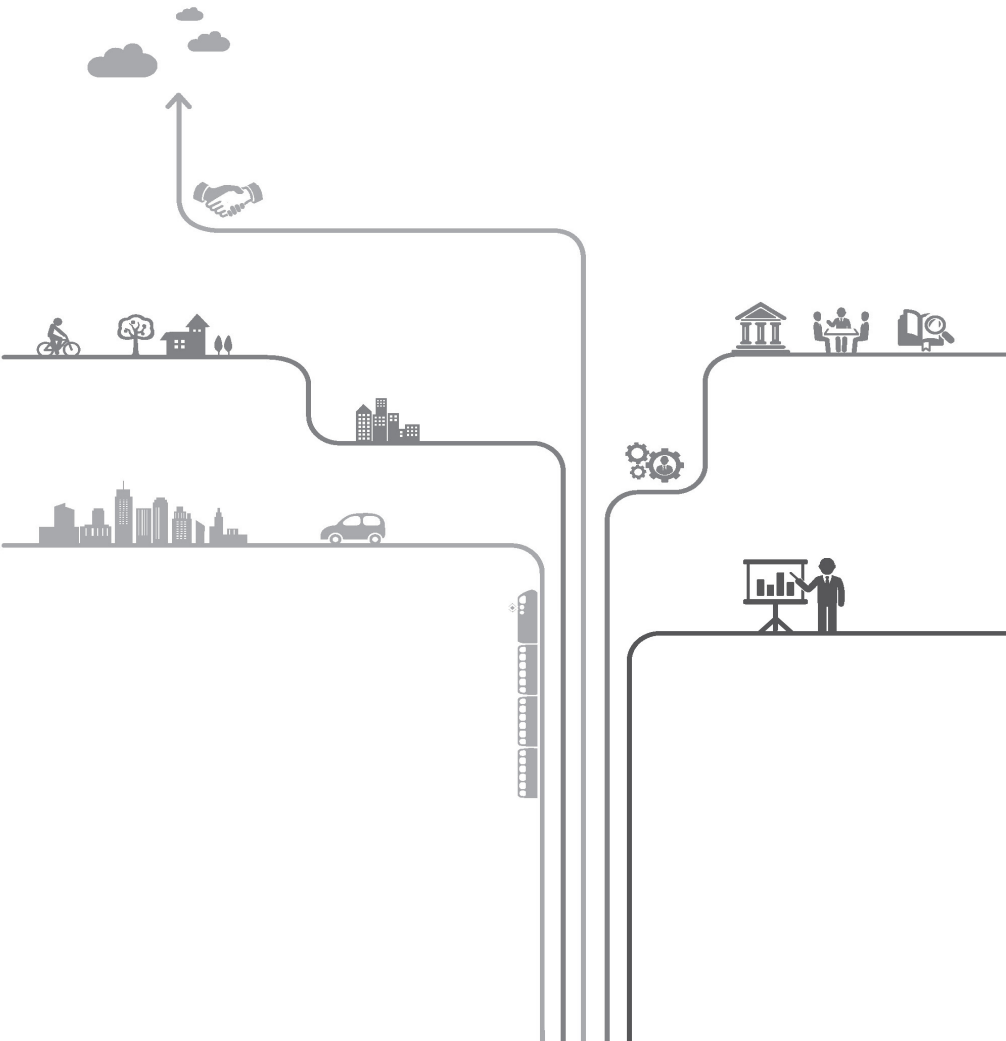
<그림 4-37> 의료서비스 만족도(종합병원) 특광역시 비교 .....	85
<그림 4-38> 현재 체감환경(대기, 사회조사내) 특광역시 비교 .....	86
<그림 4-39> 현재 체감환경(수질, 사회조사내) 특광역시 비교 .....	86
<그림 4-40> 생활여건의 변화(전반적인 생활여건, 사회조사내) 특광역시 비교 .....	86
<그림 4-41>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전반, 사회조사내) 특광역시 비교 .....	87
<그림 4-42> 어린이집 현황 특광역시 비교 .....	87
<그림 4-43> 직장어린이집 현황 특광역시 비교 .....	87
<그림 4-44> 미세먼지 대기오염도 특광역시 비교 .....	88
<그림 4-45> 아황산가스 특광역시 비교 .....	88
<그림 4-46> 이산화질소 특광역시 비교 .....	88
<그림 4-47> 상수도 보급 특광역시 비교 .....	89
<그림 4-48> 하수도 보급 특광역시 비교 .....	89
<그림 4-49> 생산액 특광역시 비교 .....	89
<그림 4-50> 부가가치 특광역시 비교 .....	90
<그림 4-51> 유형자산 특광역시 비교 .....	90
<그림 4-52> 사업체수 특광역시 비교 .....	90
<그림 4-53> 종사자수 특광역시 비교 .....	91
<그림 4-54> 주택보급률 특광역시 비교 .....	91
<그림 4-55> 임대주택건설실적 특광역시 비교 .....	91
<그림 4-56> 도로보급률 특광역시 비교 .....	92
<그림 4-57> 시도별포장률 특광역시 비교 .....	92
<그림 4-58> 산업별 총괄 특광역시 비교 .....	92

<그림 4-59> 서비스업조사(산업별 분류) 특광역시 비교 .....	93
<그림 4-60> 재정자립도 특광역시 비교 .....	93
<그림 4-61> GRDP(지역내총생산) 특광역시 비교 .....	93
<그림 4-62> 지역별예금(말잔) 특광역시 비교 .....	94
<그림 4-63> 중학교 특광역시 비교 .....	94
<그림 4-64> 고등학교 특광역시 비교 .....	94
<그림 4-65> 연구개발조직의 연구개발주체별 지역별 분포 특광역시 비교 .....	95
<그림 4-66> 공공도서관 좌석수 특광역시 비교 .....	95
<그림 4-67> 박물관수 특광역시 비교 .....	95
<그림 4-68> 미술관수 특광역시 비교 .....	96
<그림 4-69> 체육시설수 특광역시 비교 .....	96
<그림 4-70> 공연장수 특광역시 비교 .....	96
<그림 4-71> 분석적 위계절차(AHP)의 과정 .....	101
<그림 5-1> 세종특별자치시 행복지수 우수 및 부진 부문 .....	111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 제1장

## 서론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1. 연구배경

- 2015년 지역별로 지역행복도의 수준이 측정됨으로써 지역주민 체감형 생활 서비스 확립을 위한 근거들이 마련
  - 2013년 도시경쟁력 및 행복지수, 2014년 행복지수에 대한 기초 연구가 실시됨으로써 지역간 비교를 통한 상생 발전의 토대 구축
  - 특광역시를 대상으로 주민 행복을 위한 생활서비스의 제공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를 도출함으로써 지역의 행복정도를 객관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틀 마련 필요

- '13년~'15년 지표개발과 실질적인 조사에 대한 연구가 시행되어 이를 토대로 한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역발전방안을 추출

- 세종특별자치시의 변화되는 현실과 부합된 주민 체감형 행복 측정의 원년 도래
  - 지속적인 도시의 발전을 유도할 수 경쟁력 원천의 확보 및 비교열위에 있는 부문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방안 설정 필요
  - 지역행복도지수의 지속적인 측정으로 지역간 발전 및 지역내 발전의 격차 해소를 위한 유인 제공 필요

- 기존 개발된 지역 행복도 지수를 참고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실정에 맞는 지수의 보완 및 이를 활용해 세종특별자치시 특성에 맞는 분야별 행복도 정도를 제시

- 생활서비스 공급과 연계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기능 제공
  - 지역내 생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역현실에 맞는 정책 수립을 지원
  - 타 자치단체와 실적을 비교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행복도의 실현가능성 검토

• 기존 지표의 한계로 제시되고 있는 지표간 중첩 문제 및 특성화를 위한 지표의 설정으로 세종특별자치시에 적합한 지역발전 방안의 초석 마련

- 다수의 행복도 측정에 대한 기존 연구의 검토로 세종특별자치시 표준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한 기반 마련
  - 복지, 경제, 환경, 안전, 재정, 건설, 균형발전, 행정서비스 등 에 특정 분야에서 여러 기관의 행복도 측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 방지 및 체계적인 기초자료를 제공

• 광역시 차원에서의 행복도의 파악으로 종합적 자료 및 정책 수립을 위한 일관적인 활용근거 제공

## 2. 연구목적

- 세종특별자치시 시정 발전과 복지 정책에 활용될 수 있는 「세종의 행복도 정도」의 도출
- 행복도 관련 국내·외 연구 조사 실시
  - 국내·외 사례조사를 통한 행복도에 대한 지표 설정 및 요인 추출
- 지표구성, 통계자료인 물리적·경제적·문화사회적 지표에 따라 도시간 경쟁력 요인 분석
  - 행복도 분야별 결정요인의 추출
  - 분야별 결정요인을 근거로 한 세종특별자치시의 현재 현황 분석 및 향

### 후 방향 설정

- 행복만족도(도시경쟁력)를 위한 발전방안 모색
  - 행복도 증진 방안, 지역 및 국가 정책 연계 방안 제시

##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 1. 연구범위

- 공간적 범위
  -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한 8대 특광역시

- 지역간 비교 : 특광역시를 대상으로한 지역간 비교를 우선적으로 실시
- 반면, 주변 지역과의 인과관계를 도출함으로써 주변 지역과의 비교를 실시

- 시간적 범위
  - 2014년 말 기준

- 가용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승인통계 최신 기준시점을 적용
- 객관적인 정량자료 외에 주관적인 정성 자료는 2014년 12월을 기준
- ※ 반면, 정성 자료에 대한 측면은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조사 등을 참고하여 구축이 가능하며 이에 대해서는 예산 제약하의 세종특별자치시 역할 분담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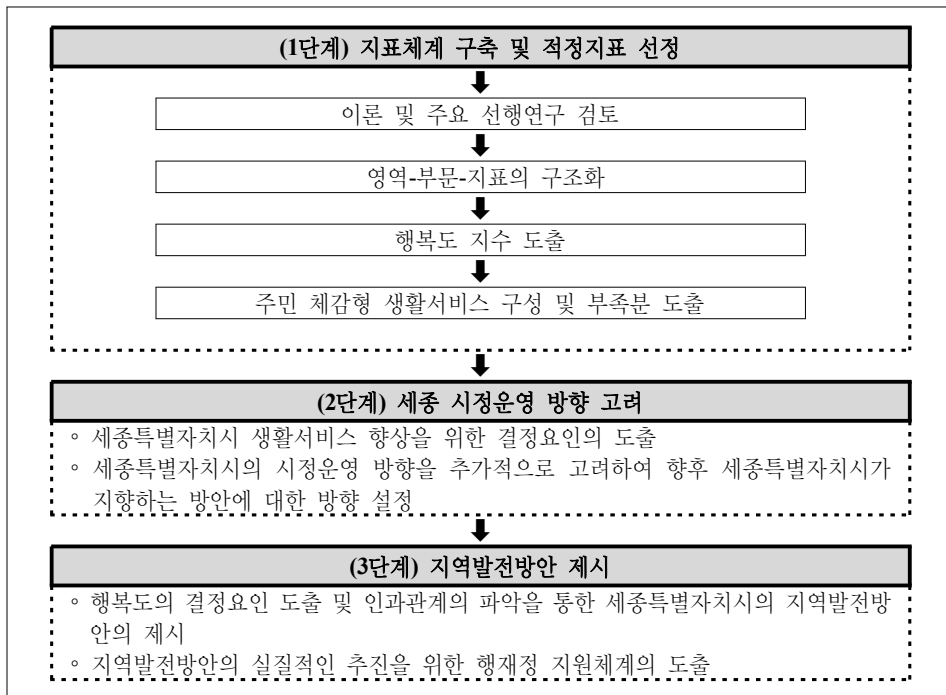
### 2. 연구방법

- 문헌조사를 통한 국내외 사례 조사
  - 국내외 사례를 통한 행복도 주요 이론과 주요 고려 지표에 대한 조사

- 행복도 지수 체계 구성 및 설계
  - 시정 이슈와 지표와의 연계
  - 세종특별자치시 주요 생활서비스 영역에 대한 세부지표 선정
- 생활서비스 영역에 대한 지표 및 지수화
  - 주민 삶의 질, 지역사회 질, 지속가능성, 도시경쟁력 향상 고려
  - 정책적 활용성, 시민참여유도 등 시정운영 방향 적용
- 요인분석을 통한 공통요인의 추출 및 현재 기준 상황 점검
  - 행복도 증대를 위한 결정요인의 추출
  - 결정요인을 근거로 현재 세종의 상황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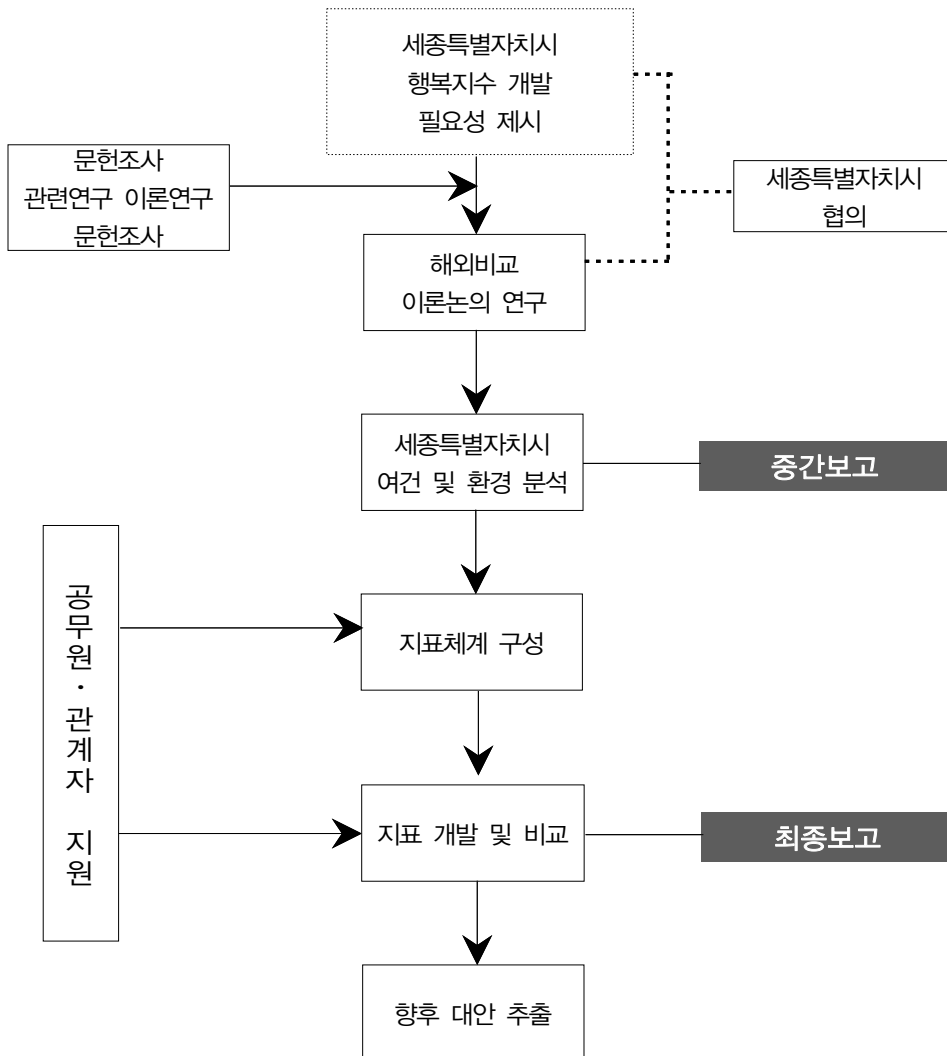
□ 연구체계

<그림 1-1> 연구의 주요 흐름



&lt;그림 1-2&gt; 과제의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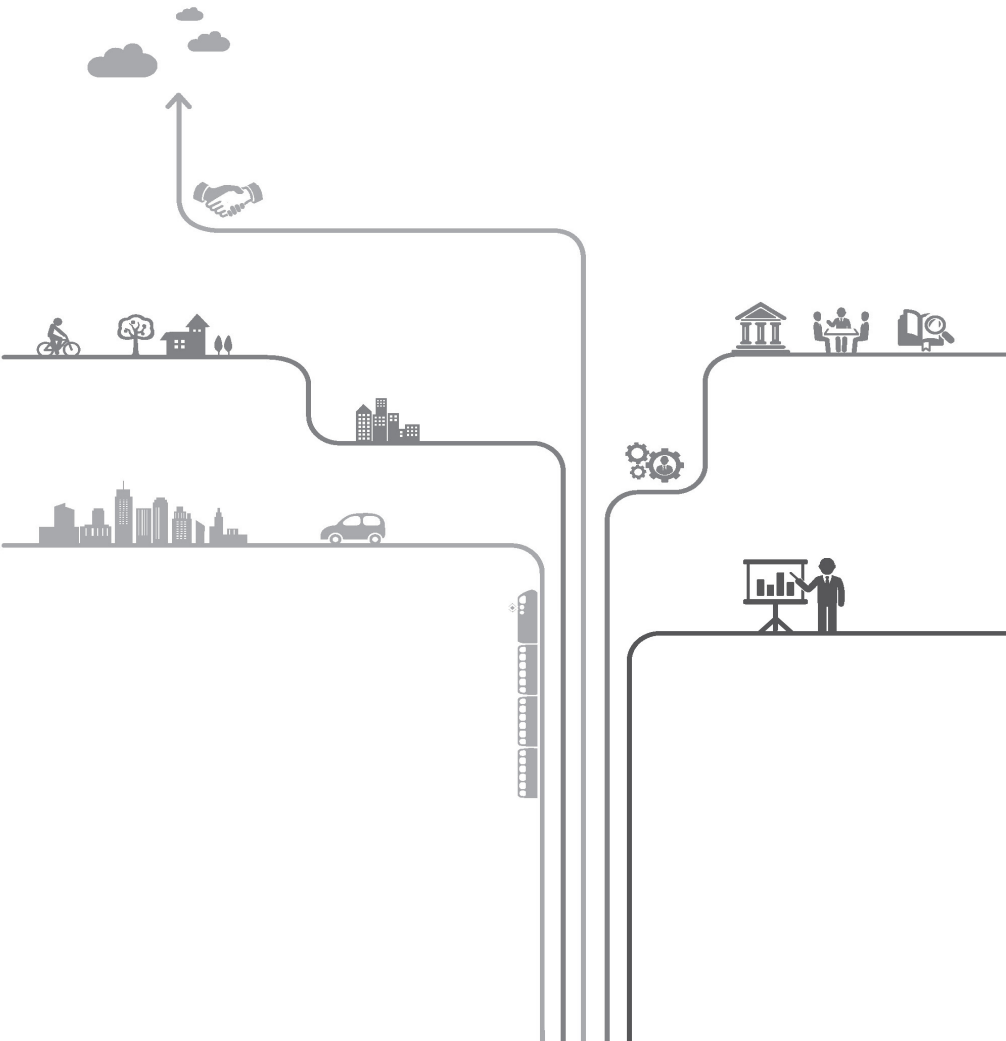
## 과제 체계





# 제2장 이론적 검토

제1절 행복지수의 개념 및 의의  
제2절 행복지수 분석의 주요 방법론







## 제2장

## 이론적 검토

## 제1절 행복지수의 개념 및 의의

## 1. 행복의 개념

## 1) 행복의 개념

## (1) 행복의 개념

- 행복의 사전적 의미는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흐뭇한 상태”, 또는 “심신육구가 충족되어 만족감을 느끼는 정신상태” 등으로 정의 (국립국어연구원)
- 행복이란 다분히 주관적일 뿐 아니라 다의적인 개념으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며, 행복을 보는 시각에도 차이가 존재하여 개념정의를 명확하지 않음
  - 행복은 개인의 전체 삶에 대한 주관적인 감정과 평가로 정의되기도 하며(Diener, 2007 ; Dolan, 2007), 삶의 질, 주관적 삶의 만족, well-being 등과 비슷한 의미로도 사용(Veenhoven, 2007 ; Donnelly, 2004)
  - 행복의 객관적 환경 요인을 강조하는 경우에는 wellbeing, 삶의 질(quality of lif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며, 행복의 주관적 측면을 강조하는 경우 주관적 웰빙(subjective well-being), 삶의 만족(life satisfac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
  - 실제 ‘삶의 질(quality of life)’, ‘생활수준(level of living)’, ‘복지(welfare)’, ‘복지(wellbeing)’, ‘행복도(happiness)’ 등 다양한 용어의 조합은 매우 추상적인 의미여서 일치된 개념도 없고 영역과 지표선택과정에 대해 합의된 바도 없으며 객관적인 기준도 없는 상황(Galloway, 2005: 10)
  - Schalock(2000: 117)에 따르면 삶의 질과 관련하여 100가지 이상의 개념 정의와 해석이 폭넓게 존재한다고 지적

- 삶의 질 또는 행복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릴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뜨거운 것은 이 개념이 광범위하고 여러 영역을 포함하고 있고 일상생활과 관련되어 있으며 물질적 그리고 비물질적 요소 모두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 BBC 행복위원회 의원인 Richard Reeves에 따르면 “행복한 삶은 지극한 만족감으로 충만한 상태가 아니다. 행복한 삶은 비극, 도전, 불행, 실패, 그리고 후회까지도 모두 껴안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불행해질 수도, 행복해질 수도 있다”고 행복을 설명(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6 재인용)
  - 이처럼 행복은 명확하게 정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가치관이나 인생관, 개인의 기대수준,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성질의 것임(황규선, 2012: 7)
- 대체로 삶의 물질적 조건과 더불어 그것으로부터 얻어지는 개인들의 삶에 대한 만족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파악
  - 학자들은 행복은 크게 객관적 삶의 조건과 주관적 만족감의 두 가지 방향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제시(Diener, 1984; Diener & Emmons, 1985)
  - 객관적 조건이란 삶의 다양한 물리적 구성요소, 즉 의식주, 건강, 성별, 연령, 소득, 교육, 보건, 여가와 같은 객관적 지표를 통해 파악되는 삶의 물질적 조건
  - 주관적 만족감이란 흔히 *welbeing*이라고 불리는 주관적인 차원으로 삶에 대한 행복감, 만족감, 자립감, 성취감, 문화적 풍요로움, 안전, 스트레스의 부재 등 주관적 평가 및 인지상태를 의미
- 행복이란 객관적 삶의 조건을 통하여 개인이 삶에 대해 느끼는 주관적, 지속적 만족감으로서 그 안에는 삶의 궁극적, 절대적 가치가 내포
  - 행복이란 모든 인간 행위의 최고 선이자 목적(*telos*)으로서 좋은 삶 혹은 성공적인 삶을 표현하는 개념(아리스토텔레스, 행복론)
  - 즉, 삶의 최고 목적인 행복이란 인간의 자연적 본성에 부합하는 목적을

의미하는데 자연적 본성이라 함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저마다의 탁월한 덕성을 의미

## (2) 소득과 삶의 질

- 그간 경제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삶의 질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가장 널리 활용되어 온 것은 GDP를 비롯한 경제적 지표들이었음
  - GDP와 경제적 요인들은 객관적인 기준 하에서 계량화가 용이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물질 기반이 된다는 측면에서 여전히 중요성을 보유
- 그러나 최근 들어 삶의 질 수준은 단순히 소득수준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지표로만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 복합적인 것이라는 주장이 대두
  - GDP는 경제지표로서는 유용할 수 있지만, 인간의 행복을 측정하는 도구로는 많은 한계를 내포
  - 예컨대 범죄가 늘어 정부지출이 늘어나거나 질병이 늘어 의료기관의 수입이 증가해도 GDP는 증가
- GDP로 대표되는 경제적 지표만으로 행복 또는 삶의 질 수준을 측정하기에 한계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Easterlin의 행복역설임
  - Easterlin(1974, 1995)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개인이 느끼는 행복수준은 빈곤선(poverty line)에 근접할수록 소득과 강한 관련성을 보이며, 한 국가 내에서는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더 행복하다고 느끼지만 소득이 상승하여 어느 정도의 기본욕구가 충족된 국가들에서는 개인의 행복 체감도가 반드시 소득에 비례하지 않음을 확인
  - Inglehart(1990)의 경우에도 지난 20여 년 동안 세계 각국의 ‘행복지수’를 통해 각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과 삶의 만족감의 관계를 볼 때, 15,000 달러를 넘으면 ‘효용체감’을 보이며 사실상 행복은 소득과 거의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히고 있음
- 이처럼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소득 증가가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인식이 강

해지면서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함께 정신적인 삶의 질이나 행복에 대한 관심이 증대

- 일반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의 소득이 높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기존의 조사결과들을 보면 모든 국가가 이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님
- 가난한 국가의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는 수준과 부유한 국가의 사람들의 행복감은 평면적으로 비교할 수 없으며 다른 사회의 욕구 조건의 차이를 고려해서 삶의 만족을 평가할 필요(Veenhoven, 1989)

- 즉 소득 증가로 대표되는 물질적인 지표들이 행복의 절대적인 요소가 아니며, 행복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지표들이 함께 고려되어야 함

## 2. 행복지수에 대한 이론적 논의

### 1) 행복지수의 개념과 의의

#### (1) 행복지수의 개념과 배경

- 행복지수는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스스로 측정하여 하나의 수치로 표현한 것을 의미하며 1980년대 이후 다양한 형태의 행복지수가 개발
  - 기존의 GDP가 삶의 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행복지수’는 고용, 보건, 교육, 환경 등을 포괄하는 새로운 사회경제 지표를 일컫음(기획재정부, 2012)
- 미국 미시간대 사회연구소는 1981년부터 세계 각국의 ‘행복지수’를 발표
  - 이를 위한 기초자료는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s Survey)’에 의하여 확보
  - 세계 각국 국민 1,000~2,000명에게 설문을 돌려 각자가 느끼는 ‘행복도’와 ‘생활 만족도’ 점수를 매긴 다음 평균을 내서 행복지수를 산출하

는데 ‘행복지수’는 편의상 번역이고 원래 명칭은 ‘주관적 웰빙순위 (Subjective Well-being Rankings)’임

- 영국의 심리학자 로스웰(Rothwell)과 인생상담사 코언(Cohen)이 2002년 발표한 행복공식이 대표적인 행복지수
  - 행복이 인생관·적응력·유연성 등 개인적 특성을 나타내는 P(personal), 건강·돈·인간관계 등 생존조건을 가리키는 E(existence), 야망·자존심·기대·유머 등 고차원 상태를 의미하는 H(higher order) 등 3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
  - 세 가지 요소의 상대적 중요도를 적용하여 행복도를  $P+(5E)+(3H)$ 의 행복방정식으로 정의
- 201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 지속가능개발회의(CSD, 리우+20)를 통해 '행복지수\*'에 관한 논의의 진전이 예상
  -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리우+20'이 국내총생산(GDP)을 대체할 새로운 경제지표의 탄생을 자리매김하는 회의가 되어야 함을 강조
  - GDP와 같은 순수 경제적 수치에서 벗어나 복지,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에 더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에 프랑스, 캐나다, 영국 등이 관심 표명
- 국내적으로 국민소득이 2만달러 이상으로 증대하였으나, 소득분배, 여가생활, 환경, 복지 등의 만족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은 부재
  - 경제성장은 물론 사회의 발전정도, 국민의 행복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유용한 기준이 필요하다는데 국내외적 여론이 지속적으로 증대

## (2) 행복지수의 의의와 전망

- 세계적으로 행복지수의 중요성이 확산되면서 의미있는 행복지수들이 속속 개발
  - 부탄의 국민 행복 지수(GNH) : 지그메 싱기에 왕추크 국왕은 취임 2년 만인 '74년 GDP가 아닌 국민들의 행복지수(Gross National Happiness)

를 기준으로 나라를 통치하겠다고 발표하고, 제66차 UN총회('12.4.2)에서 지그메 틴리 부탄총리는 국가발전 정도를 GDP나 GNI가 아닌 GNH에 의해 측정할 것을 주장

- UN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 : 인간다운 생활수준을 기증하기 위해 개발된 복합적 지수로 1990년부터 각국의 평균 수명과 교육수준, 1인당 국민 소득 등 모두 206개 지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사회적 웰빙을 정량화하려는 유엔의 대표적 업적으로 자리매김
  - OECD 더 나은 삶 이니셔티브 (Better life Initiative: BLI) : OECD가 2011년 창설 50주년을 맞아 시작한 행복지수로서 34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총 11개 영역에 대한 점수로 산출하고 있으며 GDP만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 인간의 가치에 주목
  - UN은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 : 2012년 4월 '05년~'11년까지 156개국 15세~60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행복도를 객관적으로 측정가능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
- 국내총생산과 소득은 충분한 후생지표는 아니나 여전히 중요하며 질과 양의 측면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성장개념이 세계적으로 더욱 중요해 질 전망
- 생산에만 집중된 GDP를 보완해 삶의 질과 생태환경을 총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행복지수와 같은 지표의 필요성은 많은 국가로 확대될 전망
  - 각국은 GDP가 고려하지 않는 외부비경제효과 창출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국민총행복지수를 증대하고 UN은 새천년개발목표에 이어 지속가능한 개발목표를 구체화할 전망
  - 각국에서는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이 더욱 중요해 지고 있으므로 행복지수 개발이 지속가능한 성장과 복지를 위해 중요
  - 단, GDP와 같이 주기적으로 관련 자료를 집계하기 위해서는 자료확보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행복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사회적으로 합의가 선행되는 것이 전제

## 2) 행복지수 결정요인의 변화 동향

### (1) 경제적 요인에서 삶의 질 요인으로 변화

- 세계행복보고서에서는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가운데 소득이 약 8%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
  - HDI(인간개발지수)를 산출할 때, GDP가 포함되기는 하지만 경제성장이 핵심요소가 아니므로 1인당 소득이 비슷해도 지수의 결과는 크게 차이
- 저개발 국가에서는 낮은 소득, 식량부족, 보건의료에의 낮은 접근성, 안전한 의식주 부족, 교육기회의 부족으로 소득의 증가가 중요하지만 기초생활수준이 어느 정도 충족되면 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저하
  -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 이면에 이혼률(OECD 국가 중 7위), 자살률(OECD 국가 중 1위) 등이 증가하고 계층간의 소득격차도 심화(지니계수 : '03년 0.27 → '12년 0.31)
  - 국민소득이 2만달러 시대에 돌입한 우리나라의 경우 행복에 있어 소득보다 개인의 정신적·육체적 건강과 가치관, 안정된 고용, 개인의 자유와 안전, 높은 수준의 신뢰, 견고한 공동체, 정부와 기업의 건전한 지배구조 등 삶의 질이 점차 중요해지는 경향
  - 우리나라도 점차 이스털린의 역설이 의미를 갖는 소득수준에 도달
- 유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는 물론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내 연구기관에서도 우리나라는 국민소득에 비해 국민 행복지수는 매우 낮게 나오는 편임
  - 2012년 전미경제조사국(NBER)은 세계 상위 25개국 국민의 소득별 행복도를 분석한 결과 "인간의 행복은 소득과 정비례한다"는 요지의 보고서를 내놓았으나 국가끼리 비교할 경우에는 사정이 달랐고 우리나라의 국민행복도는 같은 소득수준의 25개국 중에서 거의 최하수준을 기록
  - 이러한 결과들은 행복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국민소득 이외에 삶의 질을 결정하는 다른 요인이 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반증

- 우리나라 학부모들은 자식의 미래를 위해 노후까지 희생하지만 행복해하는 국민은 많지 않음
- 결국 자기 자식뿐만 아니라 남의 자식도 함께 잘 교육시키고 관용과 타협의 정신을 배울 수 있는 공동 시스템을 만드는 게 모두가 행복해지는 방법

- 국내적으로 국민소득이 2만달러 이상으로 증대하였으나, 소득분배, 여가생활, 환경, 복지 등의 만족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은 부재
  - 경제성장은 물론 사회의 발전정도, 국민의 행복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유용한 기준이 필요하다는데 국내외적 여론이 지속적으로 증대

## (2) 개인주의에서 공동체주의로 삶의 방식 전환

- 세계행복보고서는 개인적인 가치관과 관련해서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이타주의적 삶의 태도를 갖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며, 높은 소득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덜 행복하다는 결과를 제시

- ‘세계행복보고서’를 발표한 제프리 삭스는 서문에서 “아리스토텔레스와 붓다가 금욕주의(asceticism)와 물질적 집착 사이의 중도를 선택하라”고 전하면서 보고서의 여러 부분에 걸쳐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이들의 가르침이 갖는 유의미성을 강조

- 급격한 개인주의화 경향을 보이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개인이나 가족 또는 정부가 해결하지 못하는 여러 사회문제를 공동체를 통해 대처하는 경향이 증가
  - 공동체간의 유대 측면에서, 도움이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의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행복
  - 세계행복보고서에서도 공동체가 발달한 유럽의 강소국(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네델란드 등)들이 대거 상위층에 포진해 있음을 주목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박근혜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정부가 앞장서서 정책을 추진



- 그동안의 압축성장기에서 급속한 도시화와 농촌의 인구유출로 전통적인 공동체가 와해됨으로써 많은 폐해를 초래했다는 반성에서 비롯
  - 공동체의 복원 및 육성을 통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고 풀뿌리 지방자치를 정착
- 공동체활동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구현하는데 필수적인 조건으로 개인주의적 삶에서 얻을 수 없는 ‘나눔’, ‘배움’, ‘돌봄’, ‘봉사’ 등의 이타주의적 가치를 실현시킴으로써 보다 따뜻한 사회를 구현하여 행복도를 증진

### (3) 환경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지향

- 1992년 리우 세계정상회의 이후 지구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대한 경고와 함께 각국의 대처가 활발하게 진행
- 인구, 기후변화, 에너지, 자원효율성, 산림, 식량, 토지이용, 식수 등 인간의 삶의 질에 직결된 다양한 문제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대
  - 국제환경기구(UNEP)는 리우회의 이후 20년간에도 기후변화 등 세계의 환경은 여전히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어 시급히 녹색경제(green economy)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역설
- 세계행복보고서(2012)의 서문에서도 제프리 삭스는 “인류세(人類世, Anthropocene)”의 개념을 인용하면서 20세기 이후에는 인간의 건강과 생존을 위해서는 지구의 물리적 시스템(기후, 물순환, 탄소순환, 생물다양성 등)을 바꾸어야 함을 강조

• 인류세(人類世, Anthropocene) : 네덜란드의 화학자로 1995년 노벨화학상을 받은 크뤼첸(Paul Crutzen)이 2000년에 처음 제안한 용어로 현세인 충적세(沖積世)에 이은 새로운 지질시대로서 인류에 의한 자연환경의 파괴를 특징으로 하는 시대

- 우리나라도 세계적 동향에 동참하여 지난 이명박정부에서 녹색성장을 국정 목표로 선정하는 등 대책을 추진 중

- 거시적인 지구온난화 뿐 아니라 미시적으로도 일상생활과 직결된 주변 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크게 증대되어 삶의 질에 미치는 환경의 가치를 중요하게 인식하기 시작
  - 1990년대 이후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환경분쟁이 빈번하게 발생
  - 각종 국책사업의 시행 이전에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사전검토가 필수적인 절차로 제도가 개선
  - 경제적 효율성 못지않게 자연환경의 에메니티와 물리적 환경의 질을 개인과 사회의 중요한 가치로 인식

#### (4) 총량적 성장보다는 개인적 복지향상을 추구

- 국가의 총량적 성장보다는 개인의 복지와 행복이 중요한 시대로 전환하고 있으며 지역 차원에서도 ‘장소의 번영(place’s prosperity)’ 보다는 ‘사람의 번영(people’s prosperity)’을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기조가 전환
- 고령화와 저성장의 추세가 고착화되고 계층간 소득격차가 확대되면서 국민 통합과 사회안전망 차원의 복지수요가 크게 증가
  - 세계적인 고용 없는 성장, 중위소득자 소득 감소, 양극화 현상이 행복지수 감소의 원인으로 빈곤층 자활지원 시스템 강화가 복지정책의 주안점으로 부합하고 행복지수도 증대
- 행복한 사회의 구현을 위해서는 과잉복지를 지양하고 지속가능한 복지를 구축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축이 선결과제임
  - 지속가능한 생산적 복지시스템의 행복증진 효과는 분명하나 과잉복지가 경제활력을 저하시키고 재정건전성악화와 경제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상황에 주목
  - 행복도 평가에서 상위에 위치한 유럽 강소국들은 예외없이 복지 함정에 탈출하여 복지개혁을 달성한 점을 유념할 필요

- 특히 우리나라의 급속한 가족관계 변화에 주목하여 가족구성원의 새로운 역할과 위기에 대응하는 복지시스템이 필요
  - 한국사회에서 점차 고령화와 저출산, 저성장과 고실업이 사회의 전반적인 추세로 고착화되어가고 있음
  - 새로운 가족관계의 정착에 따라 가족 구성원의 역할구조가 변화하고 노인부양부담, 여성의 취업진출, 청년실업, 자녀양육부담 등이 증가하여 가족 구성원의 위기가 증폭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처가 개인과 가족의 행복도에 큰 영향을 미침

### 3) 행복지수 측정의 주요 쟁점

#### (1) 쟁점 1 : 개인의 삶 vs 사회의 집합적 삶

- 행복도 또는 삶의 질을 다룰 때 그 대상이 되는 삶이 개인적인 것인지 아니면 사회의 집단적인 것인지에 대한 논쟁으로서 학문 분야에 따라 개인에 초점을 두거나 또는 집단에 초점을 두는 관점에 차이가 있음
- 개인의 삶의 질 격차가 지나치게 클 경우 집단간 삶의 질 격차분석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지적(한국사회학회, 2011: 9)
- 개인의 삶의 질이나 행복이 독립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의 교섭(negotiation)의 산물로서 결정되기 때문에 개인을 사회와 분리시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류라는 주장이 있음(Gerson, 1976)
- 이 연구에서는 지역행복도를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지자체란 공간적으로 획정된 사회 내에 거주하는 집단의 집합적 삶의 질을 다룸
  - 최근에는 삶의 질과 구별하여 사회의 질(social quality)이란 개념을 따로 다루기도 하는데 사회의 질 개념은 삶의 질에 비해 좀 더 최근 등장한 개념으로 집합적 수준에서의 삶의 질이 아닌 사회적 결속(cohesion), 통합(inclusion), 역능(empowerment), 그리고 사회경제적 안전(security) 등을 포함하는 개념(한국사회학회, 20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Walker and Maesen, 2003: 1-13)

(2) 쟁점 2 : 주관적 만족 vs 객관적 조건

- 행복 또는 삶의 질 개념을 조작화하는 과정에서 결정요인과 관련하여 가장 빈번하게 다루고 있는 쟁점
- 행복과 삶의 질의 차원은 객관적인 차원(objective dimension)과 주관적인 차원(subjective dimension)으로 구분되는데 객관적인 차원은 특정한 사회의 객관적인 삶의 조건과 환경을 포괄하며, 주관적인 차원은 흔히 개인의 삶이 자신의 명시적 혹은 묵시적인 내면적인 기준(기대수준)을 충족시킨다고 인지하는 정도를 의미(임희섭, 1996 : 3-7)
  - 예를 들어 객관적인 삶의 조건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UNDP의 인간개발지수(HDI)에서 한국은 2006년 177개국 중 26위를 차지하였으며, 주관적 측정으로 이루어진 미국 미시간대학교의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 Survey)에서 한국은 2001년 78개국 중 49위를 차지
  - 객관적 지표 연구들은 좋은 삶(good life)의 조건이 보편적이고 사회마다 다르지 않다는 가정 하에 모든 사회에 보편적인 기초 정보를 사용하는 반면, 주관적 지표 연구들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경험한 삶의 질을 기초로 다차원적 평가를 내리며 기분이나 감정의 주관적인 평가뿐 아니라 삶의 만족에 대한 인식적 판단을 포함한다고 주장
- 많은 연구들은 삶의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포괄하면서 동시에 주관적 느낌과 만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며(Schneider, 1976; Cummins, 2000; 임희섭, 1996), 실제 삶의 질 측정에 관한 많은 경험적 시도들이 주관적 지표와 객관적 지표를 보완적으로 혼용
  - 우리나라의 경우도 ‘한국의 사회지표’ 작성시 객관적 지표와 사회조사를 통해 확보한 주관적 지표를 동시에 활용
- 이 연구에서는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개인의 주관적 삶의 만족도와 삶의 조건을 나타내는 객관적 사회지표를 함께 활용

&lt;표 2-1&gt; 주관적/객관적 사회지표(예시)

자주 사용하는 객관적 사회지표	자주 사용하는 주관적 지표
(개인적 평가와 독립적인 사회통계자료)	(사회적 조건에 대한 개인적 평가)
기대수명	공동체의식
범죄율	물질적 소유감
실업률	안전감
GDP	행복감
빈곤률	총체적 삶의 만족도
진학률	가족관계
주당 근로시간	일자리 만족도
임신사망률	성적 생활
자살률	분배정의에 대한 인식
	계급구별
	취미 및 모임 참여

출처 : Rapley(2003). p.11

### (3) 쟁점 3 : 개인의 욕구충족 vs 개인의 능력과 선택의 기회 제공

- 쟁점 2와 연관된 사안으로서 행복과 삶의 질을 개인의 욕구가 충족된 상태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개인의 능력과 선택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된 상태로 볼 것인지에 관한 문제임
- Veenhoven(2000: 2-8)은 삶의 질을 기회(chances)와 결과(outcomes)로 구분하고, 다시 이를 내면적 질(inner qualities)과 외면적 질(outer qualities)로 구분하여 환경의 질(Livability of environment), 삶의 효용(Utility of life), 사람의 생활능력(Life-ability of the persaon), 삶에 대한 가치평가(Appreciation of life) 등 4가지로 유형화

<표 2-2> Veenhoven의 4가지 삶의 질 유형

구분	외면적 질 (outer qualities)	내면적 질 (inner qualities)
삶의 기회 (Life chances)	환경의 질 (Livability of environment)	개인의 생활능력 (Life-ability of the persaon)
삶의 결과 (Life results)	삶의 효용 (Utility of life)	삶의 가치평가 (Appreciation of life)

자료 : Veenhoven(2000)

○ Zapf(1984)는 객관적 삶의 조건과 주관적 웰빙이 일치하는 경우와 불일치하는 경우를 교차하여 양자모두가 좋은 경우 ‘웰빙’으로, 양자 모두가 나쁜 경우는 ‘박탈’로 규정하는 한편, 양자가 불일치하는 경우를 나쁜 조건이지만 주관적으로 좋게 느끼는 ‘적응’과 좋은 조건임에도 나쁘게 느끼는 ‘부적응’으로 구분

– 그에 따르면 삶의 질이라는 관념은 객관적 조건과 주관적 태도나 느낌이 불일치하는 적응(만족의 패러독스) 혹은 불일치하는 부적응(불만족의 딜레마)의 경우에는 잘 적용되기 어렵다고 주장(한국사회학회, 2011, 재인용)

<표 2-3> Zapf의 삶의 질 정의

객관적 삶의 조건 (Objective Living Conditions)	주관적 웰빙(Subjective well-being)	
	좋음(good)	나쁨(abd)
좋음(good)	웰빙(Well-Being)	부적응(Dissonance)
나쁨(abd)	적응(Adaptation)	박탈(Deprivation)

출처 : Zapf(1984), p.25, 한국사회학회(2011) 재인용

○ 이 연구에서는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를 혼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행복과 삶의 질의 개념이 갖고 있는 기회와 결과의 두 가지 측면을 모두 수용

## (4) 쟁점 4 : 가치의 절대적 기준 vs 가치의 상대적 기준

- 행복과 삶의 질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가치가 개인마다, 사회마다, 문화마다 다른지 아니면 인간 공통의 삶의 질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지의 문화적 맥락(cultural context)에 관한 쟁점(Galloway, 2005: 28-29)
- 서구사회에서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계기가 물질적 풍요수준이 높아지면서 경제적 부의 한계효용이 낮아지고(Englehart, 1996)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다른 분야에서의 희생에 대한 불만도 높아졌다는 점에 주목한다면 행복과 삶의 질을 구성하는 영역이나 분야에 대해 동일한 비중을 적용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한국사회학회, 2011)
- 그렇다고 해서 사회마다 각자 고유한 기준과 영역별 비중을 갖고 행복과 삶의 질을 측정하고 평가한다면 비교가능성이 낮아질 것임
- 이 연구에서는 국가 내에서 지자체간 행복도의 비교가 목적이므로 한국사회 내에서 행복과 삶의 질에 동일한 공통의 기준이 존재하는 것으로 전제

## (5) 쟁점 5 : 삶의 질 측정과 정책과의 연계성 여부

- 행복과 삶의 질 측정이나 행복지수와 삶의 질 지표 산출을 정책과 직접 연결시킬 것인지에 관한 쟁점
  - 궁극적으로 개인의 행복 증진이 국가의 목표가 될 수 있는지에 직결
- 현대사회의 등장 이후 주요 국가의 정부에서 행복의 추구에 관심을 갖고 국가적 목표로 설정(김운태, 2009 : 84)
  - 1776년 미국 독립선언서'는 “창조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고, 이 권리들 가운데 삶, 자유, 그리고 행복 추구가 있다”고 밝히고 있음
  - 1789년 프랑스의 ‘인간과 시민의 인권선언’의 마지막 줄은 “모든 이의 행복”이라는 고귀한 목적을 명시
  - 영국에서는 정치의 목적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는

벤담의 도덕철학을 통해 행복에 대한 관심이 증가(Bentham, 1789)

- 1990년대 후반 영국의 경제학자 오스왈드는 블레어 정부가 행복을 공공 정책의 중요한 아젠더로 설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으며 정부의 초점이 국내총생산(GDP) 대신 총행복수준(Gross Happiness Level: GHL)로 이동해야 한다고 주장(Oswald, 1997)
- 우리나라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행복추구를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 규정
  - 이처럼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욕구로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삶의 질 및 행복수준의 향상은 정부정책의 일차적인 목표임
- 우리나라에서 사회지표란 사회적 가치와 정책 목표의 검토를 가능케 하므로 국민복지와 직결되는 사회 여건의 현황과 추세의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측정도구로서 정책효과의 산출을 측정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집합적인 형태로 집계된 공식통계의 기준임
  - 통계청에서도 지역사회지표의 기능으로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 제공과 정책결과에 대한 평가를 제시(통계청, 2013)
  - 따라서 사회지표와 마찬가지로 행복지수나 삶의 질 지표도 측정의 목적이나 지표체계의 구성이 정책평가와 밀접한 연관을 가짐
- 이 연구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 행복지수 개발 및 측정이 목적이므로 지표체계의 구성은 물론 행복지수 측정결과를 지역발전정책의 방향 및 내용과 연계
  -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수준은 지극히 주관적이고 상대적이므로 이를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지표화 또는 지수화 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만 가능
  - 궁극적으로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정책 성과와 연계하여 정책의 방향설정을 유도할 필요



## 제2절 행복지수 분석의 주요 방법론

### 1. 행복지수의 주요 방법론

#### 1) 표준화를 이용한 종합지수화

- 행복지수 관련연구들은 대부분 개별지표의 표준화 점수(Z-score)를 이용한 후에 전문가 설문을 통한 가중치를 부여하고, 부문별 점수 또는 종합점수를 산출한 후 순위를 결정
- 데이터 구성과 척도
  - 데이터는 시민,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자체 조사결과, 국제기구의 통계자료를 종합하여 주관적·객관적 관점의 다양한 방법으로 구성하며, 양적 측정이 어려운 지표에 관해서는 기존 사회조사의 설문조사에 의존
  - 설문응답은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를 이용하여 질문의 문장을 제시하고, 제시된 문장에 대해서 얼마나 동의하는지 개인의 태도를 측정
  - 주관적 만족도 측정에서 잘 알려진 방법으로는 Cantril의 Self Anchoring scale이 있으며 응답자가 최하 0에서 최고 10까지 스스로 점수를 부여 (Cantril, 1965)
  - UN World Happiness Report의 경우에는 1점부터 10점까지의 점수 부여를 통한 만족도 추출
  - National Well-being(UK)에서는 scale 척도로 0-12를 적용
- 지표의 부문별 통합을 위해서는 척도의 통일이 필요하므로 단위 정상화법(Unit Normal Scaling)을 사용하여 개별지표들을 표준화하는데 통상 Z-Score값을 이용
  - 개별지표는 단위 인구당 사람수, 시설수, 사망수 또는 백분율 등의 상대적 비율로 전환
  - 하나의 통합지표(aggregate indicator 또는 composite index)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개별지표를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개별지표는 각각 측정단위(scale)와 분포가 상이하기 때문에 단위정상법(Unit Normal Scaling)을 적용하여 표준화함

- 표준화한 후 개별 부문 또는 지표들의 표준화 값의 총합을 산출한 후 이를 종합지수로 산출
  - 부문간의 가중치는 단순가중치 부여방식과 차등 가중치 부여방식을 검토한 후 차등 가중치 부여방식을 채택
- 표준화한 값과 가중치가 산정된 후에는 이를 곱하여 필요한 지수를 산출

<표 2-4> 종합지수 산출에 의한 측정사례

구분	국민 삶의 질 측정	경제사회발전지표
주체	• 통계청	• 경제인문사회연구회(국무총리실 산하)
목적	• 영역별 시계열 비교로 현상 진단 및 영역별 해결과제 도출	• 국제 비교를 통한 한국의 장단점 파악 및 발전전략 수립에 활용
비교단위	• 국내 시계열 비교	• 국제 시계열 비교(38개국)
측정틀 (영역)	전체	• 9개 관심영역(111개 지표)
	경제	- 물질적 조건(소득/소비, 노동, 주거)
	사회	- 주관적 웰빙, 건강, 교육, 가족과 공동체, 문화·여가, 시민참여, 안전
	환경	- 환경(환경여건, 재생능력)
분석수준	• 지표분석	• 영역별 종합지수 산출

## (2) 변수들의 통합을 이용한 요인분석

- 중복된 여러 자료로부터 요인을 효율적으로 추출하기 위해서는 다변량 통계 기법을 활용
  - 요인분석(또는 주성분분석)을 이용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행복지수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지표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추출하여 지수화하는 방법이 있음
- 요인분석의 결과 추출된 공통인자들이 전체 데이터의 분산 중 차지하는 비

중은 상이하기 때문에 몇 개의 공통인자까지 점수화할 것인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고유치(Eigen Value)와 요인부하량(Factor loadings)을 고려하여 인자를 채택

- 요인분석의 결과 형성된 요인부하량을 효율적으로 분리, 해석가능토록 하는 방법으로서 요인회전을 시키는데 이는 각 요인부하량이 요인축에 최대한 적재토록 함으로써 자료를 단순 구조화하여 해석이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함
  - 연구에 따라 요인회전의 방법은 상이하나 보통 직각회전의 VARIMAX 방법을 사용
- 각 부문별로 압출된 공통요인에 대하여 요인점수를 도출하며 요인점수를 구하는 방법에는 여러 방법이 있지만, 요인분석결과 계산되어 나온 요인점수 상관계수(factor score coefficients)가 주로 사용됨
  - 각 인자에 부하된 변수들의 각 점수를 인자점수상관계수로 곱한 값을 모두 합하여 인자점수를 도출

### (3) 변수별 지역내 및 지역간 격차 분석

- 행복 또는 삶의 질을 구성하는 개별지표값의 상대적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서 개별지표의 지역격차 분석을 적용할 수 있음
- 지역격차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집중곡선, 지니계수, 허핀달지수 등이 있음
  - 지역격차를 측정하는 방법 중 대표적인 방법으로써 최대치와 최소치간의 차이의 절대값(범위)을 구하는 단순한 방법에서부터 사분편차, 십분편차를 측정하는 방법, 평균편차나 표준편차를 측정하는 방법,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의 절대값을 평균값으로 하는 상대화하는 방법, 변이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 지니계수(Gini Coefficient), 타일계수(Theil index), 순위규모계수(Rank size coefficient) 등이 있음
- 전체 지역격차를 지역내 격차와 지역간 격차로 구분하여 각 지역이 다른 지역과의 격차에 기여하는 정도를 통해서 그 지역의 경제력 등을 측정하며,

격차를 유발하는 지역의 결정요인의 파악을 통하여 지역간 경제력의 원인 파악

## 2. 세종특별자치시 행복지수의 지표체계 구성

### 1) 지표체계 구성의 기본방향

- 정부의 국정기조와의 일치성을 고려
  - 박근혜정부의 출범과 함께 지역생활권별 핵심 사업 및 서비스의 공급 정도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증대에 대한 필요성 반영
  - 경제성장에서 삶의 질 향상으로 변화되는 국민의 정책만족도 트렌드를 반영하여 살고 싶은 지역을 창출하는 근거로 활용
- 객관적 지표의 실제적 데이터 활용성을 중심으로 승인통계의 활용을 증대 시킴으로써 가용성 높은 지표의 활용
  - 공식통계를 활용한 객관적 지표 외에 삶의 질 수준에 대한 개인적 만족도의 주관적 지표를 혼용
  - 측정방식 일원화를 통한 범용성 확보 및 향후 표준화 지수로 통합
- 정책연계 극대화를 위한 산출중심 핵심지표 선정
  - 주민들 삶에 직접적·실제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연계 극대화를 위해 형식적·과정적 지표 보다는 실질적·결과적 지표 위주로 구성
  - 기존의 통계자료의 활용도를 높여 지표 산출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
- 새로운 지역발전 가치를 반영한 간결한 지표체계 구성
  - 기존 도시경쟁력 및 경제력 등 성장 관점의 부문 외에 ‘안전’, ‘만족’ 부문 추가 개발
  - 다수의 지표투입으로 인한 결과의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핵심지표 위주로 설계

## 2) 세종특별자치시 행복지수 지표추출

## □ 지표의 요건

- 지표(indicator)란 현재의 조건과 문제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매개변수 또는 그 변수로부터 도출된 가치를 의미
  - 주로 조작적 정의(operational definition)를 통해 현상과 관련된 정보를 요약해 주는 측정가능한 변수의 형태를 취함
  - 이러한 지표를 모니터링함으로써 지향해야할 바람직한 방향의 설정과 이에 도달하기 위한 행동에 대한 지침을 제시
- 지표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적절성, 유용성, 명확성, 일관성, 측정의 용이성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UN지표프로그램(United Nations Indicators Programme)에서는 지표 개발 시 요건으로, ① 적절성(relevance), ② 유용성(usefulness), ③ 데이터 수집 및 신뢰성과 관련된 기술적 고려(technical concerns)의 측면을 함께 가져야 함을 제시

&lt;표 2-5&gt; UN 지표프로그램에서 제시하는 지표개발 시 고려요건

관 점	세부요건
사회적 관점 - 적절성(Relevance)	① 중요한 정책적 관심사 다룸 ② 종합적임 ③ 가장 불우한 사회집단에 대한 고려
지표 수요자(분석가, 정책결정자, 일반시민 등)의 관점 - 유용성(Usefulness)	① 이해가 쉬워야 함 ② 자료수집에 비용효과적이며, 소요시간이 적어야 함 ③ 특정지역과 하위집단에 대해 이용 가능해야 함 ④ 지역 간 또는 기간 간 비교 가능해야 함
기술적 관점 - 기술적인 고려(Technical concerns)	① 신뢰성 ② 해석에 있어 모호함이 없어야 함 ③ 측정하는 현상의 변화에 민감해야 함

□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의 혼용

- 객관적 지표의 행복도의 측정에 대한 전제
  - 복지에 대한 고려사항으로 어떠한 차원이 적합한지에 대한 합의
  - 어떤 조건이 나쁘고 좋은 것인지에 대한 판단
  -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디인지에 대한 합의
- 주관적 지표의 대표성을 위한 전제
  - 사람들이 느낌의 정도를 의식하고 명료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함
  - 사람들의 느낌이 지속적인 조건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함
  - 느낌이 가치와 등가물이며 절대적인 척도로 수량화될 수 있어야 함
- 행복도 측정에는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의 혼용이 필요
  - 행복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분야를 선정하고 이를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성격의 지표를 이용
  - 사회적으로 합의 가능한 객관적 지표를 중심으로 하고 보완적으로 주관적 지표를 사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

□ 세종특별자치시 행복지수 산출과정

- 1단계 : 세종특별자치시 행복지수 지표체계 검토 및 적정지표 선정
  - 행복지수의 이론과 국내외 사례 등을 참고하여 최종 지표체계 확정
  - 생활인프라, 주거, 환경, 소득, 고용, 교육, 문화·여가, 복지, 의료, 안전, 시민의식 등을 포괄할 수 있는 11개 부문에 대해 객관적 지표 및 주관적 지표로 구성
- 2단계 : 부문 및 지표의 가중치
  - 가중치 산정방법은 동등가중치 부여방식과 차등가중치 부여방식으로 구분되며 차등가중치 부여방식에는 요인분석, 전문가 AHP 조사, 설문에 의한 중요도 조사 등이 활용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개별지표의 동등가중치 부여를 통한 부문별 차등가중치를 사용

○ 3단계 : 세종특별자치시 행복지수 산출

- 단위 불일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단위정상화기법(unit normal scaling)으로 지표값을 표준화된 값으로 변환하여 산출

• 표준화점수  $Z_i = \frac{x_i - \bar{x}}{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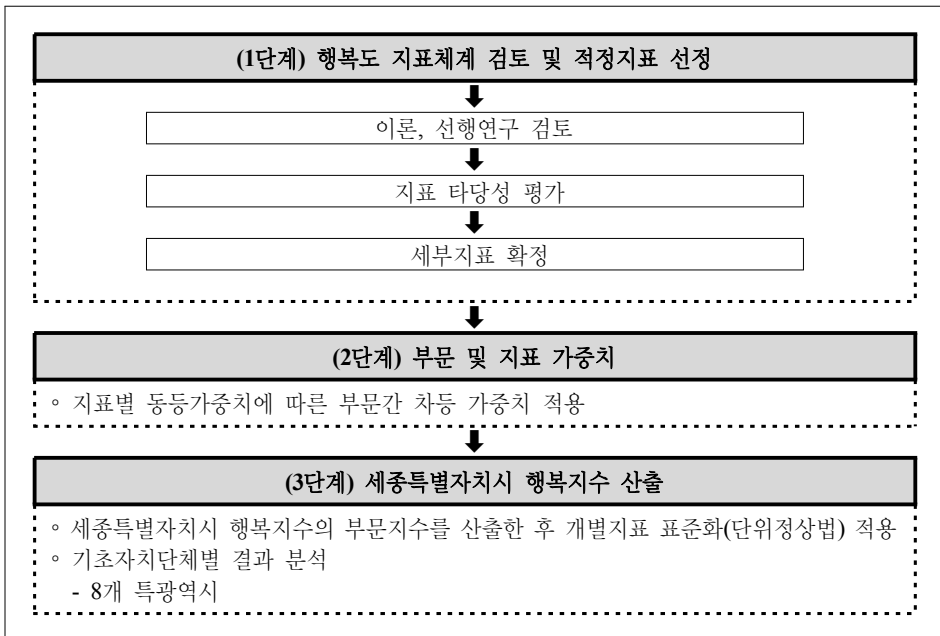
- 이때  $x_i$ 는 원지표값,  $\bar{x}$ 는 지표평균,  $s$ 는 표준편차

- 각 지표 및 부문에 가중치를 곱하여 가중합산방식으로 지수를 산출

• 가중합산 지수점수 =  $\alpha_1 \times x_1 + \alpha_2 \times x_2 + \dots + \alpha_i \times x_i$

- 이때  $\alpha_i$ 는 가중치,  $x_i$ 는 지표

<그림 2-1> 세종특별자치시 행복지수 산출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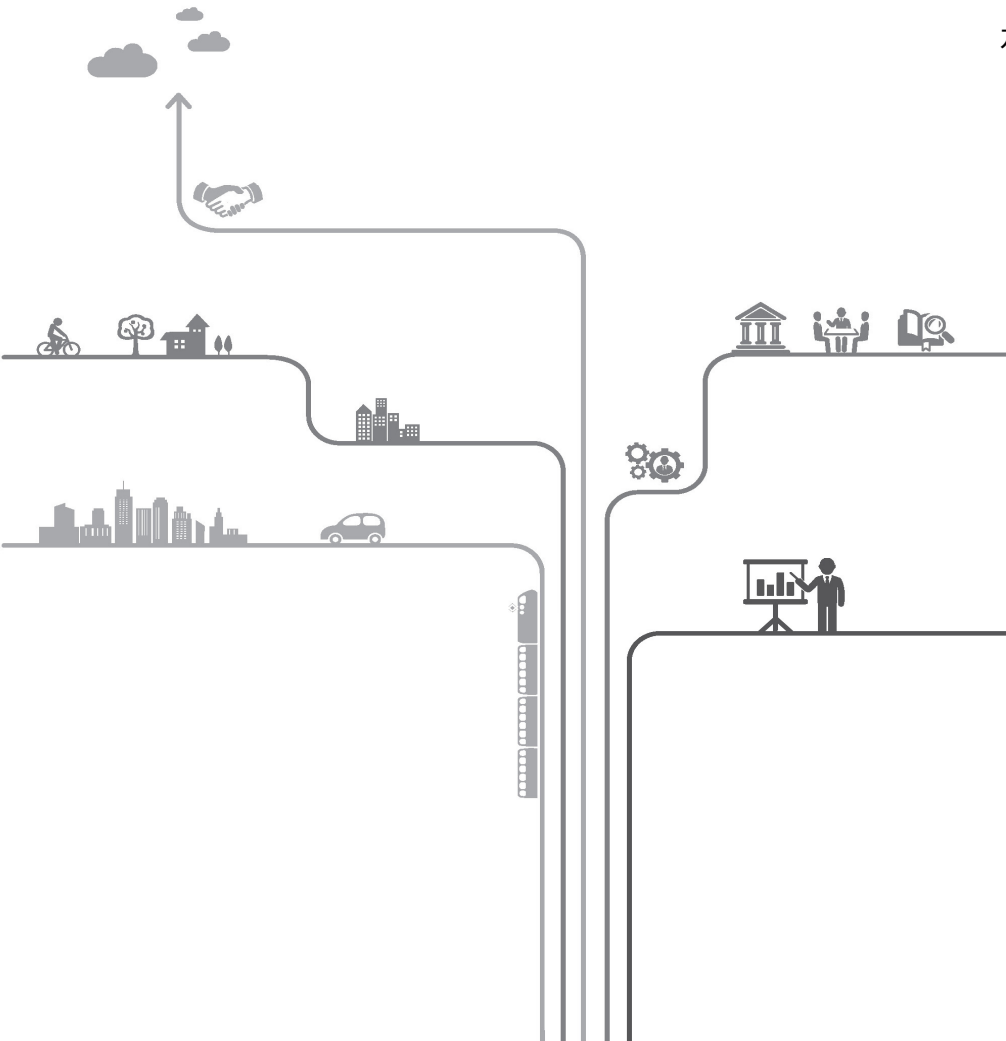


# 제3장 행복지수 사례연구

제1절 국제 및 국외 행복지수 사례

제2절 국내 행복지수 사례

제3절 시사점





## 제3장

## 행복지수 사례연구

## 제1절 국제 및 국외 행복지수 사례

## 1. 국제 기구 행복지수 사례

## 1) UN, World Happiness Report

- 삶의 선택과 사회적 지지를 위한 기대수명·자유·소득 등을 조사한 내용과 유엔 인권지수 자료 등을 토대로 국가별 행복지수(life evaluation score)를 1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계산하고, 해당국의 순위를 제시
  - UN 총회는 2011년 7월 “경제적 성과가 아닌 심리적 행복을 조사해 각국의 정책에 반영하자”는 제안을 통과
  - 2012년 4월 부탄 총리를 의장으로 ‘행복과 웰빙에 관한 UN 고위급 회담’을 바탕으로 OECD의 지침에 따라 국제적인 차원에서 행복과 웰빙을 측정할 ‘제1차 세계행복조사보고서’가 발간
- 행복측정의 부문은 삶의 만족, 전날의 긍정적, 부정적 감정상태 3 부문이며, 삶의 질 만족도에는 6개 지표가 포함
  - 삶의 질 만족도 : 1인당 GDP, 건강 기대수명, 믿을만한 사람의 여부, 인생 선택의 자유, 부패인식, 관용

&lt;표 3-1&gt; 세부항목 및 측정방법

분야	세부항목	측정
Cantril Ladder (삶의 만족도)	Social support (믿을 말한 사람 여부), Freedom to make life choice(인생 선택의 자유), Generosity(관용), Perceptions of corruption(부패인식), Healthy Life expectancy(건강 기대 수명) Ln(GDP per capita, 1인당 GDP), Predicted by donation	

분야	세부항목	측정
	Positive affect (전날의 긍정적인 감정상태)	Measures of the previous day's positive and negative emotions
	Negative affect (전날의 부정적인 감정상태)	

출처 : World Happiness Report(2013)

## 2) OECD, Better life Initiative

- OECD는 2011년 창설 50주년을 맞아 경제발전과 함께 회원국 국민의 소득이 늘어났으나 GDP 만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 인간의 가치에 주목, 행복지수 조사를 수행
- 2004년 팔로메에서 개최된 ‘통계, 지식과 정책’(Statistics, Knowledge and Policies) 포럼 이후 노벨 경제학 수상자인 Stiglitz와 Sen 그리고 Fitoussi가 삶의 질을 반영할 수 있는 측정 체계를 검토
- 주관적 지표와 객관적 지표를 망라한 총 11개 영역에 대한 점수로 산출
  - 주거환경, 소득, 일자리, 공동체 생활, 교육, 환경, 정치참여, 건강, 삶의 만족도, 치안, 일과 삶의 균형 등

<표 3-2> OECD의 Better Life Initiative

영역	차원	세부지표
물질적 삶의 조건	소득	■ 가계순가처분소득
		■ 가계금융자산
	직업과 임금	■ 고용률
		■ 장기실업률
		■ 1인당 연간임금
	주거	■ 방의 개수
■ 주거의 질		
삶의 질	건강 상태	■ 기대수명
		■ 주관적 건강수준

영역	차원	세부지표
여가		▪ 장기근무시간
		▪ 개인 여가시간
		▪ 주부 고용률
교육		▪ 교육수준
		▪ 인지능력
사회적 관계		▪ 사회적 지원
사회참여와 정치		▪ 투표참여율
		▪ 정책결정 참여
환경		▪ 대기오염
치안		▪ 살인율
		▪ 위험인지도
주관적 행복		▪ 삶의 만족도
		▪ 정서적 균형감

### 3) UNDP, Human Development Index

- 1990년에 파키스탄의 경제학자 Mahbub ul Haq가 국가적 소득보다는 주민의 행복이나 후생에 초점을 맞춘 지표를 개발하면서 도입
  -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Amartya Sen 등과 지수를 개발하면서 초기에는 Sen이 동의하지 않았으나 나중에는 설득
- 인간의 웰빙을 증가시키기에 필요한 3가지 차원에서 4개 지표를 개발
  - 3가지 부문 : 건강한 장수, 지식, 적절한 삶의 수준

<표 3-3> UNDP 지표 체계

부문	세부지표
건강한 장수(a long and healthy life)	▪ 출생시 기대여명
지식(knowledge)	▪ 성인의 문자해독율
	▪ 교육기회(평균 교육년수 및 기대 교육년수)
적절한 삶의 수준(a decent standard of living)	▪ 1인당 국내 총생산(GNI)

출처 : Human Development Index

4) Happy Planet Index(HPI, 영국 신경경제재단)

- 영국의 신경경제학재단(New Economics Foundation, NEF)은 2006년 7월 세계 178개국을 대상으로 행복한 지구 지수(The Happy Planet Index, HPI)를 처음 발표한 후 2007년 유럽국가를 대상으로 지수를 측정
- 행복지수는 장수와 행복(행복수명)을 그 수단에 활용되었던 자원활용 정도(생태적 발자국)로 나누어 지수를 산출함
- HPI의 지표는 주관적 삶의 만족도, 기대수명, 생태적 발자국의 분야로 구성되며 지수는 0에서 100점의 점수 제시
  - 행복한지구지수(HPI) =  $\frac{\text{삶의만족도} \times \text{기대수명}}{\text{생태학적발자취}}$

<표 3-4> 분야 및 평가지표

분야	지표
기대수명 (Life expectancy)	Life expectancy data from the 2011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생태학적 발자취 (Ecological footprint)	인구를 유지하고 에너지 소비를 감당하는 데 필요한 토지면적(per capita measure of the amount of land)
삶의 만족도 (Experienced Well-being)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subjective life satisfaction) 10점 척도 - 질문문항: 당신의 전체 삶을 고려할 때 당신은 현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5) WHO, WHOQOL

- 세계보건기구는 행복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삶의 질 척도(WHOQOL; World Health Organization Quality of Life Assessment Instrument)라는 지표를 개발
  - 삶의 질 정의 : “한 개인이 살고 있는 문화권과 가치체계 맥락 속에서 자신의 목표, 기대, 규범, 관심과 관련하여 인생에서 자신이 차지하는 상태에 대한 개인적인 자각”

- 삶의 질 측정은 6개 영역에 100여개의 세부항목으로 구성
  - 6개 영역 : 신체적 건강, 심리적 측면, 자립성, 사회관계, 환경, 종교 및 개인적 신념

&lt;표 3-5&gt; WHO의 삶의 질 척도(WHOQOL)

영역	지표
신체적 건강	■ 삶과 건강의 전반적인 질, 체력과 피로, 고통과 불편함, 수면과 휴식 등
심리적 측면	■ 외모에 대한 생각, 부정적 감정, 긍정적 감정, 자존감, 사고력, 기억력 등
자립성	■ 이동성, 일상적 활동, 약물 및 의료기구 의존도, 노동능력 등
사회관계	■ 대인관계, 사회적 지원, 성적활동 등
환경	■ 새로운 기술과 정보습득의 기회, 여가참여 기회, 물리적 환경, 교통망 등
종교 및 개인적 신념	■ 종교 및 개인적 신념

## 2. 국외 행복지수 사례

### 1) 부탄, Gross National Happiness(GNH)

- 1972년 지그메 싱기에 왕추크(Jigme Singye Wangchuck) 국왕이 GDP가 아닌 국민들의 행복지수(Gross National Happiness)를 기준으로 나라를 통치하겠다고 발표, 1998년에 부탄 행복지수를 도입
  - 부탄 왕실과 부탄연구센터(The Center for Bhutan Studies)가 중심이 되어 평가 2006년 8월부터 GHI 지수 개발에 착수
- 지속가능한 발전, 전통가치의 보존 및 계승, 자연환경의 보존, 올바른 정부 통치 구조의 수립이라는 기본원칙 속에 9개 영역 33개 지표로 구성
  - GNH의 9개 분야는 동일하게 가중치를 두고 있으며, 33개 지표는 지표 성격에 따라 차등적 가중치 부여

<표 3-6> 부탄 국민총행복지수의 세부지표 구성

영역	세부지표
정신적 웰빙 (psychological wellbe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관적 정신건강 상태, 기도문 암송횟수, 명상횟수, 카르마(karma) 횟수, 자기만족감, 질투심, 고요한 심정, 동정심, 관대함, 좌절감, 자살의도</li> </ul>
생태 (ecolog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의 오염, 토지의 침식, 쓰레기 처리방법, 서식 동식물의 이름과 종, 집주변의 식목상태</li> </ul>
건강 (health)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관적 건강상태, 장애, 지난 30일단 건강한 일수, BMI, HIV/AIDS에 대한 지식, 모유수유기간, 보건소까지 걷는 거리</li> </ul>
교육 (educ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연수, 문자 해독률, 지역의 전설에 대한 지식</li> </ul>
문화 (cultu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국어 구사수준, 전통놀이 횟수, 전통예술 기술, 규범의 중요성에 대한 아동교육, 공평함의 중요성에 대한 아동 교육, 지역의 가면과 춤에 대한 지식, 호혜주의 원칙의 중요성, 살인에 대한 태도, 절도에 대한 태도</li> </ul>
삶의 수준 (living standar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구소득, 일상생활의 소득충분도, 음식물 안전, 주거상태, 의복구매, 지역축제 기여도, 가옥의 시급한 유지보수</li> </ul>
시간활용 (time us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시간, 수면시간</li> </ul>
지역사회 활용 (community vital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웃에 대한 신뢰, 이웃에 도움을 주는 횟수, 이웃과의 노동력 교환, 친구와의 교제, 부양가족, 많이 다투는 가족, 가족 간 이해심, 가족 내 안정감, 범죄 피해, 안정감, 이웃 간 적개심, 봉사활동 일수, 기부, 사회적 지지</li> </ul>
좋은 지배체계 (good governa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의 리더십, 서비스제공도, 불평등 및 부패한 관리, 정부의 사법과 정책 등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li> </ul>

## 2) 프랑스, Gross National Happiness(GNH)

- 2008년 사르코지 대통령 지시로 컬럼비아 대학의 스티글리츠 교수를 의장으로 '경제성과 및 사회적 진보 측정위원회(The Commission on the Measurement of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 Progress, CMEPSP)를 설립해 총체적인 경제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 개발에 착수
  - 사르코지 대통령은 GDP가 사회적 웰빙, 지속가능성 등을 충분히 반영



하지 못한다는 우려를 환기

- 행복은 GDP, 삶의 질, 지속가능발전 및 환경이라는 3 분야로 구성된다는 판단에서 항목을 구성하고 그 중에서 삶의 질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9가지 요인을 제시
  - 9가지 요인 : 삶의 물질적 환경조건(material living conditions), 재정적 위험(financial risks), 건강(health), 교육(their level of education), 근무조건(working conditions), 정치참여(involvement in public life), 사회적 연결(contacts with others), 경제적 안전(economic security), 개인의 안전(physical security)

<표 3-7> 세부항목 및 지표

분야	세부항목	지표
Household economic activity	-	-
		-
Quality of life	Material living conditions	Noise disturbance in the home
		Severe or moderate overcrowding
		Home difficult to heat
		Home damp
		No bathroom inside the home
		No central or electric heating system
		No hot water
		No inside toilet
		Home too small (subjective assessment)
		Housing problems (at least 3 out of 9)
		Unable to afford to get together with friends / family for a drink / meal at least once a month
		Problems keeping home at the right temperature
		Unable to afford one week's holiday away from home once a year
		Unable to replace worn out furniture
		Unable to replace worn out clothes by some new ones (not second hand)
Unable to afford a meal with meat, chicken or fish every second day		

분야	세부항목	지표
		Unable to give gifts to family or friend at least once a year
		Does not own two pairs of properly-fitting shoes
		No fullmeal on at least one day during the last two weeks
		No internet access
		No home computer
		No dish-washer
		No car
		Consumption restrictions (at least 4 out of 9)
	Financial constraints	Repayments (loans, credit) represent more than one third of income
		Opinion on standard of living: it's difficult, you have to get into debt to manage
		Bank overdraft (very often) in the last 12 months
		Difficult to cover expenses from income
		Get into savings to balance the budget
		Have no savings
		Arrears on utility bills (electricity, gas, telephone, etc.)
		Arrears on rent payment and service charges
		Arrears on tax payments
		Health
	Health limits daily activities	
	Education	No diploma
		No recent professional training
	Working conditions	Works on assembly line
		Poor relationships with work colleagues
		Does not use skills to the full
		Exposed to harmful or toxic products
		Works at night
		Will leave job in next 12 months (redundancy, resignation, end of contract)
		Physically demanding
		Under pressure
		No possibility of promotion
		Tensions with the public
Difficulties balancing work and other family obligations		
Work not recognised for its true worth		
Participation	No position of responsibility in an association	

분야	세부항목	지표
	in public life	Not a volunteer worker
		Not a member of a political party
		Not a member of a trade union
		Did not vote at last elections
	Contact with others	Contacts with friends (excl. meetings)
		No meetings with friends
		No contacts with family
		No meetings with family (excl. contacts)
	Economic insecurity	No participation in associations
		Movement from employment to unemployment between 2006 and 2007
	Physical insecurity	Burglary or attempted burglary
		Damage to or wilful destruction of property
		Theft with violence
		Physical violence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Domestic violence (physical or sexual) within the household
-		
	-	

### 3) 영국, National Well-being

- 영국에서의 국가웰빙은 2010년 총리 카메론(UK Prime Minister David Cameron)의 새로운 웰빙의 측정도구 개발의 필요성에서 시작
  - Gross Domestic Product (GDP)와 같은 경제적 지표 외에 국가의 상태를 더 나타낼 수 있는 웰빙과 같은 새로운 지표에 대한 개발이 시급
- 영국의 통계청(ONS)은 웰빙 또는 행복의 개념이 무엇인지 측정하기 위해 ‘What matters to you?’이라는 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이를 새로 개발하는 행복지수의 측정(national well-being)에 반영
  - 행복은 개인에게 그들의 기분을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것으로 평가되어 지는 주관적인 방법과 기타 객관적 데이터를 활용하여 측정
- 10개 영역 41개의 지표로 구성

<표 3-8> 세부지표 및 측정방법

분야	지표	측정	출처
Personal Well-being (주관적 웰빙)	Medium/high rating of satisfaction with their lives overall	rate on a scale of 0 to 10 where 0 was not at all and 10 was completely	Personal Well-being Annual Population Survey Datasets, ONS
	Medium/high rating of how worthwhile the things they do are	rate on a scale of 0 to 10 where 0 was not at all and 10 was completely	Personal Well-being Annual Population Survey Datasets, ONS
	Rated their happiness yesterday as medium/high	rate on a scale of 0 to 10 where 0 was not at all and 10 was completely	Personal Well-being Annual Population Survey Datasets, ONS
	Rated their anxiety yesterday as medium/low	rate on a scale of 0 to 10 where 0 was not at all and 10 was completely	Personal Well-being Annual Population Survey Datasets, ONS
	Population mental well-being	Respondents complete a 7 or 14 question survey, each response is given a score of between 1 and 5	Understanding Society: UK Household Longitudinal Study
Our relationships (관계)	Average rating of satisfaction with family life	a scale from 1 to 10 where 1 indicates 'very dissatisfied' and 10 indicates 'very satisfied'	Eurofound, European Quality of Life Survey
	Average rating of satisfaction with social life	a scale from 1 to 10 where 1 indicates 'very dissatisfied' and 10 indicates 'very satisfied'	Eurofound, European Quality of Life Survey
	Has a spouse, family member or friend to rely on if they have a serious problem	A lot Somewhat A little Don't know/missing	Understanding Society: UK Household Longitudinal Study
Health (건강)	Healthy life expectancy at birth (male/female)	Healthy life expectancy is defined as the number	Health analysis and reporting, ONS

분야	지표	측정	출처
		of years an individual can expect to spend in very good or good general health	
	Reported a long term illness and a disability	Men aged 16-64, women aged 16-59. Long-term disabled includes both the work-limiting disabled and DDA current disabled	Labour Force Survey, ONS
	Somewhat, mostly or completely satisfied with their health	7 point scale varying from completely (or very) satisfied to completely (or very) dissatisfied	Understanding Society: UK Household Longitudinal Study
	Some evidence indicating probable psychological disturbance or mental ill health.	scale of 0 to 12	Understanding Society: UK Household Longitudinal Study
What we do (우리가 하는 것)	Unemployment rate	The number of unemployed people (aged 16+) divided by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aged 16+).	Labour Force Survey, ONS
	Somewhat, mostly or completely satisfied with their job	7 point scale varying from completely (or very) satisfied to completely (or very) dissatisfied	Understanding Society: UK Household Longitudinal Study
	Somewhat, mostly or completely satisfied with their amount of leisure time	7 point scale varying from completely (or very) satisfied to completely (or very) dissatisfied	Understanding Society: UK Household Longitudinal Study
	Volunteered in the last 12 months	Several times a year or more At least once a week At least once a month Several times a year	Understanding Society: UK Household Longitudinal Study

분야	지표	측정	출처
		Once a year or less Never/almost never	
	Engaged with/participated in arts or cultural activity at least 3 times in last year	Excludes reading for pleasure. Data are for England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Adult participation in 30 mins of moderate intensity sport, once per week.	At least four sessions in the last 28 days. Data are for England	Sport England
Where we live (어디에 사는가)	Crimes against the person (per 1,000 adults)	Based on respondents' experience of crime. Relates to the full 12 months prior to interview. Data for England and Wales	Crime Survey for England and Wales, ONS
	Felt fairly/very safe walking alone after dark (men/women)	Based on respondents' experience of crime. Relates to the full 12 months prior to interview. Data for England and Wales	Crime Survey for England and Wales, ONS
	Accessed natural environment at least once a week in the last 12 months	Adults (16+) were asked 'Thinking about the last 12 months, how often on average have you spent your leisure time out of doors, away from home?'. Data are for England	Natural England
	Agreed/agreed strongly they felt they belonged to their neighbourhood	7 point scale from "strongly disagree" to "strongly agree"	Understanding Society: UK Household Longitudinal Study
	Households with good transport access to key services or work (2010 = 100)	Relates car ownership rate to the average public transport time to 7 key services. Indexed (as a score of 100) to England	Department for Transport

분야	지표	측정	출처
		average for 2010 (2010 = 100). Data are for England	
	Fairly/very satisfied with their accommodation	Data are for England	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Personal finance (개인금융)	Individuals in households with less than 60% of median income after housing costs	Median taken from equivalised and ranked household incomes	Family Resources Survey,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Median wealth per household, including pension wealth	Excludes assets held in Trusts (except Child Trust Funds) and business assets held by households. Data are for Great Britain	Wealth and Assets Survey, ONS
	Median household income	Median equivalised household disposable income (OECD equivalised), 2011/12 prices	National Accounts, ONS
	Somewhat, mostly or completely satisfied with the income of their household	7 point scale varying from completely (or very) satisfied to completely (or very) dissatisfied	Understanding Society: UK Household Longitudinal Study
	Report finding it quite or very difficult to get by financially	7 point scale varying from completely (or very) satisfied to completely (or very) dissatisfied	Understanding Society: UK Household Longitudinal Study
	The economy (경제)	Real net national income per head	Net national income is gross national income less capital depreciation, deflated by GDP (expenditure) deflator
UK public sector net debt as a percentage of Gross Domestic Product		Public Sector Net Debt excluding temporary effects of financial	National Accounts, ONS

분야	지표	측정	출처
		intervention as a proportion of GDP	
	Inflation rate (as measured by the Consumer Price Index)	Consumer price indices measure change in general level of prices charged for goods and services bought for purpose of household consumption in the UK	Consumer Prices, ONS
Education and skills (교육 및 기술)	Human capital - the value of individuals' skills, knowledge and competences in labour market	Figures in 2010 prices	Human Capital estimates, ONS
	Five or more GCSEs A to C including English and Maths	See link to web page for full metadata	Department for Education; Welsh Government; Scottish Government; Northern Ireland Department of Education
	UK residents aged 16 to 64 with no qualifications	Highest level of qualification for those aged 16-64 using UN 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Education levels	Labour Force Survey, ONS
Governance (거버넌스)	Registered voters who voted	Parliamentary election voters as percentage of registrations.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Democracy and Electoral Assistance
	Those who have trust in national Government	Data are at Spring 2013. Respondents were asked if they 'tend to trust' or 'tend to not trust' a range of institutions. Figures are for those who answered 'tend to trust'	Eurobarometer



분야	지표	측정	출처
The natural environment (자연환경)	Total green house gas emissions (millions of tonnes)	Figures shown for 2011 are provisional	Department for Energy and Climate Change (DECC)
	Protected areas in the UK (Millions hectares)	Figures include land and sea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Energy consumed within the UK from renewable sources	As a percentage of total energy consumed.	Department for Energy and Climate Change (DECC)
	Household waste that is recycled	Including composted and reused. Data for England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 4) 일본, 국민행복지수

- 전후(戰後) 경제 기적 이후 “행복의 역설(paradox of happiness)”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이 나아갈 방향, 다시 말해 실질적으로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행복 지표의 필요성 제기
  - 행복도 지표 작성과 관련한 연구가 진행되던 기간 중 동(東)일본 대지진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이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재앙은 일본 국민들의 행복에 대한 개념 및 인생에 대한 관점을 급격히 변화시킴
- 행복이란 주관적 현상이기 때문에 행복 측정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관적 행복도를 중심영역에 둠
  - 특히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는 삶의 다양한 측면 가운데 사회·경제적 상황, 심신의 건강, 관계성 등 세 가지 주요 영역에 초점을 둠
- 국민행복지수는 영역별로 다양한 주관적 지표와 객관적 지표들을 포함하며, 지표 시안은 주관적 지표 50개, 객관적 지표 82개 등 총 132개 지표로 구성

<표 3-9> 국민행복지수 측정 지표 구성안

영역		객관적 지표	주관적 지표
주관적 행복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관적 행복수준, 이상적 행복수준, 장래 기대 행복수준, 상대적 행복수준, 감정경험, 세대내 행복격차</li> </ul>	
사회·경제적 상황	기본적 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 안전, 고독사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비율, 노후의 생활비 불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빈곤율, 상대적 빈곤율, 물질적 박탈률, 상대적 빈곤갭, 집세·공공요금 등을 경제적 이유로 지불하지 못하는 세대비중, 소비자 피해, 물질적행복에 대한 주관적 평가, 아동빈곤율, 파산율, 자살율, 고독사율</li> </ul>
	주거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거비부담감, 주택만족도, 불량 주거환경 지표, 지역 청결도, 질·대기질·방사선량에 대한 불안, 근린안전도 (야간보행의 안전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숙자 수, 주변 주거여건(쇼핑몰, 의료기관, 공원 등), 방과 후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동수</li> </ul>
	육아·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생활만족도, 육아만족도, 남성의 육아참여 만족도, 양육지원 서비스만족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력, 산부인과 의사의 지역격차, 고교 중퇴율, 부모와 긴밀한 의사소통 여부에 대한 경험, 집단따돌림 상담건수, 일상생활영위기능(life skills) 성취,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이용을 희망하는 자녀수, 경제적이유로 고교 및 대학진학이 어려운 인구 수, 육아휴직율</li> </ul>
	일 (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희망 청년 수, 직업만족도, 청년기업가 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정규직고용율, 무직가구 수, 여성관리직이 있는 기업 수, 연구직 고용자 수, NEET족 청년 수, 청년실업률, 실질구인율, 과로사 불안감, 직장내 따돌림을 겪고 있는 비율, 장기실업자 수, 강력한 취업희망자 수, 사회참여율(특히 80세 미만)</li> </ul>
	사회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도(정부)에 대한 신뢰, 치안인지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금·건강보험 미가입자수, 의견모집제도에 대한 인지도, 투표율</li> </ul>
심신의 건강	신체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기질병률, 유아사망률, 유아질병률, 노인의 일상생활동작(ADL) 수행 지표, 병상 노인수</li> </ul>

영역		객관적 지표	주관적 지표
	정신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트레스 강도, 자살성 사고, 클리닉 카운셀러 만족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살 사망자 수, 아동학대 상담 대응건수, 학대아동 보호시설수, 발달장애(ADHD) 아동수, 우울증 환자수, 치매 발생률</li> </ul>
	신체·정신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서비스 만족도, 환자있는 가정의 피로도, 간병 등이 필요한 가정의 지원제도 만족도, 자기건강에 대한 주관적 평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균기대수명, 가정폭력 상담건수, 산모사망률</li> </ul>
관계성	라이프스타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간배분 만족도, 사회봉사 희망자 수, 해외 문화 수용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유시간, 자녀의 시간관리, 유급휴가 사용률, 도구적 일상생활동작(IADL)</li> </ul>
	가족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친족·친구와의 친밀도, 고립감, 가족생활의 만족도, 고립감을 느끼는 아동 및 젊은이 비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인 가구수, 어려운 순간 절대적으로 신뢰할 만한 사람의 존재여부, 가족 없는 독신가구, 가족구성원들과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가구 수</li> </ul>
	지역사회 결속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유용감, 타인에 대한 신뢰,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하는 사람수, 현재거주지에서의 계속거주희망자 비중, 지역사회 치안환경, 지역사회 참여도, 소외감, 인터넷커뮤니티 형성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회에서의 세대간 교류, 이타심(헌혈률, 기부율), 히키코모리 비중, 공원 등 후생시설수, NPO, NGP, 스포츠동호회, 취미동호회 참여 빈도</li> </ul>
	자연과 친밀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에 대한 외경심, 현지의 자연과 문화에 대한 이해도, 현지 전통에 대한 인지도, 환경문제에 대한 이해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해시 피난율</li> </ul>
지속가능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구 온난화(온실 가스의 연간총배출량)의 15개</li> </ul>	

### 5) 캐나다, 국민행복지수(Canadian Index of Wellbeing)

- GDP와 같은 협의적 수준의 경제적 척도를 넘어서 다차원적인 새로운 지표의 구성을 통해 캐나다인의 삶의 질에 대한 전반적 측면뿐만 아니라 특정영역과 관련된 독특한 관점을 제시하기 위함

- 기존의 이론적 논의나 지표구성 연구들을 토대로 웨빙과 관련된 다양한 지표들을 활용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객관적 지표뿐만 아니라 주관적 지표들도 동시에 고려
- 생활수준, 건강인구, 공동체 활력, 민주적 참여, 여가와 문화, 시간사용, 교육, 환경 등 모두 8개 하부 영역들로 구성
  - 8개 영역 각각은 몇 개의 주제 아래 8~10개의 개념들로 분화되며, 각 개념들은 여러 개의 변수들로 측정

<표 3-10> CIW 지수의 구성

영역	측정내용
생활수준	■ 소득과 분의 분배, 빈곤, 소득변화, 경제적 안정, 직업안정성
시간사용	■ 시간 사용과 통계 정도, 시간활용이 웰빙에 미치는 영향
건강	■ 신체적 육체적 건강, 기대수명, 의료서비스의 접근가능성과 질 등의 환경
환경	■ 자연환경의 보전, 자연자원과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교육	■ 교육수준, 다양한 사회적 배경에서의 능력, 발전가능성
공동체 활력	■ 이웃과의 관계와 활동, 소속감, 자원봉사 조직
시민참여	■ 정치와 공공영역에서 시민참여, 정부의 투명성/효율성, 공정성, 공평성 및 접근성, 세계시민으로서의 행동 여부
문화와 여가	■ 문화활동, 예술활동(행위, 시간, 영상 예술), 여가 활동

자료 : 캐나다 웰빙연구소(2009)

## 6) 홍콩, 삶의 질 지수

- 홍콩 Chinese University 사회과학 교수들이 홍콩의 삶의 질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기 위한 목적에서 개발
- 지표는 사회문화, 경제, 환경 영역에서 객관 및 주관적 지표 21개로 구성
  - 지표에 대한 자료는 공식통계자료와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해서 산출

&lt;표 3-11&gt; 삶의 질 지수

영역	측정내용
사회문화	■ 출산율, 기대수명, 건강 대비 GDP 비율, 스트레스 지수, 삶의 만족도 지수, 언론자유도, 언론비판지수, 정부수행지수, 범죄율
경제	■ 주택구매비율, 전세자수, 실업율, 경제상황지수, 실질임금지수, 교육에 대한 공공지출의 GDP 비율, 지역대학 프로그램의 연령별 참여율
환경	■ 대기지수, 수질지수, 소음지수, 재활용율

자료 : 황규선(2009)

### 7) 네델란드, Life Situation Index

- 국민들이 삶 속에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나아가 사회가 안고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고 극복하려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회 현황을 파악하고 설명
- 객관적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LSI는 삶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를 건강, 주거, 이동성, 휴가, 내구성 소비재 소유, 사회문화적 레저 활동, 사회 참여, 스포츠 등 모두 8개의 영역으로 구분
  - 지표 선정 및 단일 지수화와 관련하여 LSI의 유용성과 필요성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논쟁에 대해 열린 자세 견지

<표 3-12> LSI의 영역과 지표항목

영역	지표
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li> <li>■ 여행, 스포츠 등과 같은 여가활동에 지장이 있는 경우</li> </ul>
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의 종류</li> <li>■ 소유여부</li> <li>■ 방의 수</li> <li>■ 거실의 표면적</li> </ul>
이동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동차 소유</li> <li>■ 대중교통 이용권 소유</li> </ul>
휴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 12개월 동안 휴가 일수</li> <li>■ 해외여행 일수</li> </ul>
내구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정용품의 수</li> <li>■ 취미용품의 양</li> </ul>
레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미활동의 수</li> <li>■ 사회문화 여가 활동의 수</li> <li>■ 단체, 협회 등 회원가입</li> </ul>
사회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봉사활동</li> <li>■ 사회격리(정도)</li> </ul>
스포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포츠 활동 횟수(1주)</li> <li>■ 스포츠 활동의 수</li> </ul>

## 제2절 국내 행복지수 사례

### 1) 통계청, 삶의 질 측정 지수(안)

-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전체적인 삶의 질을 종합하고 처한 상태를 집약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지표 개발 요구
  - 통계청이 발간한 480여 개의 <한국의 사회지표>가 있으나, 단순한 통계

표 형태의 나열이고, 한국인의 삶의 질을 한 눈에 제시하는데 제한적

- 지표 선정의 단계는 기본적인 9개 영역을 선정한 후, 각 영역별로 측정 내용을 구분하기 위해 29개의 세부 주제로 구분하고, 이를 기준으로 각각의 내용을 측정하는 55개의 객관적 지표와 28개의 주관적지표로 구성
  - 객관적 지표는 사회의 전반적인 상태나 상황, 환경에 대한 실제적인 수치를 보여주며, 주관적 지표는 개인들의 주관적 만족도나 평가, 태도 등을 나타냄
- 객관적 지표는 지표의 타당성, 신뢰성, 포괄성, 국제비교 가능성, 가득성을 기준으로 선정되었으며, 선정된 지표들 중 최종적으로 각 영역 내에서 서로 유사하거나 연관성이 높은 내용을 측정하는 지표들이 있는지를 따져 중복하여 포함되지 않도록 구성
- 주관적 지표는 전반적인 삶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를 알아볼 수 있는 지표로 구성하여 객관적인 사회지표에 추가하는 형태
  - 지표 구성에 있어서 각 영역별로 전반적인 만족도를 측정할 수 있는 항목을 하나 이상 포함

<표 3-13> 삶의 질 측정 지표 구성안

대분류	중분류	객관적 지표	주관적 지표
물질적 조건	소득, 소비 및 자산	■ 1인당GNI(+), 균등화된 가구중위소득(+), 균등화된 가구중위소비(+), 가구평균순자산(+) 균등화된 가구 가치분소득 지니계수(-), 상대적빈곤율(-)	■ 소득만족도(+), 소비생활 ■ 만족도(+)
	고용 및 임금	■ 고용률(+), 실업률(-), 근로자평균근로소득(+)	■ 일자리만족도(+)
	복지	■ 공적연금 가입률(+), 실업급여 수혜율(+), GDP 대비 사회 복지지출 비율(+)	-
	주거	■ 1인당주거면적(+), 주거빈곤가구비율(-), 통근/통학 소요시간(-)	■ 전반적 주거환경 만족도(+)
교육	교육기회	■ 유치원취학률(+), 고등교육기관 이수율(+), 평생교	-

대분류	중분류	객관적 지표	주관적 지표
		육참 여율(+), 학업 중단율(-)	
	교육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원1인당 학생수(-), GDP대비 정부부담 공교육비 비중(+), 학생1인당 사교육비지출액(-)</li> </ul>	-
	교육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PISA 백분위 순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교육의 효과(+), 학교생활만족도(+)</li> </ul>
건강	건강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대수명(+), 건강보정수명(+), 주요만성V-1-유병률(-), (소득계층별) 건강집중(불평등)지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관적 건강(+), 스트레스인식정도(-)</li> </ul>
	건강행위 및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만율(-), 중등도이상 신체활동 실천율(+)</li> </ul>	
문화/여가	여가시간 및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평균여가시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가활용 만족도(+), 시간부족에 대한 인식(-)</li> </ul>
	문화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인당 평균 국내여행일수(+),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 독서인구비율(+)</li> </ul>	
가족/공동체	가족관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족접촉빈(+), 가족관계만족도(+)</li> </ul>
	가족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부모가구비율(-), 독거노인비율(-)</li> </ul>	
	사회적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까운 친구수(+), 자살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적관계망(+)</li> </ul>
	공동체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단체 참여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li> </ul>
민주적 참여	정치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선거참여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치관심(+), 정치효능감(+)</li> </ul>
	시민적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원봉사활동 참여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민적 덕목(+)</li> </ul>
	시민적 권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패인식지수(+), 시민적 권리인식(+)</li> </ul>
	관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민에 대한 태도(+)</li> </ul>
	신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신뢰(+), 제도신뢰(+)</li> </ul>
환경	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재생 에너지 비율(+), 에너지 빈곤층 비율(-)</li> </ul>	-
	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세먼지 농도(-), 오존 주의보 및 경보 발령횟수(-)</li> </ul>	-
	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질 오염도(-), 상수도 보급률 지역별 격차(-)</li> </ul>	-
	폐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폐기물 재활용 비율(+)</li> </ul>	-
	기후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온실가스 배출량(-)</li> </ul>	-



대분류	중분류	객관적 지표	주관적 지표
	환경의 질	■ 1인당 도시공원/녹지면적(+)	■ 체감환경만족도(+), 환경문제불안도(+)
안전	범죄	■ 강력범죄발생률(-), 범죄피해가구(-)	■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도(+), 야간보행에 대한 안전도(+)
	사고	■ 도로 사망률(-), 아동안전사고 사망률(-), 아동학대 건수 (-), 재해율(-), 화재발생건수(-)	-
주관적 만족도	-	-	■ 주관적 만족감(+), 긍정/부정 정서 경험의 균형(+)

주: (+), (-) 는 지표방향을 의미

##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가행복지수

- 국가의 총량적인 행복지수를 개발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복지수를 개발
- OECD 집행위원회가 논의한 국가 행복지수를 기초로 7개 영역, 26개 지표를 개발

<표 3-14> National Index of Wellbeing

영역	세부 지표
경제적 자원	■ 1인당 국민순소득(NNI), 가구가처분소득, 여가시간, 균등소득분배
자립	■ 고용률, 미취업 가구원 비율, 평균교육년수, 학업성취도
건강	■ 기대수명, 건강수명, 영아사망률, 잠재적 수명손실
사회적 연대	■ 자원봉사 참여율, 자살률, 감옥 수감자 비율, 범죄자 피해율
형평성	■ 지니계수, 상대빈곤율, 아동빈곤율, 노인빈곤율, 성별임금격차
환경	■ 이산화탄소 배출량, 수질정화시설 수혜인구, 쓰레기 배출량, 경지면적당 농약 사용량
생활만족	■ 주관적 생활만족도

### 3) 서울, 서울시민 행복지수

- 2006년, 서울시는 서울시 특성을 반영해 시민의 행복을 측정할 수 있는 행복지수를 개발
- 경제, 문화, 복지, 환경, 시민 등 5개 영역 37개 문항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요인분석하여 최종 8개 분야의 21개 문항으로 확정
  - 각 지표에 대해서는 주민이 5점 척도로 답변

<표 3-15> 서울시민 행복도 지표 조사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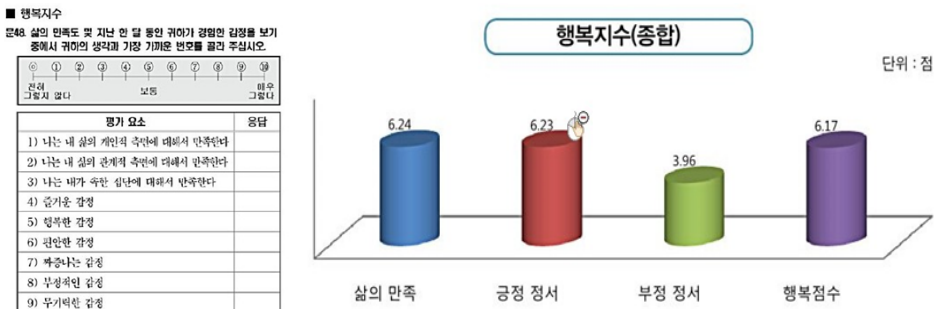
구 분	설문문항
영역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열려 있다.</li> <li>■ 서울의 물가는 비싸다</li> </ul>
	문화/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변에 다양한 문화생활과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li> <li>■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외국인이 찾아왔을 때 자랑스럽게 소개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li> <li>■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교육환경에 만족한다</li> </ul>
	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래 나에게 위기가 찾아오면 가족 외에 편안하게 도움을 받을 제도나 시설이 잘 마련되어 있다.</li> <li>■ 아이들을 위한 양육/보호 시설이 잘 마련되어 있다</li> <li>■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의 편의 및 보호시설이 잘 마련되어 있다.</li> <li>■ 서울시의 보건/복지 환경에 대해 만족한다</li> </ul>
	사회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밤에 거리를 다니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한다.</li> <li>■ 교통사고, 재해/재난 등의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낀다.</li> </ul>
	생태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다.</li> <li>■ 서울의 공기오염은 심각하다.</li> </ul>
	생활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편리하다.</li> <li>■ 이웃 및 주변사람들과 마음을 터놓고 지낼 공간이 충분하다.</li> <li>■ 주변에 생활편의시설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다.</li> </ul>
	시민 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매체를 이용해 얻는 데 불편함이 없다.</li> <li>■ 서울시는 시민들의 민원을 잘 수행한다.</li> <li>■ 서울시의 행정은 투명하다.</li> </ul>
	공동체적 삶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웃과 주변사람들과 마음을 터놓고 지낼 기회가 많다.</li> <li>■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잘 마련되어 있다.</li> </ul>

구분	설문문항
주관적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신은 건강상태는 어떻습니까?</li> <li>■ 서울시에 사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생각하십니까?</li> <li>■ 현재 행복하십니까?</li> </ul>

#### 4) 충청남도, 행복지수

- 충남의 사회조사는 12개 생활영역, 32개 관심영역, 153개 지표로 구성
  - ①삶의 만족(3문항) ②긍정 정서(3문항) ③부정 정서(3문항) 등 3개 분야의 행복상태를 주관적으로 평가한 후, [삶의 만족+긍정 정서-부정 정서]의 값을 10점 환산하여 ‘행복점수’ 산정
  -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행복지수도 높아지는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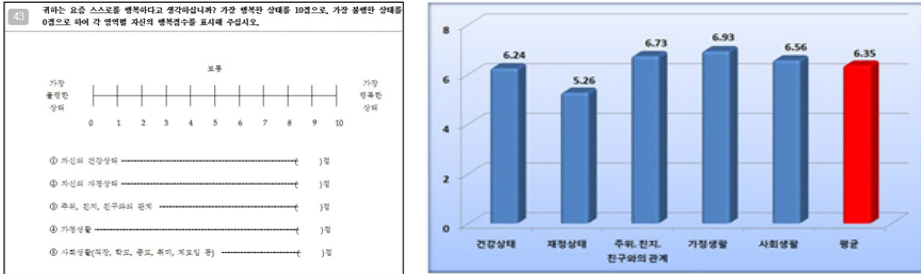
<그림 3-1> 충청남도 사회지표의 행복지수



#### 5) 전라북도, 사회지표의 행복지수

- 전북의 사회조사는 12개 부문, 53개 항목으로 조사
  - ①건강상태 ②재정상태 ③친지/친구관계 ④가정생활 ⑤사회생활 등 5개 분야의 행복상태를 10점 척도로 평가한 후, 이를 산술평균하여 종합적인 행복지수 산출(서울시와 동일)

<그림 3-2> 전라북도 사회지표의 행복지수



6) 기초자치단체(광명시, 하동군)의 행복지수

○ 광명시

- 심리적 안정감, 가족(결혼생활), 개인적 관계, 지역사회 생활, 일상생활, 경제적 안정, 일(공부), 건강상태, 주거상태 등 9개 분야 33개 항목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 조사

○ 하동군

- 건강만족도, 경제만족도, 가정생활 만족도, 친구관계 만족도, 직장·사회 생활 만족도, 교육환경 만족도, 문화·레저생활 만족도, 주거환경 만족도, 복지환경 만족도, 자연환경 만족도, 시민참여 만족도, 범죄·안전 만족도 등 12개 지표를 10점 척도로 측정하여 평균값 산출

<그림 3-3> 광명시 행복지수 산출



## 제3절 시사점

### 1. 국가 및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행복지수 선택

- 국가나 지역의 발전도, 구성원의 가치와 관심, 주민의 삶의 지향과 희망 등에 따라 동일한 잣대로 주민의 행복을 측정하는 일률성을 보이고 있지는 않음
- 과거에는 대개 국가나 지역의 발전도에 따라 가장 시급한 시대가치나 구구성원의 희망을 향상시키기 위한 내용을 지역주민의 행복을 재는 척도로 사용했던 경향이 있었으나 현재는 꼭히 그렇다고 말할 수도 없는 특성을 보이고 있음
  - 과거 가난과 빈곤, 굶주림 등 인간으로서의 생존 자체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던 시기에는 경제적 성장 등 객관적 지표에 초점을 두었던 적이 있음
    - ※ 소득이 어느 정도 증가하면 구성원의 행복수준이 이것에 비례해서 높아진다는 이스털린의 역설(Easterlin's Paradox)을 적용했다고도 할 수 있음
- 따라서 행복지수를 구성하는 부문과 부문을 대표하는 지표의 안출을 통한 행복지수의 산출에는 '보편적인 기준' 존재할 수 없으며, 국가나 지역이 처한 상황이나 구성원이 행복증진을 위해 핵심가치로 생각하는 요소를 중심으로 행복지수를 구성하고 있음
  - 지역적 특성, 문화적 차이, 가치관 등을 반영하여 어느 사회의 행복지수의 구성 및 측정은 구성원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나 그 사회의 지향에 의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시사

### 2. 다양한 조합의 지표를 사용한 행복지수의 측정

- 시기적으로는 측정이나 평가에 관심을 두어 현재 구성원의 행복이나 삶의 질을 측정하는 것에서부터 미래 전망의 관점에서 장래 중요해질 행복의 요

소를 포함해서 행복지수를 측정하는 부류까지 스펙트럼이 다양함

- UN의 World Happiness Report, 프랑스의 Gross National Happiness 등 대부분이 주로 현재의 행복지수를 측정하고 있음
- 반면, OECD의 Better Life Index를 포함해서 영국 신경재단의 Happy Planet Index 등은 장래 중요시될 요소를 포함해서 행복을 측정하는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음

○ 이전에 주로 측정도구도 사용했던 경제적 지표, 즉 국가나 지역의 총량적 성장에 기초해서 지역주민의 행복이나 삶의 질을 측정하는 방법은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음

- GDP, GNI, NNI, 경제후생지수(MEW) 등은 총량적 성장의 측정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장소의 번영(place's prosperity)과 그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번영(people's prosperity)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판단에서 주민행복을 측정하는 수단으로서의 유용성은 저하되고 있는 형편임을 알 수 있음

○ 기존의 사례들은 행복지수에 있어 크게 주관성을 강화시키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복합지표를 사용하는 부류와 그렇지 않고 주관적 지표를 사용하는 부류로 나눌 수 있음<sup>1)</sup>

- 주로 주관적 지표를 활용해서 행복을 측정하는 기존의 사례는 영국 신경재단의 Happy Planet Index(HPI), 프랑스의 Gross National Happiness, 부탄의 Gross National Happiness(GNH), 서울 시민행복지수, 충남 행복지수 등이 해당되고 있음
- 대다수가 복합지표를 사용하고 있는데, UN의 Human Development Index, OECD의 Better Life Index, 홍콩 삶의 질 지수, 우리나라 통계청 삶의 질 지수 등이 여기에 해당되고 있음

1) 100% 주관적인 측면만을 측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배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어 두 가지 부류로 구분하였음

&lt;표 3-16&gt; 기존 사례의 종합

구분	지표	비고
객관적 지표 위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DP, GNI, NNI, GRDP</li> <li>■ 경쟁력 지수, 경제후생지수(MEW) 등</li> <li>■ 총량적 성장 측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발전 국가</li> <li>- 빈곤국가</li> <li>- 주요목표가 경제성장</li> </ul>
주관적 지표 위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국 신경계재단, Happy Planet Index(HPI) : 주관적 삶의 만족도, 기대수명, 생태적 발자국 등</li> </ul>	- 유럽국가 대상 측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탄, Gross National Happiness(GNH) : 정신적 웰빙, 주관적 건강상태, 삶의 제반 요소에 대한 태도, 지역축제 기여도, 이웃에 대한 신뢰, 정부의 리더십에 대한 신뢰도 등</li> </ul>	- 명상 등 정신적 가치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랑스, Gross National Happiness(GNH) : 가정이나 일자리로부터 벗어나 휴식을 취할 수 없는 정도, 낡은 옷을 새옷으로 바꿀 수 없는 정도 등을 포함한 삶의 질, 재정적 제약, 건강, 공공생활에 대한 참여, 다른 사람과의 교류 등</li> </ul>	- 경제적 안전을 포함한 9개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WHO, WHOQOL : 신체적 건강, 심리적 건강, 자립심, 사회적 관계, 여가참여 기회, 정보습득의 기회, 종교 및 개인의 신념 등</li> </ul>	- 삶의 질 측정을 위한 주관적 지표개발 및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 서울시민행복지수: 경제, 문화 및 교육, 복지, 사회안전, 생태환경, 생활환경, 시민의 시정서비스 수준, 공동체 참여에 대한 만족도 등 21개 문항에 대한 주관적 조사 시행</li> </ul>	- 각 지표에 대해 5점 척도 질문
주관적 + 객관적 지표 위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OECD, Better Life Index : 물질적 삶의 조건-소득, 직업과 임금, 주거 등 주관적 삶의 질-건강상태, 여가, 사회적 관계 등</li> </ul>	- 주객관 11개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N, Human Development Index : 1인당 GDP, 기대수명, 관용, 인생선택의 자유, 사람에 대한 신뢰, 심리적인 상태 등</li> </ul>	- 경제적 성과+ 심리적 상태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NDP, Human Development Index : 출생시 기대여명, 성인 문자해독율, 교육기회, 1인당 국내 총생산 등</li> </ul>	- 국가소득 보다 주민후생 초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나라, 통계청 삶의 질 지수 : 물질적 조건, 교육, 건강, 문화 및 여가, 가족 및 공동체, 민주적 참여, 환경, 안전, 주관적 만족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5개 객관적 지표</li> <li>- 28개 주관적 지표</li> </ul>

### 3. 미래사회 가치를 반영한 구성원의 행복증진 지침의 기능

- 주관적 지표, 객관적 지표, 이들 모두를 활용한 복합지표로 행복지수를 측정하는 차이는 존재하고 있음
- 하지만, 구축 및 적용하고 있는 행복지수가 공동체 구성원의 삶의 질과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유용한 수단이자 미래 정책의 방향이 되고 있는 공통점을 보유하고 있음
  -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개개인을 세세하게 고려할 수 없는 거시적이고 총량적인 경제성장에서 개인의 주관적인 만족과 행복,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쪽으로 지수 측정의 트렌드가 변화됨이 확인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음
- 그런 측면에서 개발, 구축, 적용하고 있는 행복지수는 향후의 정책의 방향과 목표로서의 위치를 점하고 있는 측면이 강함
  - 행복지수를 측정, 적용하는 국가나 지역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것이 지수라는 단순한 결과의 산출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간 비교, 시계열적인 비교, 부문의 비교 등을 통해 구성원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나침반으로 활용되고 있기도 함

### 4. 삶의 여건과 주관적인 만족증진의 토대

- 보다 구체적으로 기존의 사례에서 적용하고 있는 행복지수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회와 여건 증진을 위한 척도와 지향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
  - 이는 주관적 삶의 질 및 행복증진의 기반이 되며, 이것이 반드시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주관성과 일치하지는 않지만 상당한 관련성을 보유
- 행복지수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삶의 질에 대한 주관성을 향상시키고 총체적 집단의 구성원으로서가 아닌, 개개인으로서의 행복 증진을 위한 질적인 측면의 주요한 고려요소가 되고 있음을 시사



- 삶의 여건이 기회요인이라고 한다면, 주관적 요인은 이들의 종합으로서의 성격을 보유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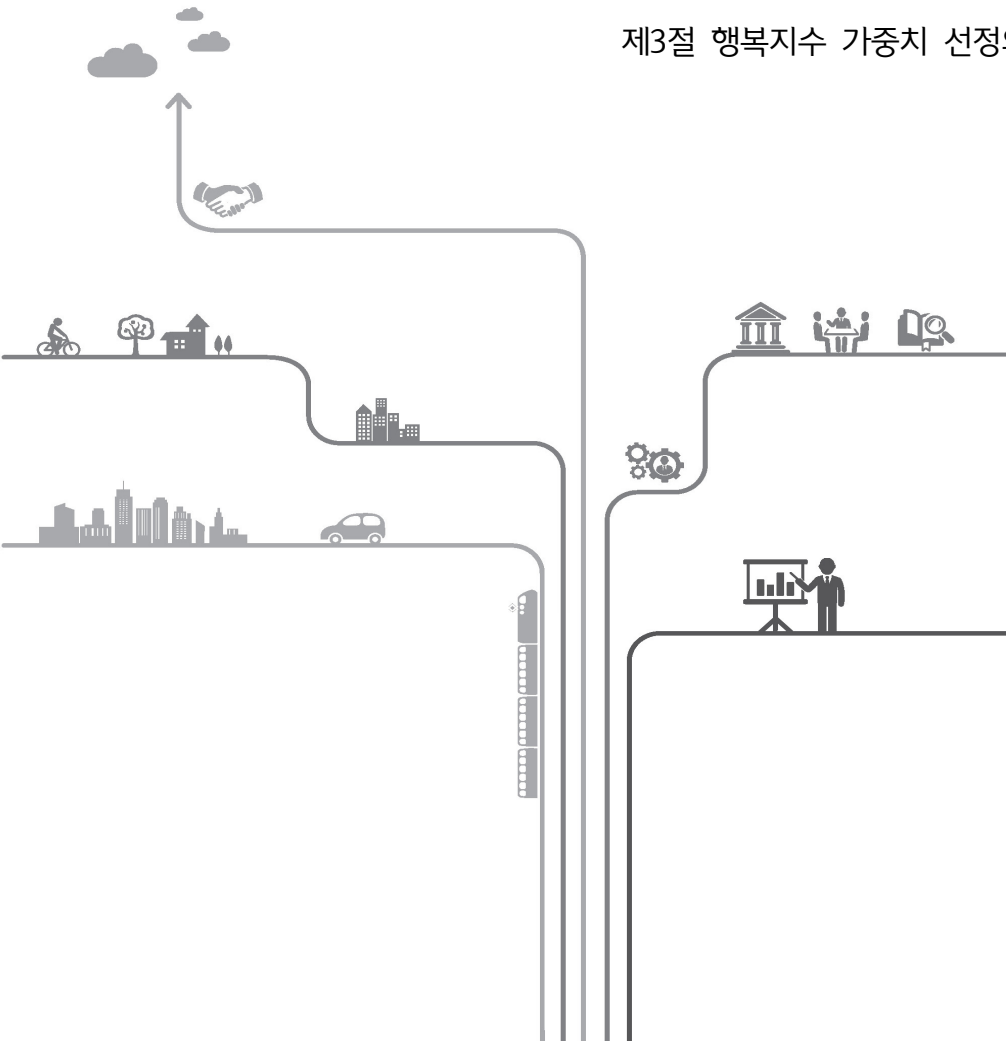
# 제4장

## 세종특별자치시 행복지수개발

제1절 접근방법

제2절 세종특별자치시 지표 분석

제3절 행복지수 가중치 선정의 준거 방안





## 제4장

## 세종특별자치시 행복지수개발

## 제1절 접근방법

## 1) 70개로 구성된 세종특별자치시 행복지표

- 지역주민 행복도 산출을 위한 행복도 지수는 객관적인 정량지표와 주관적인 정성지표로 구성
  - 객관적인 정량지표는 11개 부문 62개의 승인통계 지표로 구성
  - 주관적인 정성지표는 11개 부문 8개의 만족도 지표로 구성
- 양(+)적 및 부(-)적 지표의 혼용 활용
  -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주민 행복도 지수 도출을 위한 총 70개의 지표 중 55개의 지표는 양(+)적인 지표로 구성
  - 나머지 15개 지표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주민 행복도를 저감시키는 부(-)적인 지표로 구성

&lt;표 4-1&gt; 세종특별자치시 행복지수 지표 구성

부문	지표	성격	비고
1.인구	기대수명	+	
	생산가능인구	+	
	노령화지수	-	
	인구유입	+	
	인구유출	-	
	순이동	+	
	출생률	+	
	주민등록인구(남)	+	
	주민등록인구(여)	+	
	주민등록인구(총계)	+	
	2.고용노동임금	경제활동인구	+
교육정도별 경제활동인구(고졸이하)		-	
교육정도별 경제활동인구(대졸이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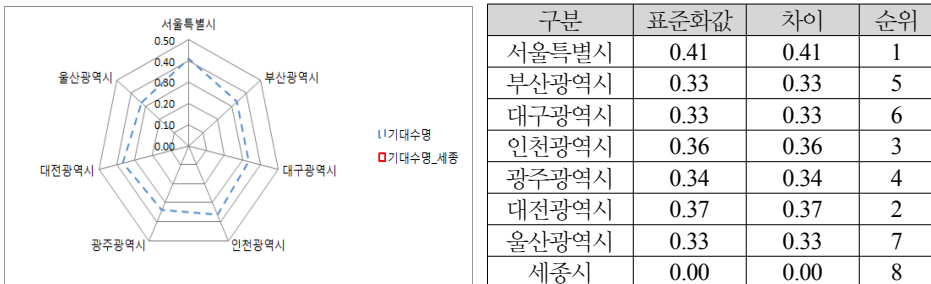
부문	지표	성격	비고
	취업자(남)	+	
	취업자(여)	+	
	취업자(총계)	+	
	교육정도별 취업자(고졸이하)	+/-	
	교육정도별 취업자(대졸이상)	+	
	산업별 취업자	+	
	사업체수	+	
	종사자수	+	
3.물가가계	가계 자산	+	
	가계 부채	-	
	민간아파트 분양가격(3.3㎡ 평균분양가격)	+	
	생활물가지수	-	
	소비자물가지수(지출목적별)	-	
	지가변동률	-	
4.보건사회복지	수술종류별 수술현황(계)	+	
	교통사고발생현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총괄	-	
	주관적 소득수준(사회조사 항목내)	+	정성
	소득만족도(사회조사 내)	+	정성
	고용 안정성(사회조사내, 노동파트)	+	정성
	근로여건 만족도(전반적인 만족도, 사회조사내)	+	정성
	학교생활 만족도(13세 이상 재학생, 사회조사내)	+	정성
	의료서비스 이용률(사회조사 내)	+	
	의료서비스 만족도(종합병원)	+	정성
	현재 체감환경(대기, 사회조사내)	-	
	현재 체감환경(수질, 사회조사내)	-	
	생활여건의 변화(전반적인 생활여건, 사회조사내)	+	정성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전반, 사회조사내)	+	정성
5.환경	미세먼지 대기오염도	-	
	아황산가스	-	
	이산화질소	-	
	상수도보급	+	
	하수도보급	+	
6.광공업에너지	생산액	+	
	부가가치	+	
	유형자산	+	

부문	지표	성격	비고
	사업체수	+	
	종사자수	+	
7.건설주택토지	주택보급률	+	
	임대주택건설실적	+	
8.교통정보통신	도로보급률	+	
	시도별 포장률	+	
9.도소매서비스	산업별 총괄	+	
	서비스업조사(산업별 분류)	+	
10.재정	재정자립도	+	
	GRDP(지역내총생산)	+	
	지역별예금(말잔)	+	
11.교육문화과학	중학교	+	
	고등학교	+	
	연구개발조직의 연구개발주체별 지역별 분포	+	
	공공도서관 좌석수	+	
	박물관수	+	
	미술관수	+	
	체육시설수	+	
	공연장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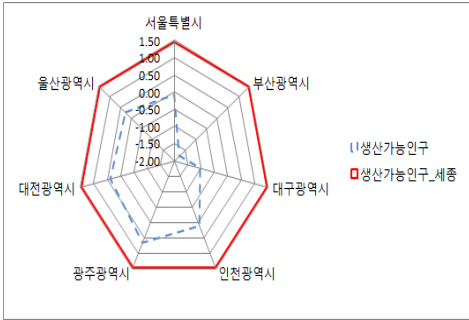
## 제2절 세종특별자치시 지표 분석

### 1. 인구부문

<그림 4-1> 기대수명 특광역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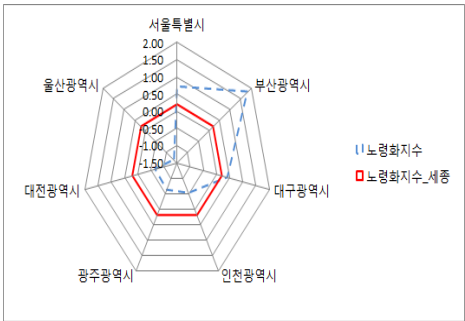


<그림 4-2> 생산가능인구 특광역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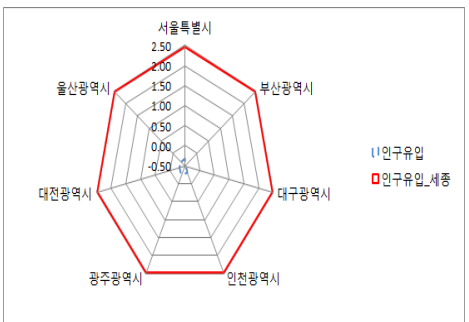
구분	표준화값	차이	순위
서울특별시	-0.08	-1.54	6
부산광역시	-1.77	-3.23	8
대구광역시	-1.03	-2.49	7
인천광역시	0.12	-1.34	5
광주광역시	0.66	-0.80	2
대전광역시	0.39	-1.07	3
울산광역시	0.27	-1.19	4
세종시	1.46	0.00	1

<그림 4-3> 노령화지수 특광역시 비교



구분	표준화값	차이	순위
서울특별시	0.72	0.52	2
부산광역시	1.83	1.63	1
대구광역시	0.41	0.21	3
인천광역시	-0.52	-0.72	5
광주광역시	-0.62	-0.82	6
대전광역시	-0.66	-0.86	7
울산광역시	-1.35	-1.55	8
세종시	0.20	0.00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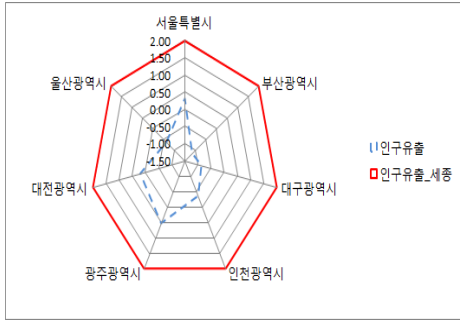
<그림 4-4> 인구유입 특광역시 비교



구분	표준화값	차이	순위
서울특별시	-0.32	-2.79	5
부산광역시	-0.48	-2.95	8
대구광역시	-0.46	-2.93	7
인천광역시	-0.31	-2.77	3
광주광역시	-0.23	-2.70	2
대전광역시	-0.31	-2.78	4
울산광역시	-0.35	-2.82	6
세종시	2.47	0.00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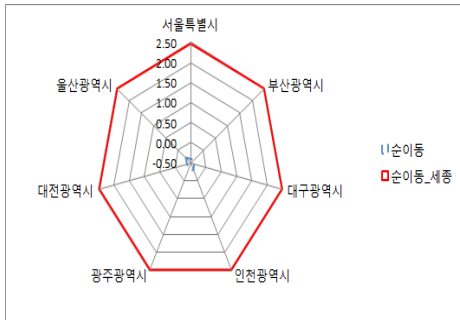


&lt;그림 4-5&gt; 인구유출 특광역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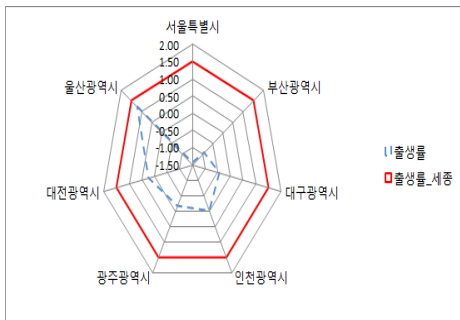
구분	표준화값	차이	순위
서울특별시	0.31	-1.68	3
부산광역시	-1.16	-3.15	8
대구광역시	-0.87	-2.86	7
인천광역시	-0.36	-2.35	5
광주광역시	0.53	-1.46	2
대전광역시	0.19	-1.80	4
울산광역시	-0.63	-2.62	6
세종시	1.99	0.00	1

&lt;그림 4-6&gt; 순이동 특광역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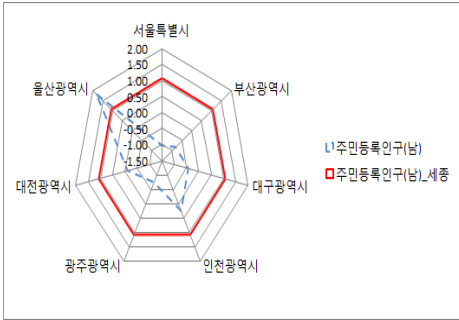
구분	표준화값	차이	순위
서울특별시	-0.41	-2.88	8
부산광역시	-0.37	-2.84	5
대구광역시	-0.39	-2.86	7
인천광역시	-0.29	-2.76	2
광주광역시	-0.34	-2.82	4
대전광역시	-0.38	-2.85	6
울산광역시	-0.30	-2.77	3
세종시	2.47	0.00	1

&lt;그림 4-7&gt; 출생률 특광역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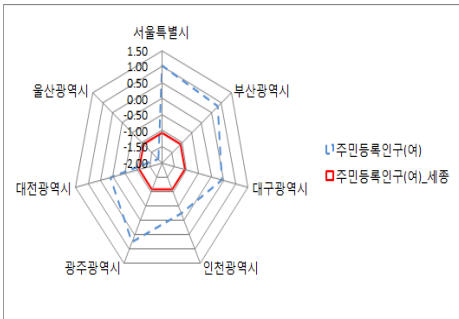
구분	표준화값	차이	순위
서울특별시	-1.44	-2.95	8
부산광역시	-0.93	-2.44	7
대구광역시	-0.44	-1.94	6
인천광역시	-0.01	-1.52	4
광주광역시	-0.16	-1.67	5
대전광역시	0.24	-1.27	3
울산광역시	1.23	-0.28	2
세종시	1.51	0.00	1

<그림 4-8> 주민등록인구(남) 특광역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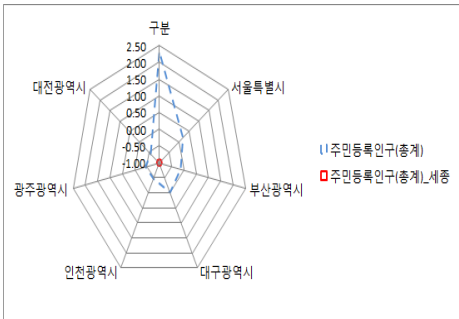
구분	표준화값	차이	순위
서울특별시	-1.03	-2.10	8
부산광역시	-0.82	-1.89	7
대구광역시	-0.43	-1.50	5
인천광역시	0.24	-0.83	3
광주광역시	-0.75	-1.82	6
대전광역시	-0.10	-1.17	4
울산광역시	1.82	0.75	1
세종시	1.07	0.00	2

<그림 4-9> 주민등록인구(여) 특광역시 비교



구분	표준화값	차이	순위
서울특별시	1.03	2.10	1
부산광역시	0.82	1.89	2
대구광역시	0.43	1.50	4
인천광역시	-0.24	0.83	6
광주광역시	0.75	1.82	3
대전광역시	0.10	1.17	5
울산광역시	-1.82	-0.75	8
세종시	-1.07	0.00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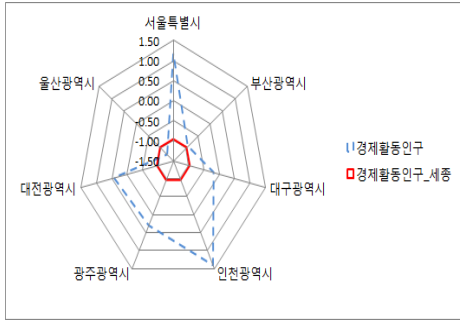
<그림 4-10> 주민등록인구(총계) 특광역시 비교



구분	표준화값	차이	순위
서울특별시	2.32	3.22	1
부산광역시	0.19	1.09	2
대구광역시	-0.13	0.76	4
인천광역시	-0.01	0.88	3
광주광역시	-0.46	0.43	6
대전광역시	-0.44	0.45	5
울산광역시	-0.56	0.33	7
세종시	-0.89	0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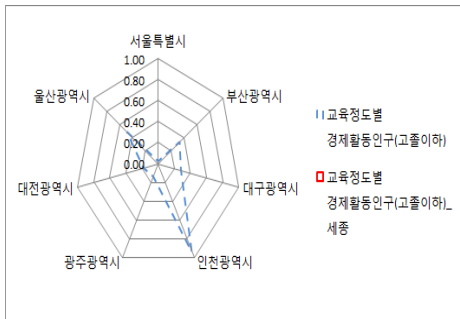
## 2. 고용노동임금부문

&lt;그림 4-11&gt; 경제활동인구 특광역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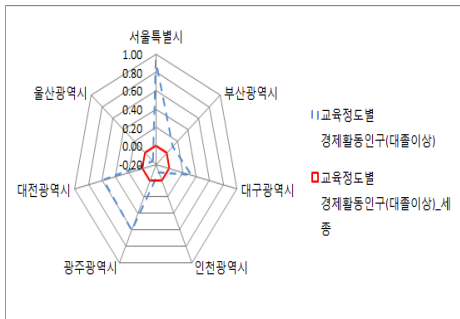
구분	표준화값	차이	순위
서울특별시	1.18	2.15	2
부산광역시	-0.91	0.05	6
대구광역시	-0.19	0.78	5
인천광역시	1.40	2.37	1
광주광역시	0.30	1.26	4
대전광역시	0.43	1.40	3
울산광역시	-1.25	-0.29	8
세종시	-0.96	0.00	7

&lt;그림 4-12&gt; 교육정도별 경제활동인구(고졸이하) 특광역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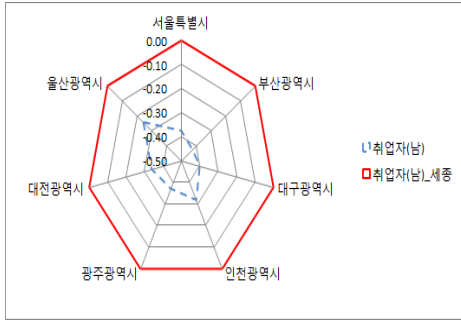
구분	표준화값	차이	순위
서울특별시	0.02	0.02	7
부산광역시	0.33	0.33	3
대구광역시	0.28	0.28	4
인천광역시	0.93	0.93	1
광주광역시	0.14	0.14	6
대전광역시	0.18	0.18	5
울산광역시	0.49	0.49	2
세종시	0.00	0.00	8

&lt;그림 4-13&gt; 교육정도별 경제활동인구(대졸이상) 특광역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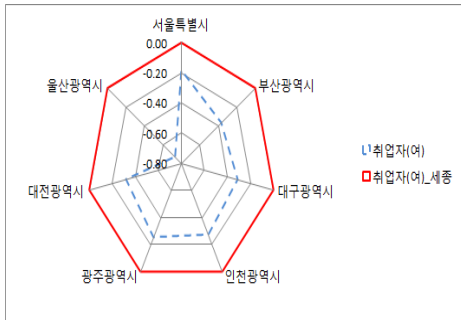
구분	표준화값	차이	순위
서울특별시	0.93	0.93	1
부산광역시	0.11	0.11	5
대구광역시	0.33	0.33	4
인천광역시	-0.10	-0.10	7
광주광역시	0.60	0.60	2
대전광역시	0.58	0.58	3
울산광역시	-0.15	-0.15	8
세종시	0.00	0.00	6

<그림 4-14> 취업자(남) 특광역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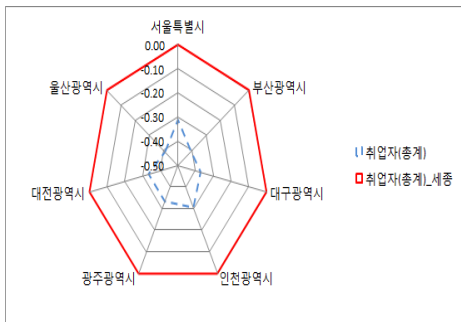
구분	표준화값	차이	순위
서울특별시	-0.38	-0.38	6
부산광역시	-0.43	-0.43	8
대구광역시	-0.40	-0.40	7
인천광역시	-0.32	-0.32	3
광주광역시	-0.37	-0.37	5
대전광역시	-0.34	-0.34	4
울산광역시	-0.24	-0.24	2
세종시	0.00	0.00	1

<그림 4-15> 취업자(여) 특광역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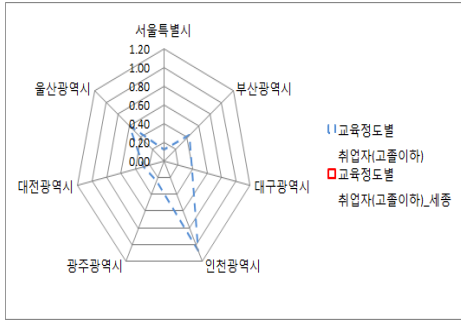
구분	표준화값	차이	순위
서울특별시	-0.18	-0.18	2
부산광역시	-0.37	-0.37	7
대구광역시	-0.31	-0.31	5
인천광역시	-0.27	-0.27	4
광주광역시	-0.25	-0.25	3
대전광역시	-0.32	-0.32	6
울산광역시	-0.73	-0.73	8
세종시	0.00	0.00	1

<그림 4-16> 취업자(총계) 특광역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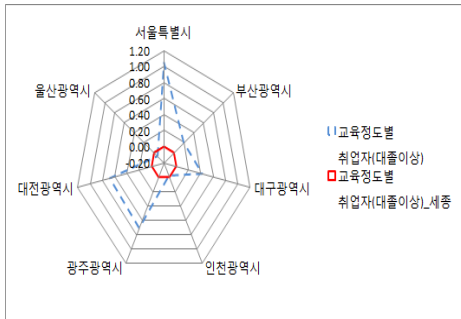
구분	표준화값	차이	순위
서울특별시	-0.31	-0.31	3
부산광역시	-0.41	-0.41	7
대구광역시	-0.37	-0.37	6
인천광역시	-0.30	-0.30	2
광주광역시	-0.33	-0.33	4
대전광역시	-0.33	-0.33	5
울산광역시	-0.41	-0.41	8
세종시	0.00	0.00	1

<그림 4-17> 교육정도별 취업자(고졸이하) 특광역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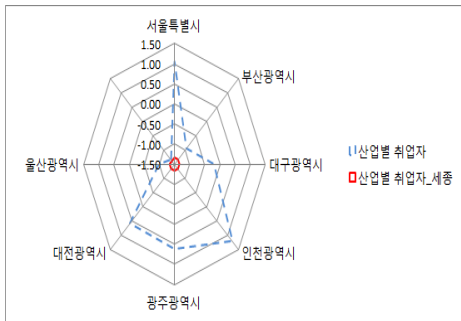
구분	표준화값	차이	순위
서울특별시	0.12	0.12	7
부산광역시	0.44	0.44	3
대구광역시	0.39	0.39	4
인천광역시	1.07	1.07	1
광주광역시	0.24	0.24	6
대전광역시	0.29	0.29	5
울산광역시	0.60	0.60	2
세종시	0.00	0.00	8

<그림 4-18> 교육정도별 취업자(대졸이상) 특광역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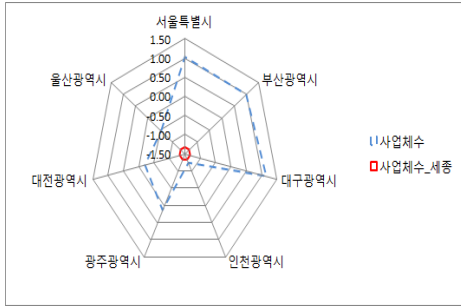
구분	표준화값	차이	순위
서울특별시	1.05	1.05	1
부산광역시	0.20	0.20	5
대구광역시	0.42	0.42	4
인천광역시	-0.02	-0.02	7
광주광역시	0.71	0.71	2
대전광역시	0.68	0.68	3
울산광역시	-0.07	-0.07	8
세종시	0.00	0.00	6

<그림 4-19> 산업별 취업자 특광역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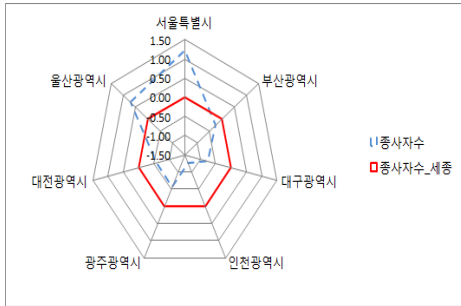
구분	표준화값	차이	순위
서울특별시	1.06	2.39	2
부산광역시	-0.95	0.39	6
대구광역시	-0.20	1.14	5
인천광역시	1.21	2.55	1
광주광역시	0.62	1.95	3
대전광역시	0.59	1.93	4
울산광역시	-0.99	0.35	7
세종시	-1.34	0.00	8

<그림 4-20> 사업체수 특광역시 비교



구분	표준화값	차이	순위
서울특별시	1.03	2.36	2
부산광역시	0.99	2.32	3
대구광역시	1.15	2.48	1
인천광역시	-1.23	0.09	7
광주광역시	0.14	1.47	4
대전광역시	-0.20	1.13	5
울산광역시	-0.54	0.79	6
세종시	-1.33	0.00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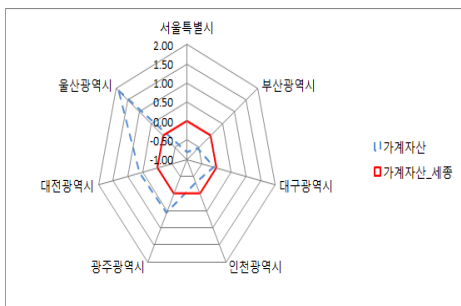
<그림 4-21> 종사자수 특광역시 비교



구분	표준화값	차이	순위
서울특별시	1.23	1.23	1
부산광역시	-0.25	-0.25	4
대구광역시	-0.75	-0.75	7
인천광역시	-1.26	-1.26	8
광주광역시	-0.56	-0.56	5
대전광역시	-0.57	-0.57	6
울산광역시	0.71	0.71	2
세종시	0.00	0.00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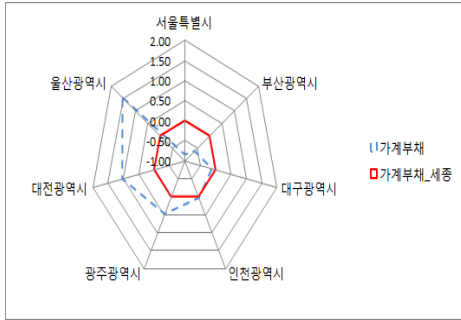
### 3. 물가 및 가계 부문

<그림 4-22> 가계자산 특광역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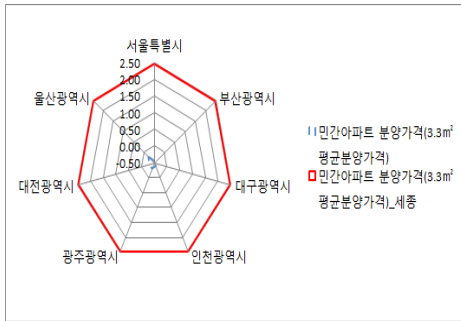
구분	표준화값	차이	순위
서울특별시	-0.82	-0.82	8
부산광역시	-0.54	-0.54	7
대구광역시	-0.08	-0.08	5
인천광역시	-0.32	-0.32	6
광주광역시	0.56	0.56	3
대전광역시	0.61	0.61	2
울산광역시	1.89	1.89	1
세종시	0.00	0.00	4

<그림 4-23> 가계부채 특광역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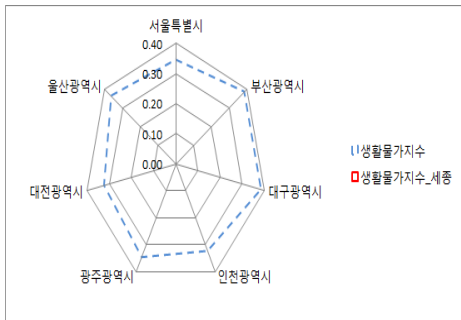
구분	표준화값	차이	순위
서울특별시	-0.85	-0.85	8
부산광역시	-0.61	-0.61	7
대구광역시	-0.12	-0.12	6
인천광역시	0.03	0.03	4
광주광역시	0.48	0.48	3
대전광역시	1.04	1.04	2
울산광역시	1.53	1.53	1
세종시	0.00	0.00	5

<그림 4-24> 민간아파트 분양가격(3.3㎡ 평균분양가격) 특광역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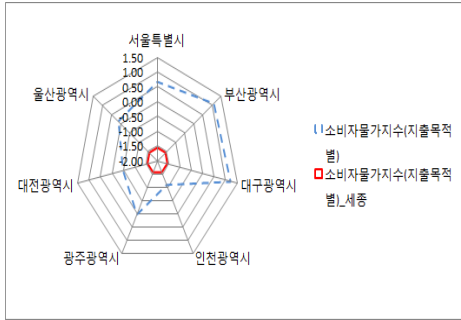
구분	표준화값	차이	순위
서울특별시	-0.45	-2.92	8
부산광역시	-0.42	-2.89	7
대구광역시	-0.39	-2.86	6
인천광역시	-0.39	-2.85	5
광주광역시	-0.30	-2.77	3
대전광역시	-0.31	-2.77	4
울산광역시	-0.21	-2.68	2
세종시	2.47	0.00	1

<그림 4-25> 생활물가지수 특광역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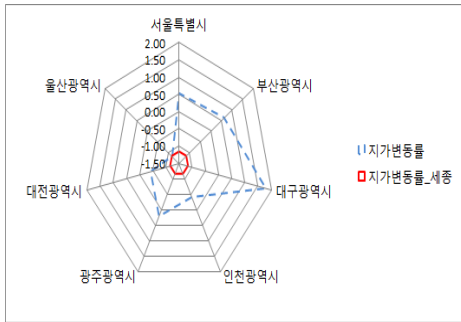
구분	표준화값	차이	순위
서울특별시	0.35	0.35	4
부산광역시	0.39	0.39	1
대구광역시	0.39	0.39	2
인천광역시	0.32	0.32	7
광주광역시	0.35	0.35	5
대전광역시	0.32	0.32	6
울산광역시	0.36	0.36	3
세종시	0.00	0.00	8

<그림 4-26> 소비자물가지수(지출목적별) 특광역시 비교



구분	표준화값	차이	순위
서울특별시	0.66	2.23	3
부산광역시	1.09	2.66	2
대구광역시	1.21	2.78	1
인천광역시	-1.09	0.48	7
광주광역시	0.03	1.59	5
대전광역시	-0.49	1.08	6
울산광역시	0.14	1.70	4
세종시	-1.57	0.00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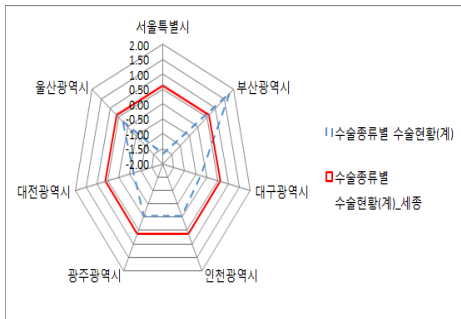
<그림 4-27> 지가변동률 특광역시 비교



구분	표준화값	차이	순위
서울특별시	0.53	1.69	3
부산광역시	0.62	1.79	2
대구광역시	1.79	2.95	1
인천광역시	-0.40	0.76	5
광주광역시	0.21	1.37	4
대전광역시	-0.42	0.74	6
울산광역시	-1.18	-0.02	8
세종시	-1.16	0.00	7

#### 4. 보건사회복지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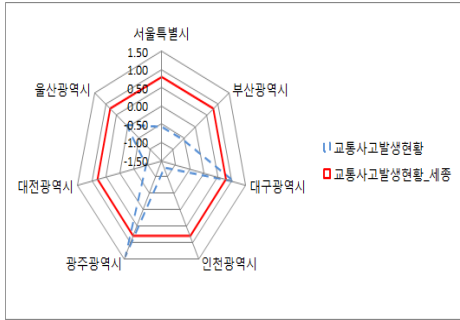
<그림 4-28> 수술종류별 수술현황(계) 특광역시 비교



구분	표준화값	차이	순위
서울특별시	-1.67	-2.29	8
부산광역시	1.80	1.17	1
대구광역시	-0.27	-0.89	6
인천광역시	-0.05	-0.67	5
광주광역시	-0.04	-0.67	4
대전광역시	-0.66	-1.29	7
울산광역시	0.28	-0.34	3
세종시	0.62	0.00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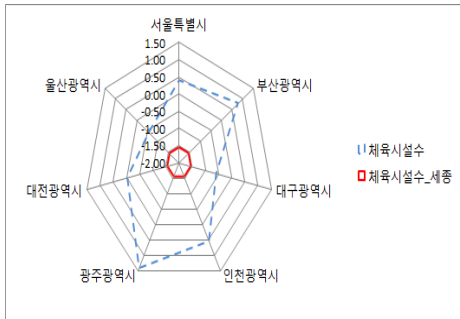


&lt;그림 4-29&gt; 교통사고발생현황 특광역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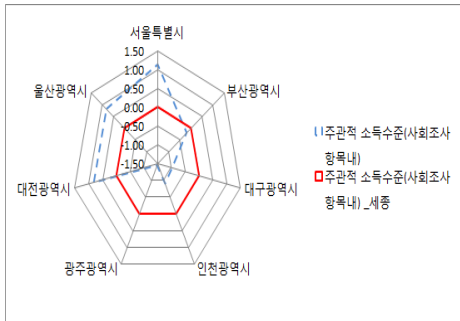
구분	표준화값	차이	순위
서울특별시	-0.57	-1.37	6
부산광역시	-0.57	-1.36	5
대구광역시	1.09	0.29	2
인천광역시	-1.28	-2.08	8
광주광역시	1.41	0.62	1
대전광역시	-0.94	-1.74	7
울산광역시	0.07	-0.72	4
세종시	0.79	0.00	3

&lt;그림 4-30&gt; 국민기초생활수급자총괄 특광역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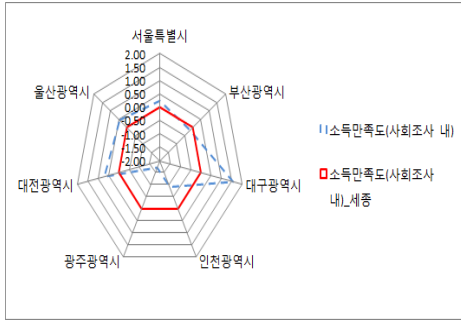
구분	표준화값	차이	순위
서울특별시	-0.92	-0.74	7
부산광역시	0.86	1.04	3
대구광역시	1.03	1.21	2
인천광역시	-0.43	-0.25	6
광주광역시	1.24	1.42	1
대전광역시	0.00	0.18	4
울산광역시	-1.61	-1.43	8
세종시	-0.18	0.00	5

&lt;그림 4-31&gt; 주관적 소득수준(사회조사 항목내) 특광역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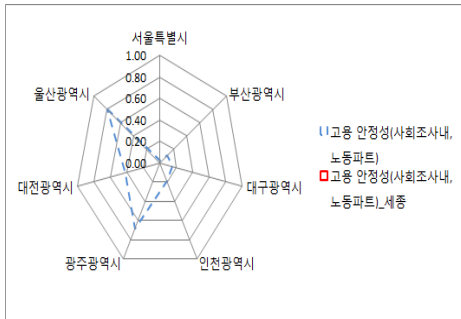
구분	표준화값	차이	순위
서울특별시	1.13	1.13	1
부산광역시	-0.19	-0.19	5
대구광역시	-0.97	-0.97	7
인천광역시	-0.89	-0.89	6
광주광역시	-1.44	-1.44	8
대전광역시	0.82	0.82	2
울산광역시	0.82	0.82	2
세종시	0.00	0.00	4

<그림 4-32> 소득만족도(사회조사 내) 특광역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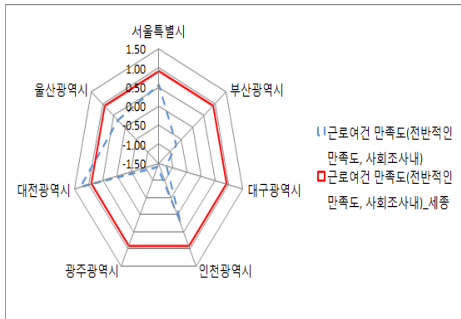
구분	표준화값	차이	순위
서울특별시	0.23	0.23	4
부산광역시	-0.17	-0.17	6
대구광역시	1.57	1.57	1
인천광역시	-0.90	-0.90	7
광주광역시	-1.71	-1.71	8
대전광역시	0.70	0.70	2
울산광역시	0.44	0.44	3
세종시	0.00	0.00	5

<그림 4-33> 고용 만족도(사회조사내, 노동파트) 특광역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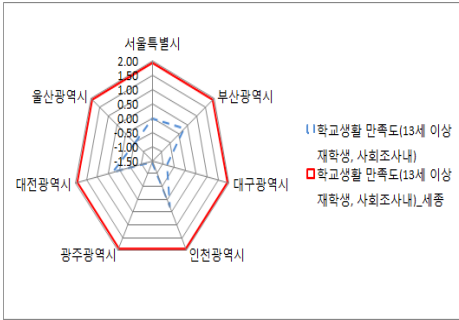
구분	표준화값	차이	순위
서울특별시	0.02	0.02	7
부산광역시	0.11	0.11	6
대구광역시	0.15	0.15	5
인천광역시	0.19	0.19	4
광주광역시	0.68	0.68	2
대전광역시	0.42	0.42	3
울산광역시	0.80	0.80	1
세종시	0.00	0.00	8

<그림 4-34> 근로여건 만족도(전반적인 만족도, 사회조사내) 특광역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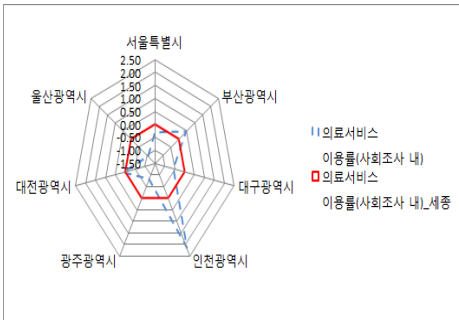
구분	표준화값	차이	순위
서울특별시	0.56	-0.36	3
부산광역시	-0.73	-1.64	6
대구광역시	-1.24	-2.15	7
인천광역시	0.26	-0.66	5
광주광역시	-1.39	-2.30	8
대전광역시	1.30	0.39	1
울산광역시	0.32	-0.60	4
세종시	0.92	0.00	2

<그림 4-35> 학교생활 만족도(13세 이상 재학생, 사회조사내) 특광역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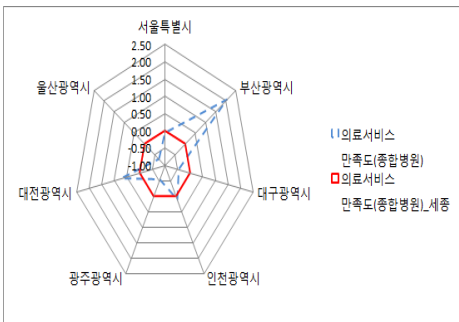
구분	표준화값	차이	순위
서울특별시	-0.03	-1.95	5
부산광역시	0.30	-1.62	2
대구광역시	-0.84	-2.76	7
인천광역시	0.29	-1.63	4
광주광역시	-1.45	-3.37	8
대전광역시	0.30	-1.62	2
울산광역시	-0.51	-2.42	6
세종시	1.92	0.00	1

<그림 4-36> 의로서비스 이용률(사회조사 내) 특광역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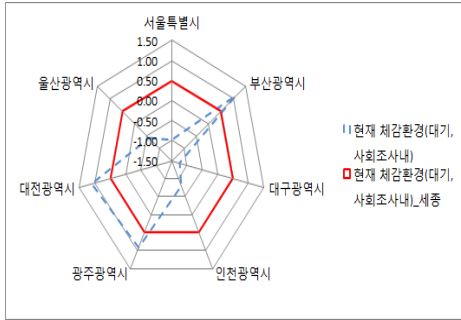
구분	표준화값	차이	순위
서울특별시	-0.31	-0.31	5
부산광역시	0.47	0.47	2
대구광역시	-0.57	-0.57	6
인천광역시	2.13	2.13	1
광주광역시	-0.82	-0.82	7
대전광역시	0.10	0.10	3
울산광역시	-1.07	-1.07	8
세종시	0.00	0.00	4

<그림 4-37> 의로서비스 만족도(종합병원) 특광역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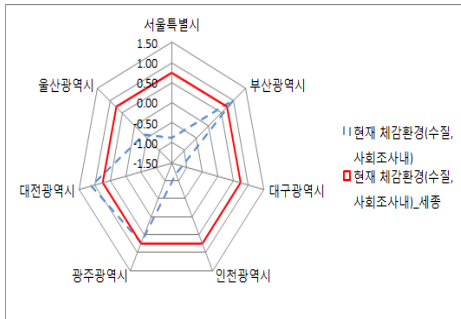
구분	표준화값	차이	순위
서울특별시	-0.06	-0.06	5
부산광역시	2.06	2.06	1
대구광역시	-0.45	-0.45	6
인천광역시	0.11	0.11	3
광주광역시	-0.54	-0.54	7
대전광역시	0.72	0.72	2
울산광역시	-0.71	-0.71	8
세종시	0.00	0.00	4

<그림 4-38> 현재 체감환경(대기, 사회조사내) 특광역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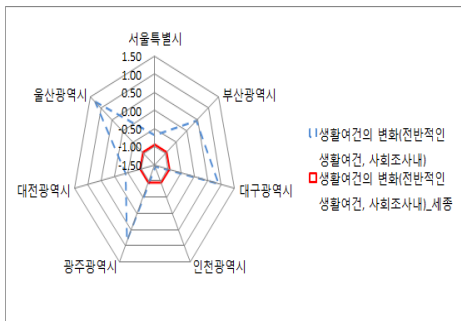
구분	표준화값	차이	순위
서울특별시	-0.98	-1.47	7
부산광역시	1.10	0.62	1
대구광역시	-1.24	-1.73	8
인천광역시	-0.80	-1.28	6
광주광역시	0.92	0.43	3
대전광역시	1.10	0.62	1
울산광역시	-0.59	-1.08	5
세종시	0.49	0.00	4

<그림 4-39> 현재 체감환경(수질, 사회조사내) 특광역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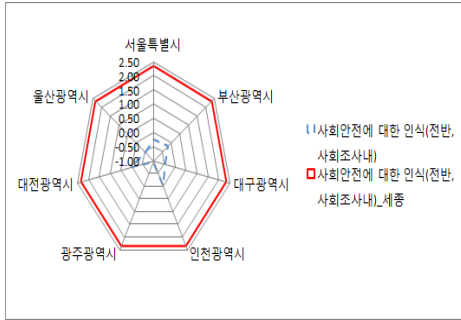
구분	표준화값	차이	순위
서울특별시	-0.88	-1.63	6
부산광역시	1.01	0.26	2
대구광역시	-1.15	-1.89	7
인천광역시	-1.19	-1.94	8
광주광역시	0.72	-0.02	4
대전광역시	1.12	0.37	1
울산광역시	-0.38	-1.12	5
세종시	0.75	0.00	3

<그림 4-40> 생활여건의 변화(전반적인 생활여건, 사회조사내) 특광역시 비교



구분	표준화값	차이	순위
서울특별시	-0.68	0.25	6
부산광역시	0.44	1.39	4
대구광역시	0.89	1.84	2
인천광역시	-1.44	-0.49	8
광주광역시	0.84	1.79	3
대전광역시	-0.40	0.54	5
울산광역시	1.29	2.24	1
세종시	-0.94	0	7

<그림 4-41>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전반, 사회조사내) 특광역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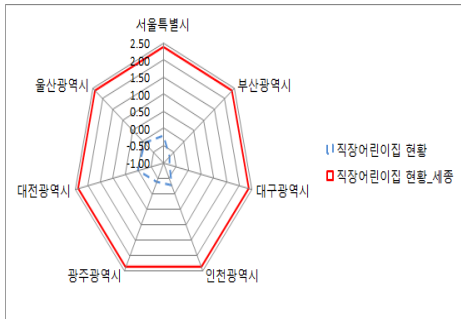
구분	표준화값	차이	순위
서울특별시	-0.25	-2.59	5
부산광역시	-0.17	-2.51	4
대구광역시	-0.46	-2.81	6
인천광역시	-0.01	-2.35	3
광주광역시	-0.94	-3.29	8
대전광역시	0.03	-2.30	2
울산광역시	-0.53	-2.87	7
세종시	2.34	0	1

<그림 4-42> 어린이집 현황 특광역시 비교



구분	표준화값	차이	순위
서울특별시	-0.69	-2.53	6
부산광역시	-1.14	-2.99	8
대구광역시	-0.83	-2.67	7
인천광역시	-0.17	-2.01	5
광주광역시	0.05	-1.80	3
대전광역시	1.04	-0.80	2
울산광역시	-0.10	-1.95	4
세종시	1.84	0.00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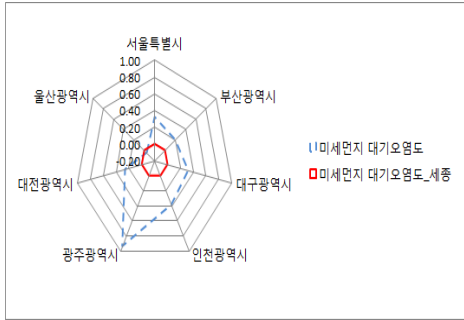
<그림 4-43> 직장어린이집 현황 특광역시 비교



구분	표준화값	차이	순위
서울특별시	-0.21	-2.59	4
부산광역시	-0.70	-3.08	7
대구광역시	-0.76	-3.14	8
인천광역시	-0.27	-2.65	5
광주광역시	-0.38	-2.76	6
대전광역시	0.01	-2.37	2
울산광역시	-0.08	-2.46	3
세종시	2.38	0.00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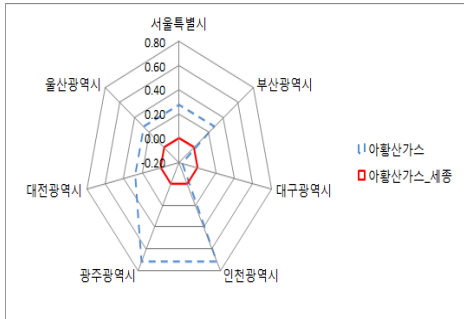
## 5. 환경 부문

<그림 4-44> 미세먼지 대기오염도 특광역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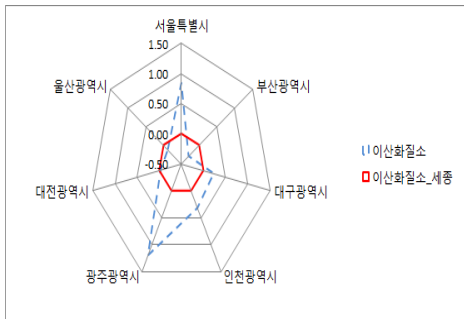
구분	표준화값	차이	순위
서울특별시	0.32	0.32	3
부산광역시	0.20	0.20	6
대구광역시	0.32	0.32	3
인천광역시	0.38	0.38	2
광주광역시	0.94	0.94	1
대전광역시	0.26	0.26	5
울산광역시	-0.05	-0.05	8
세종시	0.00	0.00	7

<그림 4-45> 아황산가스 특광역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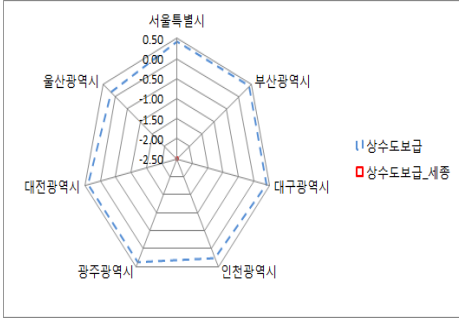
구분	표준화값	차이	순위
서울특별시	0.28	0.28	3
부산광역시	0.28	0.28	3
대구광역시	-0.17	-0.17	8
인천광역시	0.72	0.72	1
광주광역시	0.72	0.72	1
대전광역시	0.28	0.28	3
울산광역시	0.28	0.28	3
세종시	0.00	0.00	7

<그림 4-46> 이산화질소 특광역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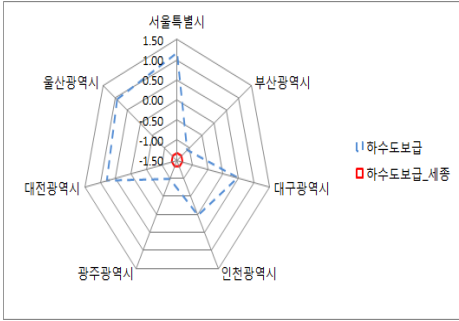
구분	표준화값	차이	순위
서울특별시	0.85	0.85	2
부산광역시	-0.30	-0.30	8
대구광역시	0.23	0.23	4
인천광역시	0.32	0.32	3
광주광역시	1.20	1.20	1
대전광역시	-0.03	-0.03	6
울산광역시	-0.12	-0.12	7
세종시	0.00	0.00	5

<그림 4-47> 상수도 보급 특광역시 비교



구분	표준화값	차이	순위
서울특별시	0.42	2.89	1
부산광역시	0.42	2.88	2
대구광역시	0.41	2.87	3
인천광역시	0.26	2.72	6
광주광역시	0.37	2.83	5
대전광역시	0.39	2.86	4
울산광역시	0.17	2.63	7
세종시	-2.46	0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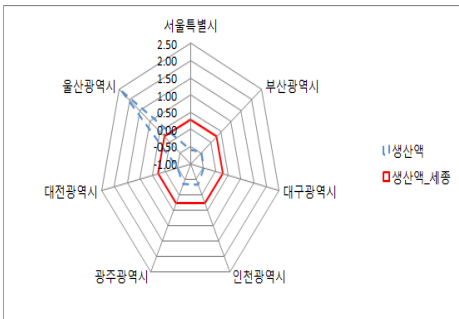
<그림 4-48> 하수도 보급 특광역시 비교



구분	표준화값	차이	순위
서울특별시	1.17	2.49	1
부산광역시	-1.09	0.23	7
대구광역시	0.47	1.79	4
인천광역시	0.02	1.35	5
광주광역시	-0.97	0.34	6
대전광역시	0.78	2.11	3
울산광역시	0.93	2.25	2
세종시	-1.32	0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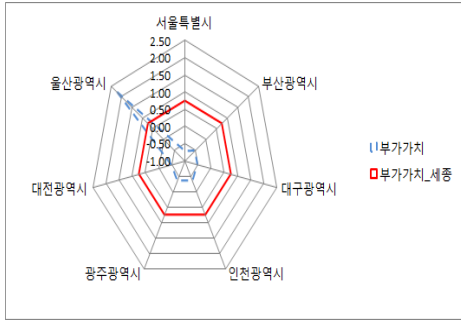
## 6. 광공업에너지 부문

<그림 4-49> 생산액 특광역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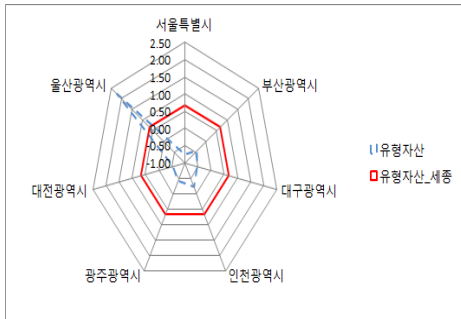
구분	표준화값	차이	순위
서울특별시	-0.60	-0.88	8
부산광역시	-0.46	-0.74	5
대구광역시	-0.47	-0.75	6
인천광역시	-0.32	-0.60	3
광주광역시	-0.34	-0.62	4
대전광역시	-0.48	-0.76	7
울산광역시	2.38	2.10	1
세종시	0.28	0.00	2

<그림 4-50> 부가가치 특광역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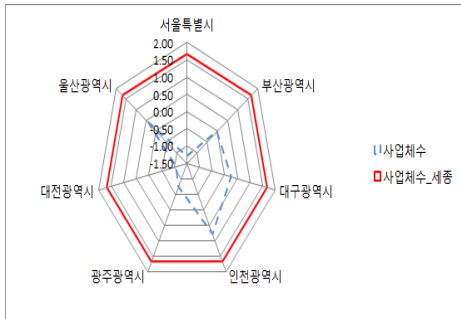
구분	표준화값	차이	순위
서울특별시	-0.72	-1.47	8
부산광역시	-0.53	-1.28	7
대구광역시	-0.53	-1.27	6
인천광역시	-0.35	-1.10	3
광주광역시	-0.36	-1.10	4
대전광역시	-0.48	-1.23	5
울산광역시	2.21	1.46	1
세종시	0.75	0.00	2

<그림 4-51> 유형자산 특광역시 비교



구분	표준화값	차이	순위
서울특별시	-0.76	-1.43	8
부산광역시	-0.44	-1.10	5
대구광역시	-0.53	-1.20	6
인천광역시	-0.22	-0.88	3
광주광역시	-0.41	-1.08	4
대전광역시	-0.55	-1.21	7
울산광역시	2.23	1.56	1
세종시	0.67	0.00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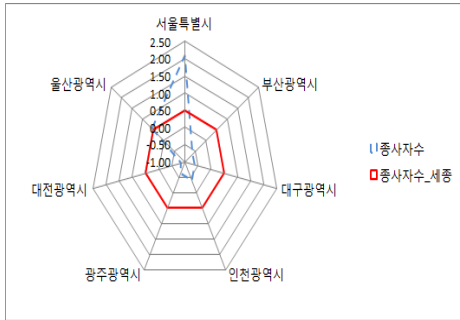
<그림 4-52> 사업체수 특광역시 비교



구분	표준화값	차이	순위
서울특별시	-1.29	-2.96	8
부산광역시	-0.02	-1.69	5
대구광역시	0.25	-1.42	4
인천광역시	0.79	-0.88	2
광주광역시	-0.74	-2.41	6
대전광역시	-1.07	-2.74	7
울산광역시	0.41	-1.26	3
세종시	1.67	0.00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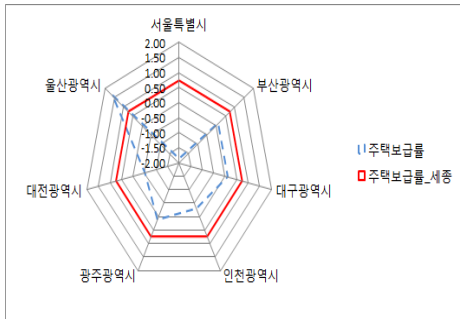
&lt;그림 4-53&gt; 종사자수 특광역시 비교



구분	표준화값	차이	순위
서울특별시	2.09	1.60	1
부산광역시	-0.64	-1.13	7
대구광역시	-0.63	-1.12	6
인천광역시	-0.39	-0.89	4
광주광역시	-0.62	-1.11	5
대전광역시	-0.85	-1.34	8
울산광역시	0.55	0.06	2
세종시	0.49	0.00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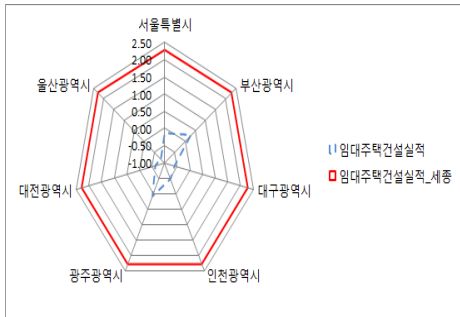
## 7. 건설주택토지 부문

&lt;그림 4-54&gt; 주택보급률 특광역시 비교



구분	표준화값	차이	순위
서울특별시	-1.87	-2.60	8
부산광역시	0.11	-0.63	3
대구광역시	0.11	-0.63	3
인천광역시	-0.30	-1.04	6
광주광역시	0.11	-0.63	3
대전광역시	-0.51	-1.25	7
울산광역시	1.61	0.87	1
세종시	0.74	0.00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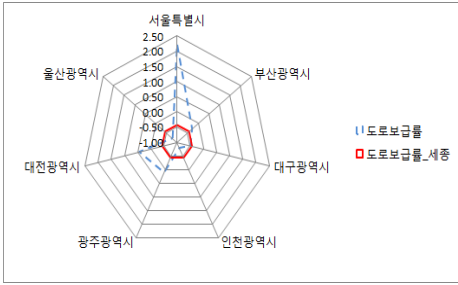
&lt;그림 4-55&gt; 임대주택건설실적 특광역시 비교



구분	표준화값	차이	순위
서울특별시	-0.14	-2.42	4
부산광역시	0.29	-1.99	2
대구광역시	-0.61	-2.89	6
인천광역시	-0.48	-2.76	5
광주광역시	0.09	-2.20	3
대전광역시	-0.63	-2.92	7
울산광역시	-0.82	-3.10	8
세종시	2.29	0.00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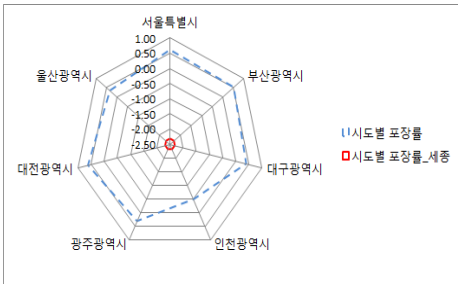
## 8. 교통정보통신 부문

<그림 4-56> 도로보급률 특광역시 비교



구분	표준화값	차이	순위
서울특별시	2.24	2.67	1
부산광역시	-0.28	0.14	4
대구광역시	-0.48	-0.05	6
인천광역시	-0.79	-0.35	8
광주광역시	0.11	0.54	3
대전광역시	0.43	0.87	2
울산광역시	-0.78	-0.35	7
세종시	-0.43	0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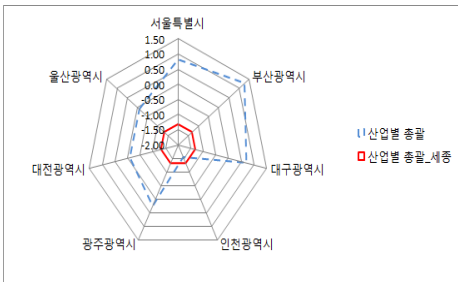
<그림 4-57> 시도별포장률 특광역시 비교



구분	표준화값	차이	순위
서울특별시	0.61	2.93	1
부산광역시	0.51	2.83	3
대구광역시	0.39	2.71	4
인천광역시	-0.48	1.83	7
광주광역시	0.31	2.63	6
대전광역시	0.61	2.93	1
울산광역시	0.34	2.65	5
세종시	-2.31	0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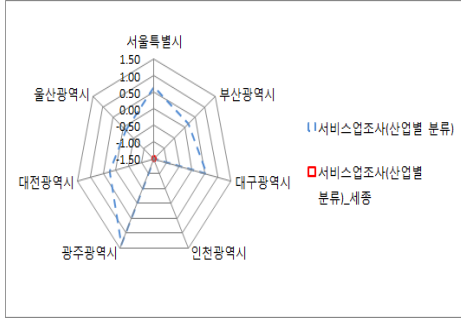
## 9. 도소매서비스 부문

<그림 4-58> 산업별 총괄 특광역시 비교



구분	표준화값	차이	순위
서울특별시	0.82	2.14	2
부산광역시	1.27	2.60	1
대구광역시	0.70	2.02	3
인천광역시	-1.54	-0.22	8
광주광역시	0.26	1.58	4
대전광역시	-0.09	1.23	5
울산광역시	-0.10	1.23	6
세종시	-1.32	0.00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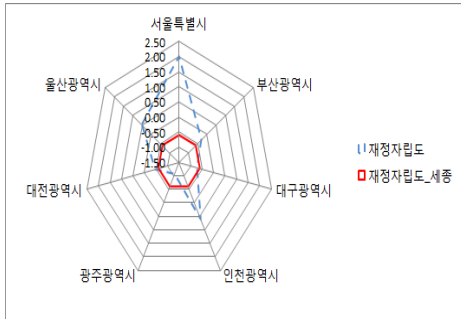
<그림 4-59> 서비스업조사(산업별 분류) 특광역시 비교



구분	표준화값	차이	순위
서울특별시	0.66	2.08	2
부산광역시	0.18	1.60	5
대구광역시	0.57	1.99	3
인천광역시	-1.49	-0.07	8
광주광역시	1.38	2.80	1
대전광역시	0.24	1.66	4
울산광역시	-0.12	1.30	6
세종시	-1.42	0.00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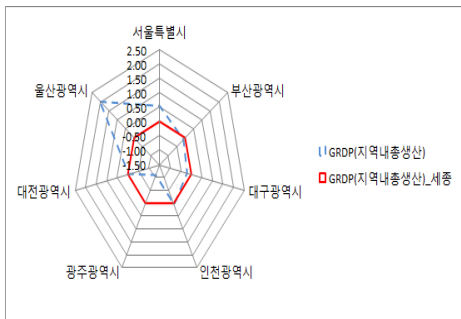
## 10. 재정 부문

<그림 4-60> 재정자립도 특광역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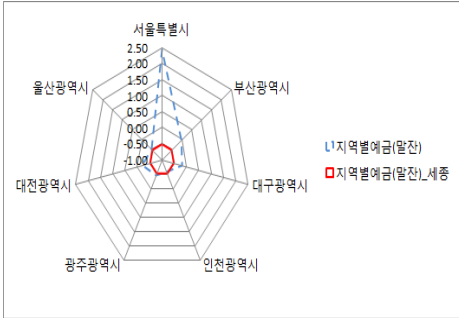
구분	표준화값	차이	순위
서울특별시	2.01	2.62	1
부산광역시	-0.29	0.31	4
대구광역시	-0.72	-0.12	7
인천광역시	0.61	1.21	2
광주광역시	-1.06	-0.46	8
대전광역시	-0.46	0.15	5
울산광역시	0.51	1.11	3
세종시	-0.60	0.00	6

<그림 4-61> GRDP(지역내총생산) 특광역시 비교



구분	표준화값	차이	순위
서울특별시	0.54	0.54	2
부산광역시	-0.10	-0.10	6
대구광역시	-0.20	-0.20	7
인천광역시	0.05	0.05	3
광주광역시	-1.09	-1.09	8
대전광역시	-0.03	-0.03	5
울산광역시	2.02	2.02	1
세종시	0.00	0.00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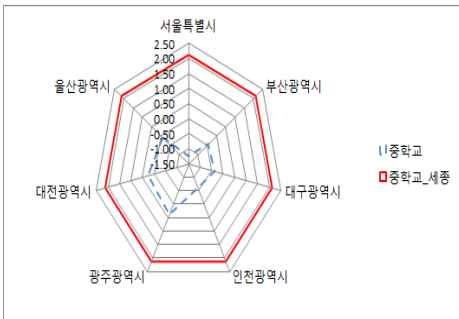
<그림 4-62> 지역별예금(말잔) 특광역시 비교



구분	표준화값	차이	순위
서울특별시	2.43	2.95	1
부산광역시	-0.02	0.50	2
대구광역시	-0.18	0.34	3
인천광역시	-0.58	-0.06	8
광주광역시	-0.46	0.06	5
대전광역시	-0.20	0.32	4
울산광역시	-0.47	0.05	6
세종시	-0.52	0.00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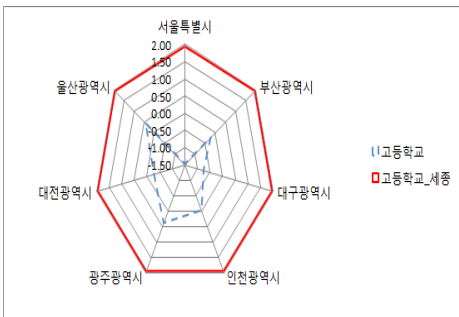
## 11. 교육문화과학 부문

<그림 4-63> 중학교 특광역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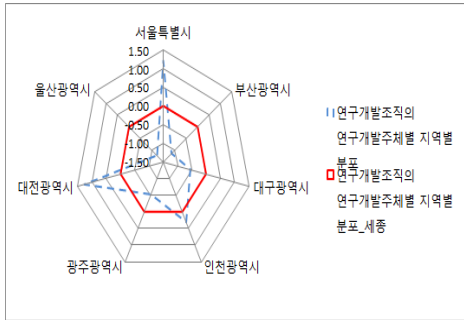
구분	표준화값	차이	순위
서울특별시	-1.25	-3.38	8
부산광역시	-0.45	-2.57	6
대구광역시	-0.37	-2.50	5
인천광역시	-0.60	-2.72	7
광주광역시	0.38	-1.74	2
대전광역시	0.26	-1.87	3
울산광역시	-0.10	-2.22	4
세종시	2.12	0.00	1

<그림 4-64> 고등학교 특광역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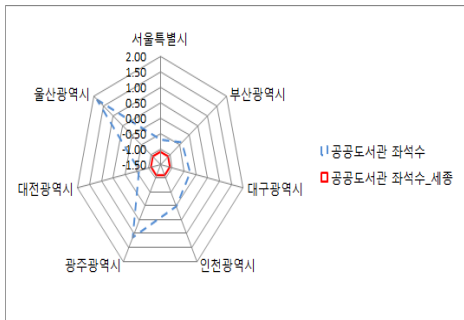
구분	표준화값	차이	순위
서울특별시	-1.48	-3.42	8
부산광역시	-0.23	-2.17	5
대구광역시	-0.76	-2.70	7
인천광역시	-0.02	-1.97	4
광주광역시	0.39	-1.56	3
대전광역시	-0.28	-2.22	6
울산광역시	0.43	-1.51	2
세종시	1.94	0.00	1

<그림 4-65> 연구개발조직의 연구개발주체별 지역별 분포 특광역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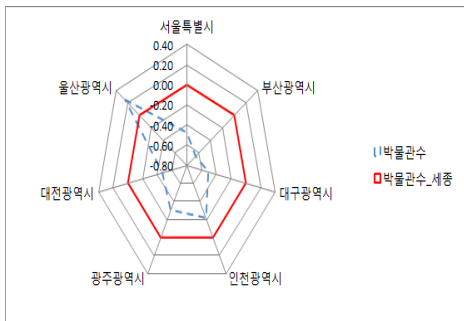
구분	표준화값	차이	순위
서울특별시	1.22	1.22	2
부산광역시	-1.14	-1.14	7
대구광역시	-0.55	-0.55	6
인천광역시	0.31	0.31	3
광주광역시	-0.52	-0.52	5
대전광역시	1.27	1.27	1
울산광역시	-1.23	-1.23	8
세종시	0.00	0.00	4

<그림 4-66> 공공도서관 좌석수 특광역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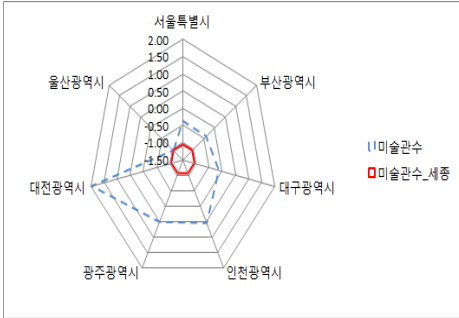
구분	표준화값	차이	순위
서울특별시	-0.71	0.39	7
부산광역시	-0.37	0.73	5
대구광역시	-0.24	0.86	4
인천광역시	0.02	1.12	3
광주광역시	1.14	2.24	2
대전광역시	-0.59	0.51	6
울산광역시	1.86	2.96	1
세종시	-1.10	0.00	8

<그림 4-67> 박물관수 특광역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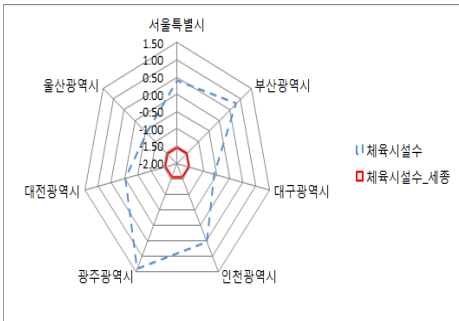
구분	표준화값	차이	순위
서울특별시	-0.48	-0.48	6
부산광역시	-0.65	-0.65	8
대구광역시	-0.51	-0.51	7
인천광역시	-0.22	-0.22	3
광주광역시	-0.30	-0.30	4
대전광역시	-0.47	-0.47	5
울산광역시	0.25	0.25	1
세종시	0.00	0.00	2

<그림 4-68> 미술관수 특광역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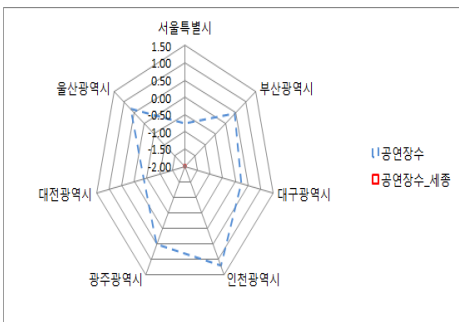
구분	표준화값	차이	순위
서울특별시	-0.37	0.69	5
부산광역시	-0.40	0.66	6
대구광역시	-0.13	0.93	4
인천광역시	0.55	1.61	2
광주광역시	0.51	1.57	3
대전광역시	1.97	3.03	1
울산광역시	-1.06	0.00	7
세종시	-1.06	0.00	7

<그림 4-69> 체육시설수 특광역시 비교



구분	표준화값	차이	순위
서울특별시	0.40	1.95	4
부산광역시	0.79	2.34	2
대구광역시	-0.59	0.96	7
인천광역시	0.54	2.10	3
광주광역시	1.41	2.97	1
대전광역시	-0.03	1.52	5
울산광역시	-0.57	0.98	6
세종시	-1.55	0.00	8

<그림 4-70> 공연장수 특광역시 비교



구분	표준화값	차이	순위
서울특별시	-0.76	1.20	7
부산광역시	0.46	2.42	4
대구광역시	0.23	2.19	5
인천광역시	1.21	3.17	1
광주광역시	0.52	2.48	3
대전광역시	-0.37	1.59	6
울산광역시	0.67	2.63	2
세종시	-1.96	0.00	8

### 제3절 행복지수 가중치 선정의 준거 방안

#### 1. 설문을 활용한 가중치 조사

##### 1) 조사목적

- 행복지수 도출은 도시의 삶의 질 또는 행복한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기반으로 활용되는 것으로써 통계 전문가의 현장 경험과 의견을 조사하여 지수 설정에 반영
- 또한 행정일선에서 지역에 대한 다양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지역통계의 생성 및 활용에 있어서 중심 역할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행복지수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여 반영
- 제시된 대안들의 현실적합도를 고려하고 대등비율을 적용하여 표준화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와의 비교를 실시하는 도구로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음
- 반면, 특광역시간 행복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하는 가중치는 특정 지자체가 아닌 전체 특광역시를 대상으로 가중치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2) 표본추출방식

- 전체 특광역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목록을 배포
- 전문가의견조사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주관 하에 각 지역통계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배분하고 단순무작위추출방법에 의해 표본추출

##### 3) 설문대상 및 조사방법

- 설문은 일반설문조사방식에 의한 일반항목과 AHP 분석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계층분석방법)에 의한 설문으로 구성
- 설문지를 전체 특광역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배포하고, 전체 공무원 중 최소

10%이내를 회수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일반항목에 대한 설문은 서열척도를 기준으로한 리커트(likert) 척도와 일반형 질문을 구성하여 응답을 수거
- 학계 전문가는 전국 국책연구원 지역경제 및 지역통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며, 이중 통계적인 유의성이 떨어지는 설문을 제외하고 AHP 분석을 실시함
  - 유의성의 검증은 일관성지수(consistency index)와 일관성비율(consistency ratio)를 기준으로 전체 유의성에 부(-)적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순차적으로 제거하면서 최적 일관성지수와 일관성비율을 도출하는 설문지를 선택하여 분석함

## 2. 가중치 적용 방법

### 1) AHP의 개념

- 지난 80여 년 동안 선진국에서는 Operation Research와 Management Science의 도입을 통해 보다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경쟁력을 크게 향상 시켜 왔음
  - 그러나 위와 같은 수리적 방법들은 의사결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판단과 결정”의 단계에 이르러서는 커다란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그간 많은 방법들이 개발, 활용되어 왔지만 그 중에서 미국 펜실베니아대학 와튼 스쿨의 Thomas L. Saaty교수에 의하여 개발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계층분석방법)이론은 다방면에서 활용 가능한 현실 적응성이 매우 높은 이론으로 평가 받고 있음
-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계층분석방법)은 복잡한 문제를 구조화한 뒤 한 단계씩 중요도(선호도)를 평가하여 최종적으로 목표인 최선의 대안을 선택



- 일정한 수의 대안들을 다수의 목표에 견주어 평가하는 기법이지만, 옳은 답을 찾는 법칙이나 모델은 아님
  - 반면, 의사결정자가 가장 최선(best)의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음
- 여러 대안 중에서 최적의 대안을 결정하는 경우에 유용하게 활용 가능
- 최적 대안의 도출을 위해서는 대안간의 상호 비교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평가 기준이 정성적인 요소와 정량적인 요소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일정한 과학적 방법을 통해 간단하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이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여러 대안 중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기 위해서 평가기준의 상대적 중요성을 결정하는 AHP가 활용됨
- AHP는 시스템 이론에 그 기초를 두고 복잡한 현상을 귀납적 방법과 연역적 방법을 조합한 통합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
- 계층분석과정(AHP)의 유용성은 계량적인 의사결정변수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계량화하기 어려운 질적 혹은 무형적 의사결정변수에 대해 비율척도로서 측정이 가능
  - 막연하거나 복잡한 문제를 점차 세부적이고 구체적 요소로 분화하여 단순한 이원비교에 의한 판단으로 의사결정문제의 해결가능성을 높여줌
- 반면 계층분석과정을 통한 분석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그러나 AHP는 의사결정 문제를 계층화함에 있어서 일정한 이론적 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함
  - 집단 의사결정 시 의사결정자가 다수인 경우 평가자 판단을 어떻게 종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발생 가능
  - 포함한 의사결정 체계의 전체적인 문제로 가중치 산출 결과가 의사결정자에 의해 조작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음
-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이 갖추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첫째, 이원비교(reciprocal comparison)와 관련된 전제조건으로 의사결정

자의 두 대상에 대한 이원비교가 반드시 가능해야 하며 중요성의 정도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임

- 둘째, 동질성과 관련된 것으로 중요성의 정도는 한정된 범위 내에 정해진 척도를 통해 표현되어야 한다는 점임
- 셋째, 독립성과 관련된 문제로 상대적인 중요도를 평가하는 요인들은 특성이나 내용 측면에서 서로 관련성이 없어야 한다는 점임
- 넷째, 계층구조는 의사결정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하게 포함하는 것으로 가정되어야 한다는 점임

## 2) 분석적 위계절차(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에 의한 가중치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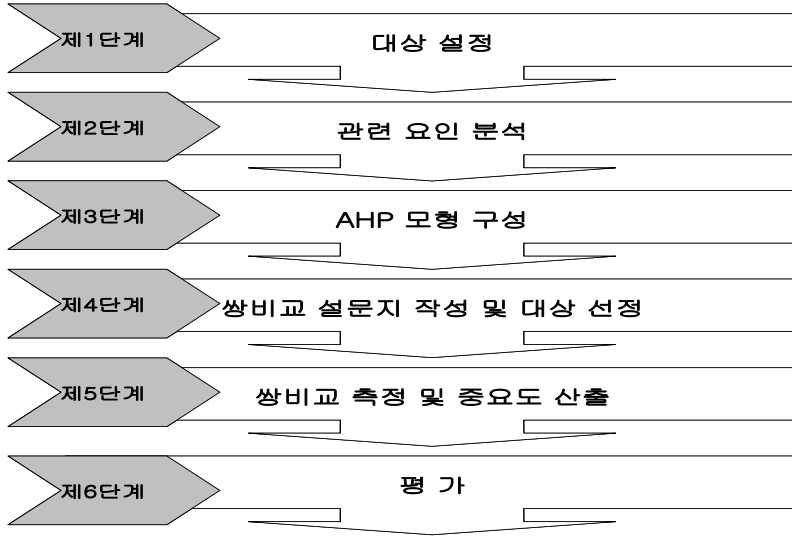
○ 평가지표별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의 하나로 분석적 위계절차(AHP)를 이용할 수 있음

- 분석적 위계절차는 업적평가를 위한 복수의 성과측정치를 통합하여 하나의 종합점수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임
- 분석적 위계절차는 복수 기준의 통합에 의한 종합지표를 개발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임

○ 분석적 위계절차(AHP)의 과정

-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의 과정은 크게 여섯 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음
- ① 대상 설정, ② 관련 요인 분석, ③ AHP 모형 구성, ④ 쌍대비교 설문 작성 및 대상 선정, ⑤ 쌍대비교 측정 및 중요도 산출, ⑥ 평가의 순임

&lt;그림 4-71&gt; 분석적 위계절차(AHP)의 과정



- 첫째, 제1단계인 대상 설정에서는 의사결정의 대상을 설정하는 단계로써, 의사결정 계층구조의 최상위 계층을 의미하며, 의사결정의 목적이 되는 것을 설정하는 단계임
- 둘째, 제2단계인 관련요인 분석은 의사결정 계층구조의 속성을 설정하는 단계로 최상위 계층의 목적에 맞는 하위 계층구조를 설정하는 단계를 의미함
- 셋째, 제3단계인 AHP 모형구성은 대상설정과 관련요인 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를 AHP 기법에 적용 가능한 모형으로 구성하는 단계임
- 넷째, 제4단계인 쌍대비교를 위한 설문지 작성 및 대상자 선정은 다음과 같이 의사결정 요소간의 상호비교를 위한 행렬을 구하기 위하여, 통상 중요도 척도는 9개로 제시하고 비교의 가중치를 계산할 수 있도록 설문을 작성하고, 각 체계별로 필요한 항목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단계임

<표 4-2> 요인간 중요도 평가 예시

기준요인 항목 A	A가 절대적 중요	A가 확실히 중요	A가 매우 중요	A가 약간 중요	서로 대등하게 중요	B가 약간 중요	B가 매우 중요	B가 확실히 중요	B가 절대적 중요	비교요인 항목 B						
	9	8	7	6	5	4	3	2	1		1/2	1/3	1/4	1/5	1/6	1/7
A1					√					B1						
								√		B2						
A2						√				B2						
☞ 평가방법 · 1에서 9까지의 수치는 분석을 위한 것이므로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 기준요인란의 항목 요인 1과 비교요인란의 항목 요인 2, 요인 3을 각각 비교한다. · 기준요인란의 항목 요인 2와 비교요인란의 항목 요인 3을 비교한다. ☞ [응답 예 : √] 에 대한 설명 - 첫번째 행 : 기준요인란의 《A1》이 비교요인란의 《B1》보다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시 - 두번째 행 : 비교요인란의 《B2》가 기준요인란의 《A1》보다 약간 중요하다고 판단시 - 세번째 행 : 약간 중요과 매우 중요한 사이라고 판단시																

상대적 크기	정 의	A: 열(Column)에 있는 요소 B: 행(Row)에 있는 요소
1	서로 같음	A와 B의 중요도는 같음
3	약간 중요함	A가 B보다 약간 중요함
5	중요함	A가 B보다 중요함
7	매우 중요함	A가 B보다 매우 중요함
9	절대적으로 중요함	A가 B보다 절대적으로 중요함
2, 4, 6, 8	각 사이의 중요도 크기	

○ 다섯째, 제5단계인 쌍대비교 측정 및 중요도 산출은 AHP 모형의 각 수준에서 차상위 기준에 의거하여 쌍비교를 실시하여 판단값의 행렬을 구함. 이하의 단계를 거쳐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계층별 상대적 중요도를 최종결정하며 이러한 절차는 다음과 같음

- 설문응답자의 항목을 기하평균
- 하나의 행렬(matrix)을 구성하고 각 열의 총합으로 각 원소(element)를 나누는 후 matrix의 각 행을 평균(average)하여 가중치
- 일관성지수 산출(consistency ratio)은 의사결정자의 의견이 일관성 있게 측정되었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작업으로 각 쌍비교 행렬에 대한 일관성 지수를 계산하여 일반적으로 산출결과가 0.1이하 이면 일관성이 보장됨
- 다른 요인에 대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 상대적 중요도 최종 결정

### 3) 본 연구에서 AHP의 활용 방향

- “세종특별자치시 행복지수 개발”과 관련된 지표는 크게, 인구, 고용노동임금, 물가가계, 보건사회복지, 환경, 광공업에너지, 건설주택토지, 교통정보통신, 도소매서비스, 재정, 교육문화과학으로 나누어지며, 각각의 분석대상별 지표로 구성됨
  -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지표상의 계층을 단순히 고려하기 보다는, 상대적 중요성 정도를 반영하여 평가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맥락에서 지표의 상대적 중요도 또는 가중치를 반영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기법을 다음과 같이 활용하고자 함
  - 지역통계 개발 및 활용방안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요인)은 무엇인가를 조사하고, 이를 지수 추출의 가중치로 반영하고자 함
- 분석적 위계절차를 ‘지역통계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조사’에 활용함으로써 다양한 장점을 확보할 수 있음
  - 지역통계 개발 및 활용에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의 상대적 중요도를 결정함에 따라 행복 지수의 개발에 그 활용도를 제고시킴
  - 주관성을 최소화하고 객관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절차라는 점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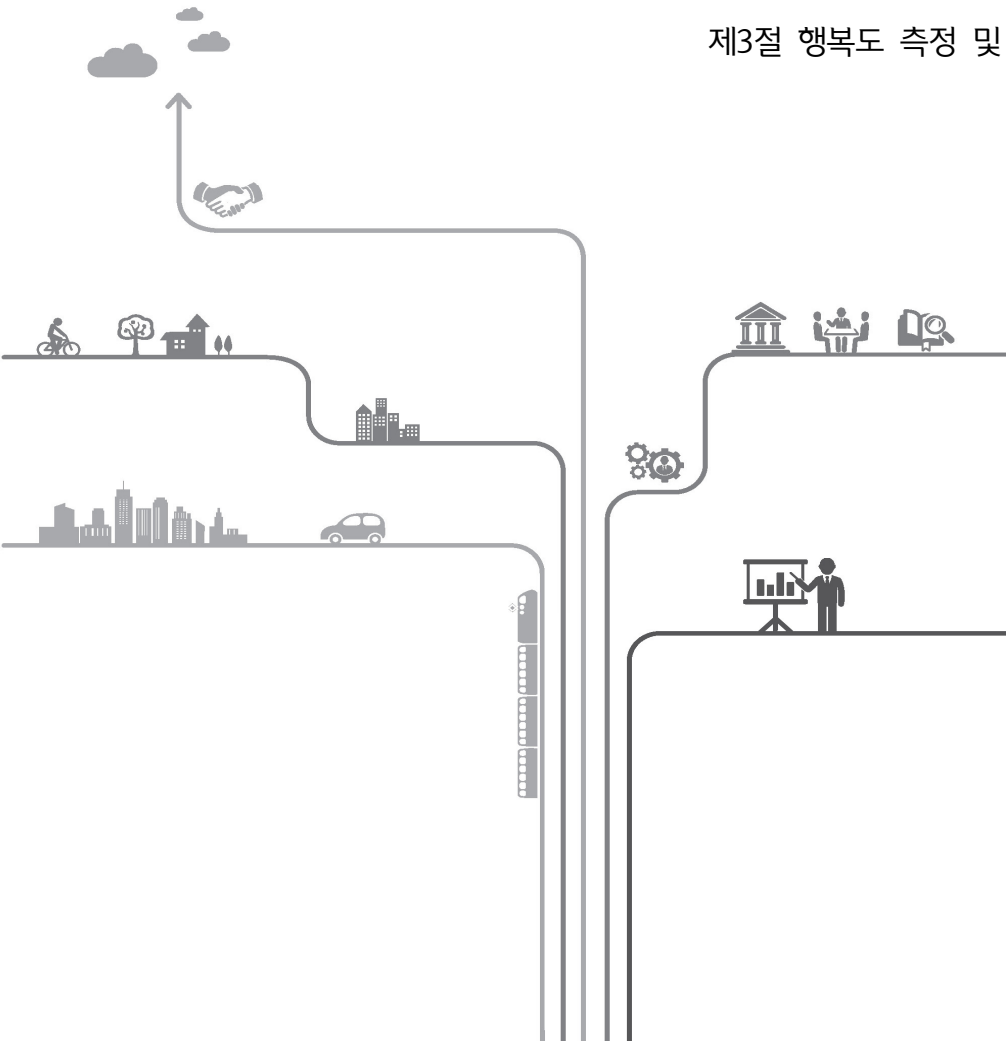
편향되지 않는 평가가 가능함

- 지역통계 개발 및 활용에 있어서 방안별·항목별 상대적 중요성에 대해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줌
  - 대안의 우선순위 결정과정의 투명성 및 시의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지역통계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조사’에 관한 분석적 위계절차를 구성하여 각 분야별, 항목별, 지표별 가중치를 측정할 수 있음
- 반면, 본 연구에서는 세부지표의 성격을 적용하되, 동등가중치를 활용하여 특광역시간 가중치의 차별성을 고려하지 않음

# 제5장

##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세종특별자치시 부문별 지역간 도시경쟁력 비교  
제2절 활용 및 정책제언  
제3절 행복도 측정 및 활용의 한계







## 제5장

## 결론 및 정책제언

## 제1절 세종특별자치시 부문별 지역간 도시경쟁력 비교

## 1. 특광역시 도시경쟁력 비교

- 세종특별자치시의 도시경쟁력은 고용노동임금, 환경, 교통정보통신, 도소매 서비스, 재정, 교육문화과학에서 타 특광역시의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광역시 중 평균보다 각 부문이 우수한 부문의 수는 최대 8개(울산), 최소 2개(대구)인 것으로 나타남
  -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는 평균보다 우수한 경쟁력을 가진 부문은 5개(인구, 물가가계, 광공업에너지, 건설주택토지)로 나타남
- 동일 개수의 타 부문보다 우수한 경쟁력을 가진 특광역시는 서울시, 광주광역시인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세종특별자치시는 기본적으로 지역통계에 대한 구축이 매우 미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특광역시간 분석을 위해서는 근원적인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서울시 및 광주광역시와는 동일한 수 만큼의 분야에서 행복정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반적으로는 행복정도가 양극화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즉, 유사한 행복정도 수를 가진 타 특광역시와 비교할 경우, 세종특별자치시는 평균에 못미치는 행복정도를 가진 분야에서의 미흡한 정도가 절대적으로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우수한 부문에서의 행복정도 역시 절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세종특별자치시의 행복지수는 우수한 부문과 부진한 부문간 상

쇄효과가 존재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세종특별시의 행복정도가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남

- 특히, 환경, 교통정보통신, 도소매서비스에서의 행복정도의 절대적인 크기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행복정도가 평균보다 높은 부문에서는 인구(0.6), 물가가계(0.04), 보건사회복지(0.61), 공공업에너지(0.77), 건설주택토지(1.51)로 물가가계를 제외하고 행복정도가 우수한 절대적인 크기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분석됨
  - 따라서, 우수한 행복정도를 갖은 부문에 있어서는 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행복을 진작시킬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함
  - 또한, 행복정도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부문에서는 최소 평균에 접근할 정도의 관리 및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표 5-1> 특광역시 행복지수 종합

구분	서울 특별시	부산 광역시	대구 광역시	인천 광역시	광주 광역시	대전 광역시	울산 광역시	세종 특별시
인구	-0.07	-0.46	-0.21	0.09	-0.01	0.04	0.32	0.60
고용 노동 임금	0.50	-0.25	-0.09	-0.26	0.04	0.00	-0.43	-0.33
물가 가계	-0.18	-0.27	-0.50	0.20	-0.03	0.08	0.21	0.04
보건 사회 복지	-0.15	0.24	-0.52	-0.06	-0.51	0.47	0.09	0.61
환경	0.03	-0.17	0.10	-0.23	-0.69	0.14	0.20	-0.76
광공업 에너지	-0.26	-0.42	-0.38	-0.10	-0.49	-0.69	1.56	0.77
건설 주택 토지	-1.00	0.20	-0.25	-0.39	0.10	-0.57	0.39	1.51
교통	1.43	0.11	-0.05	-0.64	0.21	0.53	-0.22	-1.38

구분	서울 특별시	부산 광역시	대구 광역시	인천 광역시	광주 광역시	대전 광역시	울산 광역시	세종 특별시
정보 통신								
도소매 서비스	0.74	0.73	0.64	-1.51	0.82	0.07	-0.11	-1.37
재정	1.66	-0.14	-0.37	0.03	-0.87	-0.23	0.69	-0.37
교육 문화 과학	-0.43	-0.25	-0.37	0.22	0.44	0.22	0.03	-0.20

## 2. 특광역시 행복지수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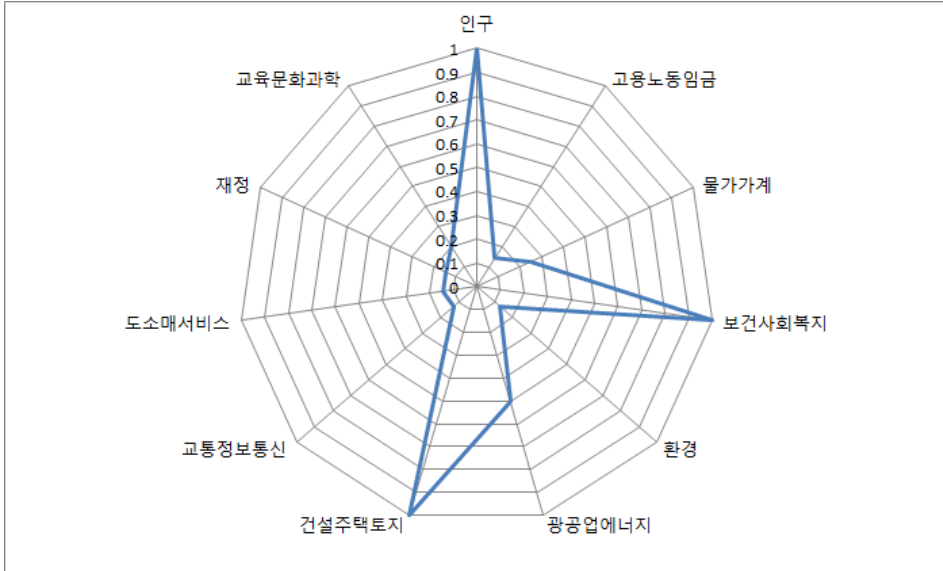
- 세종특별자치시의 부문간 순위를 검토한 결과, 세종특별자치시는 전체 11개 부문에서 인구(1위), 광공업에너지(1위), 건설주택토지(1위) 부문이 타 특광역시보다 행복정도가 확보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환경부문과 교통정보통신은 전체 8개 특광역시 중 8위, 도소매서비스는 7위를 나타냄으로써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질 기반을 조성 측면에서 매우 낮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즉, 세종특별자치시는 높은 삶의질을 요구하는 이구, 보건복지사회, 건설주택토지가 조성이 되어 있으나, 전반적으로 이에 대한 백업 부문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 이외에 교육문화과학과 도소매서비스 부문에서의 행복정도가 낮게 나타남으로써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도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남

<표 5-2> 특광역시 행복지수 부문간 순위

구분	서울 특별시	부산 광역시	대구 광역시	인천 광역시	광주 광역시	대전 광역시	울산 광역시	세종 특별시
인구	6	8	7	3	5	4	2	1
고용 노동 임금	1	5	4	6	2	3	8	7
불가 가계	6	7	8	2	5	3	1	4
보건 사회 복지	6	3	8	5	7	2	4	1
환경	4	5	3	6	7	2	1	8
광공업 에너지	4	6	5	3	7	8	1	2
건설 주택 토지	8	3	5	6	4	7	2	1
교통 정보 통신	1	4	5	7	3	2	6	8
도소매 서비스	2	3	4	8	1	5	6	7
재정	1	4	6	3	8	5	2	7
교육 문화 과학	8	6	7	2	1	3	4	5

- 세종특별자치시의 11개 부문의 도시경쟁력을 파악해본 결과, <그림 5-1>과 같이 각 분야별 우수 및 부진 정도에 대한 부문별 행복정도를 파악할 수 있음
  - 각 분야는 특광역시와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 산출되었으며, 가장 미약한 행복정도를 갖은 부문은 도소매서비스 및 교통정보통신인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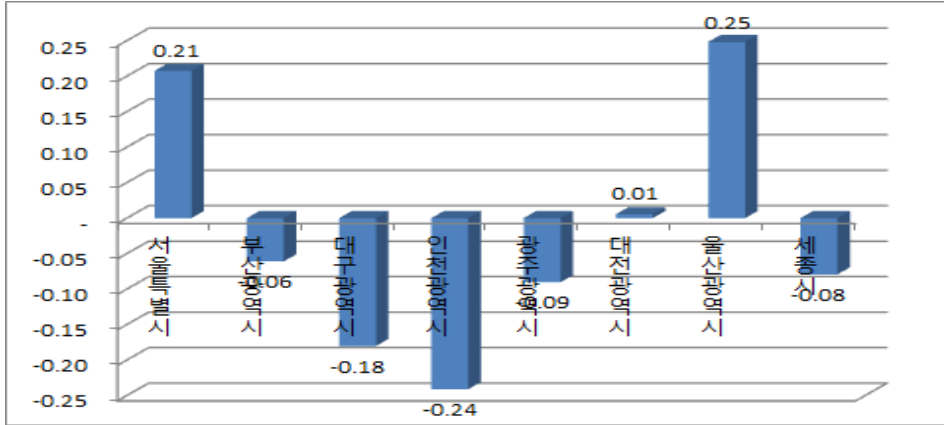
<그림 5-1> 세종특별자치시 행복지수 우수 및 부진 부문



### 3. 세종특별자치시 행복지수 종합

- 행복지수가 가장 우수한 특광역시는 울산(0.25, 1위), 서울(0.21, 2위), 대전 (0.01, 3위)로 나타남
- 전반적인 특광역시 행복지수의 평균은 -0.02로 나타남
  - 특광역시 중 전체 행복지수 평균에 미달하는 특광역시는 5개 인 것으로 나타남
  - 이 중 세종특별자치시는 2번째로 행복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즉, 세종특별자치시의 행복정도는 -0.08로 평균에 미달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전체 특광역시 중 56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됨

<표 5-2> 세종특별자치시 행복지수 종합



## 제2절 활용 및 정책제언

- 1) 세계적으로 행복에 대한 가치와 관심이 증대되면서 행복의 가치를 측정하고자 하는 시도 증가
  - 경제발전에 따라 소득증가가 삶의 전부가 아님을 인지, 물질적인 풍요와 함께 삶의 질, 행복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음
    - 1970년대부터 ‘국민총행복(Gross National Happiness)’개념이 도입되었고, 이러한 개념 도입은 세계 각국에서의 행복에 대한 개념 정의, 연구 방법의 다양한 접근 등 새로운 시도가 이어지게 되었음
    - 세계 주요국가들 역시 정부 주도하에 행복도 측정 시스템 구축에 노력하여 오고 있으며, 그런 시도와 노력 가운데 몇몇 연구에서는 중요한 성과를 얻게 됨
      - 뉴질랜드, 영국, 미국 캐나다 등의 국가 역시 행복도 조사 추진에 성과를 얻고 있음

- 2) 박근혜정부의 국민행복시대에 부응하는 ‘지역행복’에 대한 관심 증대 및 관련 정책의 발굴, 이를 실현하고자 하는 로드맵 작성을 통한 추진
- 세계적 조류에 부응하여 박근혜정부는 출범과 함께 ‘국민행복시대’를 열어 갈 것을 천명하였으며, 국민 개개인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개발 및 추진을 실천하고 있음
  - 지금까지를 뒤돌아 볼 때, 경제발전과 소득 증대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 또는 행복감은 그다지 높지 않으며 오히려 선진국 보다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높음
    - OECD 평균 대비 높은 자살률, 타국 대비 많은 평균 근무시간 등
  - 2013년 국정과제에서 지역 주민의 체감형 행복도의 중요성 및 측정 방안 필요성이 피력되었고, 이에 기반한 행복 및 행복과 관련한 제반의 정책 추진을 위한 방안이 구상되었으며, 특히 이를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행복도를 측정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강조됨
    - 측정 가능한 국민소득의 증가와 달리 소득분배, 여가생활, 환경, 복지 등 만족도를 측정 기준 부재
    - 경제, 일자리, 산업, 의료, 복지, 문화, 환경, 인프라 등의 시책과 연계한 행복도 지수의 도출로 다양한 용도 활용 가능
- 3) 실제 개발한 지역행복도 지표를 각 특광역시에 적용하여 측정함으로써 지역의 행복의 정도를 실질적으로 파악
- 전체 특광역시를 대상으로 하여, 최종 확정된 지표체계 및 설계에 따라 측정을 실시하였으며, 객관적 지표는 실질적 서비스 공급정도에 관한 통계수치로 측정, 주관적 지표는 사회조사에서 활용된 자료를 추출하여 삶의 질 만족도에 대한 부문별 포괄적 질문을 통해 측정을 실시하였음
  - 또한, 측정에 있어 각 부문별 가중치를 산정하기 위하여 부문별 동등 가중치를 고려하여 지역행복도를 산출하였음

- 4) 지역행복도 분석을 전체 특광역시를 대상으로 지역 행복도를 조사한 최초의 시도였다는 측면과 측정 결과를 지역 행복 관련 정책의 계획, 추진에 반영 가능하다는 데에 큰 의의
  - 이 연구는 최초로 특광역시를 대상으로 한 지역행복도 조사라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으며, 지표체계를 지역통계 전범위를 고려하여 분석하여 각 부문별, 지역별 비교분석이 가능하다는데 큰 특징을 가지고 있음
  - 지역행복도 측정 결과를 공개하여 지역민들의 알권리를 증진하고, 지역생활권 관련 계획수립, 사업선정, 성과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로 제공함
  - 이 조사는 기초 연구로서 일회성에 그칠 가능성이 있으나,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이 조사 결과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할 필요가 있음
  - 향후 매년 지속적인 조사 및 조사 결과의 공개를 통한 정례화로 객관성 및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지속적으로 지표체계와 방법을 보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5) 70개로 구성된 행복지수를 설정, 지역주민의 행복도 지수를 객관적인 정량지표와 주관적인 정성지표로 구성, 산출과정은 3단계로 구성되어 실시
  - 세종특별자치시 행복지수는 객관적인 정량지표, 주관적인 정성지표로 구성하였으며, 양(+)<sup>1)</sup>적 및 부(-)<sup>2)</sup>적 지표의 혼용을 활용함
    - 지역주민 행복도 지수 도출을 위한 총 46개의 지표 중 38개의 지표는 양(+)<sup>1)</sup>적인 지표로 구성
    - 나머지 8개 지표는 저감시키는 부(-)<sup>2)</sup>적인 지표로 구성하였음
  - 산출과정은, 1단계인 ‘지역행복지수 지표체계 검토 및 적정지표 선정’, 2단계인 ‘부문 및 지표의 가중치’, 3단계인 행복지수 산출 등으로 구분



## 6) 세종특별자치시 복리(well being)의 전반적 모니터링

- 개인의 복리수준에 관한 자료를 규칙적으로 측정·수집함으로써 국가 또는 세종특별자치시의 복리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용이하게 파악
-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의 복리영역을 구성하는 다양한 측면(건강, 교육, 관계, 경제, 환경 등)을 모두 포괄할 수 있어야 함

## 7) 정책형성과정(policy making process)에 반영

- 행복도 측정을 통하여 국민(또는 주민)의 삶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또는 국민이 자신의 삶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 등을 파악하여 삶의 질에 초점을 둔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반영(ONS, UK, 2013; 32-34)
- 특히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진보의 부동의 지표였던 GDP의 한계를 확인하고 삶의 질과 행복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대안적 측정수단을 생산함으로써(Stiglitz, Sen and Fittossi, 2009)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
- 정부의 지역생활권정책을 주민의 삶의 질 개선 및 행복도 증진의 관점에서 목표, 분야, 사업, 추진체계 등을 설계하는데 활용

## 8) 국민 요구(needs)와 목표집단(target group)의 확인

- 삶의 질 또는 행복도에 대한 연차별 조사를 기초로 서로 다른 집단간 또는 서로 다른 지역간 비교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의 복리(well-being)정책을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 타겟 집단 및 타겟지역을 파악
- 시민이 자신의 행복 또는 삶의 질에 대해 생각하는 관심과 중요도를 파악함으로써 수요자 맞춤형 정책이 가능
- 지역생활권정책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개별정책이 어떤 집단의 어떤 수요를 우선적으로 충족시켜야 하는지를 판단하는데 활용

9) 개별 정책의 평가(policy appraisal)에 활용

- 세종특별자치시의 개별정책의 타당성을 삶의 질 또는 웰빙 차원에서 평가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사업선정과정에 기여
- 가장 대표적인 활용사례로서 흔히 정책평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비용편익분석(B/C분석)의 경우 정책의 비용과 편익의 가치추정을 위한 대안적 방법으로 활용(Fujiwara, et.al., 2013; Fujiwara and Campbell, 2011)
- 지역생활권정책의 세부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할 때 특히 계량적 가치추정이 어려운 편익을 산정하는데 활용

10) 정책추진의 성과평가(policy evaluation) 및 모니터링

- 행복도 측정은 정부가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개입의 효과성(effectiveness)을 평가 또는 모니터링하는데 활용
- 특히 정책의 시행 전후간 비교 또는 통제집단과 비교집단간 비교 등을 통해 해당 정책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지를 판단하는데 활용
- 지역발전정책의 성과평가에서 산출(output) 중심의 실적평가에 부가하여 결과(outcome) 중심의 만족도 평가를 보완

11) 지역간 비교·활용

- 삶의 질 수준 또는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체계의 각 영역, 부문, 지표의 수준을 국내외적으로 비교·평가 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비교집단 중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위상의 파악을 통해 삶의 질 정책의 우선순위 판단에 활용
- 가장 대표적 사례로는 Eurostat(EU의 통계국)이 생산하는 EU-SILC(European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및 삶의 질 지표(quality of life Indicators)와 OECD의 “guidance on the measurement of personal well-being”을 꼽을 수 있음(ONS, UK, 2013)

- 각 지자체로 하여금 삶의 질이나 행복도의 상대적 위상을 자가 진단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정책방향 설정 및 정책수단 선정에 기여
- 12) 본 연구 결과는 기존의 지역발전 정책과 관련한 지표들과 연계한 통계적 활용이 가능
- 지역의 범주와 정책 목표에 따라 지역의 현황을 진단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평가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이 연구결과가 활용될 수 있을 것임.
  - 매년 지속적으로 조사하게 될 이 연구 결과물은 유관기관들이 구축하고 있는 통계DB와 연계하여 통계자료로서 효율적인 활용의 여지가 크다고 할 수 있음
  - 지금까지의 하드웨어 중심의 사업 방향을 벗어나 지역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실생활에 밀접한 정책을 수립 및 실천하는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지역마다 개성을 살린 프로그램 및 콘텐츠 중심의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표화에 반영이 필요

### 제3절 행복도 측정 및 활용의 한계

- 1) 자료 구축의 한계
- 본 연구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행복조사를 위한 새로운 지표를 개발 이를 통한 종합적인 행복도를 측정하고자 한 특광역시간 시도로 그 의미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자료의 객관성 확보나 가용자료의 한계가 존재함
  - 통계지표나 지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공식 통계 자료를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최근 자료 확보가 곤란하며, 특히, 최근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역

통계의 구축 여력은 매우 미미하여 적절한 통계확보에는 한계가 존재함

- 향후, 행복도 지표의 발전 및 보완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기존 통계에 대한 관리 및 신설 통계DB의 관리를 통하여 실질적이며 객관적인 통계 구축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함
-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역발전관련 사업과 행복지수 개발을 통한 조사 결과가 지역발전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역점적인 노력이 필요함
- 아울러, 개발된 행복도 지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모니터링과 후속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

## 2) 접근방법(approach)의 한계

- 행복도의 개념과 지표의 선정방식에 따라 행복도 측정에 다양한 접근이 존재
  - 대표적으로 주관적 접근, Sen의 역량접근(capability approach), 주관적 지표와 객관적 지표의 혼합접근 등
- 수많은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거의 모두가 서로 다른 접근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들간에 지표에 대한 합의도출이 곤란하고 서로 다른 접근은 각각 서로 다른 결과를 산출
  - 본질적으로는 주관적 지표나 객관적 지표 모두가 개인이 경험한 삶의 질 상태에 대한 표준적 수준(standard level)을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 있음(Albouny, Godferoy and Lollivier, 2010: 7)
- 주관적 지표와 객관적 지표는 각각 방법론적 한계를 지니고 있음
  - 주관적 행복도 측정의 방법론적 문제로는 응답자의 맥락적 효과(contextual effect), 질문순서, 응답척도, 질문위딩 등(ONS, UK, 2013: 31)
  - 객관적 지표는 자료의 신뢰성과 대표성 부족, 지표간 상관성 존재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음
- 본 연구의 경우 특광역시를 대상으로 하는 행복도 측정이기 때문에 삶의 질 관련 지표연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개념적, 방법론적 한계 이외에도 다

음 두 가지 측면에서 제약을 안고 있음

- 첫째, 객관적 지표의 활용상 제약으로서 세종특별자치시의 통계 구축 레벨과 타 특광역시의 레벨이 상이함으로써 모든 특광역시에 공통적인 공인된 통계자료가 매우 적기 때문에 지표활용도에 제약이 매우 커서 측정결과와 설명력이 부족
- 둘째, 주관적 만족도의 조사방법상 한계로 기존에 실시한 사회조사내 항목을 활용하여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대표성과 설명력이 다소 부족함

### 3) 해석(interpretation)의 한계

- 지표체계의 일부 영역, 부문 및 지표들 중에는 해석상 상충성(controversy)이 있는 것들이 존재(Stiglitz, et.al., 2009)
  - 예1 : 교통은 연료의 소비증대를 통해 GDP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대기오염으로 삶의 질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침
  - 예2 : 지가의 경우 개인의 자산가치 또는 경제적 부(富)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주거나 경제활동의 비용 측면에서는 부정적 영향을 미침
-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도 지표의 영향력이 서로 상충되거나 또는 의미가 왜곡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영국 통계국(ONS)의 삶의 질 조사의 경우 농촌성(rurality), 녹지비율 등 생태지표를 중시하고 있으나 이촌향도의 인구이동이 심한 중국 농촌지역의 삶의 질에는 고용, 소득 등 경제지표가 훨씬 중요

### 4) 복합지수(composite index)의 한계

- 행복도 또는 삶의 질의 특성은 매우 다차원적(multidimensional)이기 때문에 영역 또는 부문 등으로 계층화된 지표체계를 구성하는 사례가 대부분임
- 이 때 영역 또는 부문을 구성하는 개별지표를 종합하여 복합지수를 산출하는 방법론은 여러 가지가 활용되고 있으나 각 방법마다 한계가 있으며 합

### 의가 곤란

- 특히 각 영역과 부분의 행복도와 삶의 질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의 정도를 의미하는 가중치의 적용여부와 산출방법에 대한 이견이 많아 가중치 합산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곤란

## 【참고문헌】

- 소궁희·홍성효(2012), “충남도민의 행복지표 개발과 행복도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 전략연구 2012-01, 충남발전연구원.
- 김승권·장영식·조홍식·차명숙(2008), 「한국인의 행복결정요인과 행복지수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윤태(2009), “행복지수와 사회학적 접근법 :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는가?”, 한국사회학회 심포지움 논문집 9호, 75-90.
- 이성규(2006), 「시민행복지수 측정을 위한 지표체계 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 시정개발연구원.
- 이정전(2013), 「행복도시」, 서울: 한울.
- 이희길, 심수진(2009). 「삶의 질과 사회지표체계 연구」, 통계개발원..
- 임희섭(1996). “삶의 질의 개념적 논의”, 「한국행정학보」, 5(1), 1-14..
- 한국사회학회(2011), 「국민 삶의 질 측정을 위한 분석틀」.
- 박승규 외 (2013), 「지역행복도 지표개발 및 시범적용」, 지역발전위원회.
- 박승규, 김선기 (2013), 「대전시 신도시경쟁력지수 개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박승규 외 (2014), 「지역주민행복도지수」, 지역발전위원회.
- 박승규, 김선기 (2014), 「울산 도시경쟁력 및 행복 결정요인 분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황규선(2012), 「강원도 행복지수 작성을 위한 오연구」, 강원발전연구원.명진, 심수진 (2008), 한국의 행복지수 개발, 조사연구, 9(3) : 93-117.
- Albouy, V., Godefroy, P. and Lollivier, S.(2010), Measuring quality of life, France
- Cantril, H.(1965), Patterns of Human Concerns, New Brunswick, NJ: Rutgers

Univ. Press.

Carley, M.(1981), Social Measurement and Social Indicators, Lonon : George Allen & Unwin..

Cobb, C., W. (2000). Measurement Tools and the Quality of Life. Redefining Progress.

Conal, Smith (2013), OECD Guidelines & Utilizations on Measuring Subjective Well-being, International conference, 2013 A Happy Life: Beyond the Economic Value.

Easterlin, R. A.(2002). “Building a Better Theory of Well-Being”, in L. Bruni and P. L. Porta(eds.) Economics and Happiness(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2005).

Englehart, Ronald.(1996), “The Diminishing Utility of Economic Growth, Critical Review 10(4).

Galloway Susan(2005), “ A Literature Review” , in Scottish Executive Social Research(2005), Quality of Life and Wellbeing: Measuring the benefits of Culture and Sport.

Gerson, E.M. (1976). On quality of lif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1, 793-806.

Making Space for Well-being(2012). Cambridge Journal of Regions, Economy and Society, 5(1).

Lee, Myung-bak(2009). Opening Remarks. OECD 3rd Global Forum. Busan: Korea

O'Donnell, G.(2013), “ Using Well Being as a Guide to Policy” , J. Helliwood, R. Layard and J. Sachs, World Happiness Report 2013, 98-111.



-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UK(2013), Personal Well-being in the UK.
- Rapley, Mark (2003), Quality of Life Research. A Critical Introduction.,  
London: Sage
- Schalock, Robert L (2000), 'Three Decades of Quality of Life', Focus on  
Autism & Other Developmental Disabilities, Vol. 15, No. 2,  
pp116-127.
- Stiglitz, Joseph E., Amartya Sen & Jean-Paul Fitoussi(2009), Measurement of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 Progress, Commission on the  
Measurement of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 Progress.
- UN (2012), World happiness report.  
(2013), World happiness report.
- Veenhoven, Ruut. (2000). "The four qualities of life. Ordering concepts and  
measures of the good life."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1-39.